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4 호 2월28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50

제4호 (50)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1950년2월28일

## 내　용

교통성 산하 종업원 및 교통 로동자 직업동맹
열성자 련석회의에서 진술한 김 일 성 수상의 연설……(三)

쏘베트 군대의 백전 백승의 위력……김　해(九)

남반부의 현정세와 남반부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과업……김 삼 룡(一九)

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교양……고 혁(三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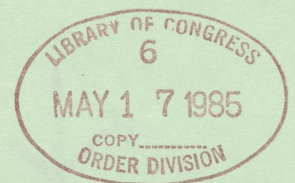
三·一운동과 그의 력사적 교훈……김 승 화(四十)

조선에서의 인민적 민주주의 발전……리 문 일(六二)

―참 고 자 료―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 군벌 및 봉건적 지주들을
반대하여 일어난 동만 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폭동……림 춘 추(八一)

―당 생 활 경 험―

강원도 당 단체의 간부 양성 사업……주 창 복(九九)

## 교통성 산하 종업원 및 교통 로동자 직업동맹
## 열성자 련석 회의에서 진술한

# 김일성 수상의 연설

(만장 총기립 우렁찬 박수 속에 등단)

동무들!

조국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의 기초로 되는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一九四九년도에 자기가 맡은 수송 계획을 초과 완수한 교통 운수 부문 전체 종업원들에게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동무들!

이 회의는 교통 운수 부문의 우수한 일꾼들인 기관사, 사령, 구내원, 기공, 선로원, 운전자, 모범로동자 및 지도 간부들과 교통 운수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 교통 부문 내 직맹 단체 열성자들이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 一년간 예정 숫자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선진적인 사업 방법과 경험을 호상 교환하며, 모든 부분적 결점들을 급속히 퇴치하고 앞으로 一九五〇년도 교통 운수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제반 대책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모인 회합입니다.

인민 경제 계획 부흥 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동맥인 교통 운수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국가와 전체 인민으로부터 동무들의 두 어깨에 부과된 커다란 과업은 가장 신성하고 심중한 것으로써 이 과업을 완수하

거 위한 투쟁은 조국의 륭성과 부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된 공화국 북반부의 교통 운수는 쏘련의 성의있는 원조와 우리 근로 대중의 열성적인 노력의 결과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철도 화물 수송 부문에 있어서 그 실적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四七년에는 二五二·九%로 장성되었으며, 四八년에는 四七년에 비하여 一四一·五%, 四九년에는 四八년에 비하여 一三八·八%로 매년 장성되었으며, 一九四九년도에는 석탄, 광석, 비료 등 중요 물자들의 품종별 수송을 완수하여 공장 광산 기업소의 생산 원료의 수요를 제때에 보장하였으며, 농촌에 비료를 제때에 수송하였으며, 상품 류통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통 운수 부문에서 쏘련의 선진적인 사업 방법을 섭취한 결과로 운수 사업의 기본인 다이야를 새로 편성함으로써 중요 물자들의 집결 수송으로 인하여 운송 기간이 단축되었으며, 기관차의 담당제 실시는 일군들의 책임성을 더욱 높이어 기관차의 성능을 제고하였습니다。 자동차 화물 운수는 현물세 수송을 위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류통을 원활히 보장하였으며 해운 부문에서도 선박 화물 수송과 부두 작업이 계획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자립적인 차량 공장이 하나도 없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원산, 서평양 등 六개소에서 자립적으로 보수품을 생산하여 많은 기관차들이 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원선 및 만포선의 급구배선에 전기 철도 건설을 위시하여 개천선의 광궤 공사가 준공되는 등 많은 시설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들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모범을 보이며, 창의성을 발휘하여 국가와 인민에게 특출한 공적을 내어 영예의 공화국 국기 훈장 및 공로 메달을 받은 동무가 二백여명이나 되는 것은 오늘 교통 운수 사업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운수 사업의 발전과 보장에 있어서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는 엄중한 결점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철도에서 발생된 대소 사고들을 분석하여 본다면 그 대부분이 일부 철도 일군들의 규정 위반과 운수 취급의 소홀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들이였습니다。 교통 운수 부문에 있어서 사고의



발생은 사업상 가장 큰 장애로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방지하는 문제는 운수 일군들 앞에 나서는 가장 중대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군들은 규률이 해이하고 국가 법령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데서 능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들을 발생시켜 국가에 적지 않은 손해를 주고 있습니다。

철도에서 화차 회귀를 단축하는 문제는 화차 운용 효률을 제고시켜 화물 류통을 민속히 보장하며, 화차를 증산하는 것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투쟁이 미약한 결과로 운수 능력 제고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라흥역같은 데서는 화차를 三十일 동안이나 체류시켰으며, 때로는 류치료까지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북반부 산업의 급격한 장성에 따라 수송할 화물은 많고, 화차는 이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수이기 때문에 화차의 회전률을 높임으로써 국가에서 준 중대한 화물 수송 계획을 초과 완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철도 일군들과 일부 산업 일군들이 이와 같은 새 환경 조건을 인식하지 못하고 화차의 회전률을 그냥 지연시키고 있는 현상은 가장 엄중한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려객 취급에 대한 문제입니다。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전체 인민들의 민주 건설을 위한 투쟁과 나날이 발전되는 인민 경제 계획의 승리적인 성과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형편이 현저히 향상되었는데 아직 일부 객차들은 문명치 못하고 불결하고 더더고 춥고 질서가 문란합니다。 많은 객차들을 개장하였으며, 매 객차마다 二명씩이나 전임 승무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승무원들은 려객에 불손하며, 자기 맡은 책임을 완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리 간상배들과 결탁하여 국가 재산을 좀먹는 사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一九五〇년도에 교통 운수 부문에 맡겨진 국가 계획 숫자는 작년에 비하여 더욱 거대합니다。 즉 一九四九년도에는 一천五백만톤이던 것이 一九五〇년도에는 一천八백五十만톤 즉 작년도에 비하여 三백五十만톤을 더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숫자를 실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상에 지적된 결함들을 하루 속히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업 교통 부문의 우수한 기업소와 우수한 직장과 부리가다와 로동자들을 물질적으로 포창하는 데 필

요한 자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내각 결정 제一八二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직맹 단체들과 직장 책임자들은 힘을 합하여 교통 운수 사업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방법으로 되는 표창 사업의 자금을 옳게 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이 인민에게 장악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경제 기관과 직맹 단체 일꾼들은 공화국을 공고 부강케 하며 전 인민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교통 운수 부문 일꾼들은 자기 맡은 과업을 보다 높은 성과로써 실천하며, 산업 부문의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박한 과업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사업 환경에 비추어 이미 쟁취한 제조건들에 기초하여 렬차 운전 다이야를 개정하고, 일체 운수 사업을 이 다이야에 의하여 개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다이야는 국가 수송 계획의 격증에 알맞는 렬차들의 정발과 려객 화물 렬차 운전 비률을 적절히 하며, 보수 개선된 선로 상태에 따라 기술 속도를 높일 것이며, 기술의 향상, 시설의 개선에 의하여 영업 속도를 높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수한 선진 기관사들이 달성한 성과들을 본받아 견인 정수를 증가하고 기관차 주행 거리를 높이며 전선에 걸쳐 직통 화물 렬차와 집결 렬차를 정발하는 등 발전된 형태로써 다이야를 편성하여 시급한 시일 내에 실시할 것입니다. 전체 운수 일꾼들은 이 새 다이야를 엄격히 준수하기 위한 투쟁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워야 하겠습니다.

철도에서 다이야는 운수 사업의 계획인 동시에 실천의 무기입니다. 매일 매일 일간 수송 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직까지 우리 일부 철도 일꾼들이 규률을 잘 지키지 않으며, 철도 규정 대로 일하지 않는 옳지 못한 현상들과 투쟁하며, 우리 철도에 군대와 같은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우리 전체 철도 일꾼들로 하여금 상부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며, 철도의 결정과 규정 대로 자기 맡은 임무를 성실히 완수할 줄 아는 우수한 철도 종업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규률의 강화는 교통 사고를 없이하고 운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담보입니다.



셋째로, 화차 회귀 일수를 더욱 단축하여야 하겠습니다. 화물을 싣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실은 화차를 목적지까지 사고없이 속히 보내는 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각역에서 짐을 싣고 부리우는 작업의 규정 시간을 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용선 내의 상하차 시간을 적극 단축시킬 것이며, 도착된 화물을 빨리 부리우는 문제와 아울러 배차된 공차로 하여금 규정 시간 내에 짐을 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일 초과 정류시키었을 때에는 소정된 류치료를 징수함은 물론이어니와 이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려객 렬차를 더욱 증가하여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기할 것이며, 차내를 명랑하게 할 것이며, 승무원들은 차내를 깨끗이하며, 차를 관리하는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민들에게 항상 리용되고 있는 각역 대합실을 미화 장치하고, 일상적으로 청결케 하며, 교통 질서를 단속하고, 복잡성을 제거하여, 전체 인민들의 려행에 편리를 도모하며, 부자유를 느끼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일부 일꾼들 중에 남아 있는 일제 사상의 잔재인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과 국가의 주인이 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용살이꾼과 같은 책임성 없는 사상 의식들과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체 철도 종업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국가와 인민에게 복무하는 가장 신성한 임무임을 인식하고 관료주의, 형식주의, 무책임성 등 온갖 부정한 현상들을 퇴치하며, 또는 자기 과업을 실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뼈아프게 느끼지 않는 현상들과 투쟁하며, 어떠한 난관과 장애에 부닥치더라도 자기가 맡은 과업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훨씬 성과있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 쏘련이 고상한 기술로써 우리들을 방조하여 주며,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차량기계들을 우리에게 원조하여 주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수十대의 기관차까지 수입될 것입니다. (박 수)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의 성공적 발전은 교통 운수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전체 교통 일꾼들은 국가와 인민으로부터 맡겨진 자기들의 신성한 책임으로 되는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보다 높은 성과를 쟁취하여야 할 것입

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와 그의 주구 리승만 역도들은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악하고 있으며, 남반부의 민족 경제를 파괴하고 우리 조국 남반부를 월가의 상품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업자는 수백만을 초과하며, 남반부 인민들은 빈궁과 기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나라의 전도와 장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경제 토대를 튼튼히 구축함으로써 만이 북반부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남반부 인민들을 급속히 구원하고 파괴된 민족 경제를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임무들을 다할 것을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약속하면서 여러분들과 전체 교통 일꾼들이 더일층 노력하여 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만장 총기립 우뢰와 같은 박수 오래 계속)

---



# 쏘베트 군대의 백전 백승의 위력

## —쏘베트 군대 창건 三十二주년에 제하여—

림 해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 인류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해방자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의 초병인 위대한 쏘베트 군대 창건 三十二주년을 무한한 기쁨 속에 맞이한다。

조선 인민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예속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도록 온갖 원조를 다한 쏘베트 군대의 빛나는 공훈은 조선 인민의 감격된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레닌 쏘딸린에 의하여 창건된 쏘베트 군대는 창전의 첫날부터 영예로운 전투의 길을 걸어 왔으며 적들과의 수많은 전투 속에서 그의 강력한 전투 력량을 시위하였다。

새로운 쏘베트 사회 제도의 기초 위에서 탄생되었으며 볼쉐위끼 당에 의하여 교양된 쏘베트 무력은 十월 혁명의 위대한 전과를 수호하였으며 쏘련의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였으며 야만적인 파시스트 략탈자들을 격파하여 구라파 및 아세아 인민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쏘련 인민과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인민 및 세계 진보적 인류는 이 영웅적 쏘베트 국가의 군대에게 열렬한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쏘베트 무력은 국내 반혁명의 침공과 제국주의의 간섭의 곤난한 시기에 사회주의의 전과를 수호하기 위하여 창건되었다。

一九一八——一九二〇년에 볼쉐위끼 당과 쏘련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레닌 쏘딸린은 청소한 쏘베트 국가를 내외의 적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였다。 전투의 포화 속에서 정규적 쏘베트 군대가 창건되었고 쏘베트 군사 간부들이 양성되었고 쏘베트 군사 과학의 원칙적 기초가 구축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쏘딸린은 지도적 역할을 놀았다。

짜리쩐 방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쏘딸린

은 일련의 새로운 명제를 방어에 관한 문제에 도입하였다.

쓰딸린은 쏘베트 군대 조직에 관한 기본적 명제, 쏘베트 군대 조직에 관한 기본 리론, 군사력 관리에 관한 기본적 명제를 정식화하였다. 이 때 쓰딸린은 처음으로 행동하는 군대의 후방 조직 문제와 이 군대의 국가의 경제와의 련결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一九一九년 뻬쩨르그라드 근방과 남부 전선에 있어서의 정세 분석, 一九二〇년 서부 전선에 있어서의 정세 분석, 쓰딸린에 의하여 작성된 구체적 합목적적인 작전 계획들은 쏘베트 군대의 작전의 성공을 규정하는 모든 요인을 남김없이 타산하는 고전적 모범으로 되었으며 전략 발전에 새로운 길을 지시하여 주었다.

쓰딸린은 군사에 관한 낡은 리론과 실천에 관한 진부한 원칙들을 타파하고 맑쓰-레닌주의에 립각하여 새로운 쏘베트 군사 과학을 창조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쓰딸린「전집 제四권에 수록된「공화국의 후비 병력 편성에 대하여」라는 볼쉐위끼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출한 전의문에는 현대 전략의 구성 부분인 전략적 예비에 관한 명제들이 명백히 정식화되었다. 이리하여 공민 전쟁 당시에 전투의 포화 속에서 쓰딸린에 의하여 쏘베트 군사 과학이 창조되었다.

쏘베트 군대는 제국주의 국가의 군대와 국내 반혁명을 반대하는 공민 전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성장하였다. 인류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쏘베트 군대는 이들 제국주의 간섭군과 백위병들의 대군사적 진공을 격파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리하여 쏘베트 군대는 어떠한 제국주의자들의 침공으로부터도 사회주의 국가를 능히 수호할 수 있는 전투력을 시위하였다.

공민 전쟁에서 쏘베트 군대의 승리는 쏘베트 국가로 하여금 평화적 건설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또 전쟁에서 파괴된 인민 경제를 부흥시키며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자신있게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쏘베트 군대는 쏘베트 국가의 명예와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보장해 주었다.

쏘베트 인민은 공민 전쟁을 승리적으로 완료한 후 평화 건설에로 넘어갔다. 볼쉐위끼 당의 지도 밑에 쏘베트 인민은 전후 시기의 온갖 곤난을 과감히 극복하고 파괴된 인민 경제를 단기간 내에 부흥시켰다. 레닌-쓰딸린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하면서 쏘베트 인민은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였다.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의 기간에 사회



가 건설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빈궁과 실업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소멸되었으며 쏘베트 국가는 락후한 나라로부터 강력한 공업-꼴호즈 국가로 전환되었다. 이 사회주의의 승리의 기초위에서 쏘베트 사회-도덕적 통일과 쏘베트 제인민의 친선, 쏘베트 애국주의의 원동력이 발전되었다. 모든 사회주의의 위대한 전과들은 쓰딸린 헌법에 법적으로 공고화되었다.

레닌-쓰딸린당은 거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을 실현하면서 쏘베트 국가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문제를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았다. 쓰딸린은 평화 건설의 기간에 쏘베트 군사 과학을 계속 발전시켰다. 그의 로작「로씨야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및 전술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개개의 병종(兵種)의 역할과 군대 간부들에 관한 그의 말들, 무력 건설의 실제 문제 해결에 관한 그의 지시, 쏘베트 무력의 군사 기술의 기초에 관한 그의 원칙적 지시들은 쏘베트 군사 과학에 대한 고귀한 기여로 되었다.

쏘베트 인민은 자기 나라의 국방력과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수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가장 우수한 아들들을 군대 대렬에 보냈으며 쏘베트 국가는 깊은 배려와 자애로써 무력 강화에 온갖 필요한 것을 자기 군대에게 공급하였다.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들의 기간에 쏘베트 무력은 선진적 군사 기술로 튼튼히 무장된 군사력과 현대식으로 조직되고 훈련된 많은 간부들을 보장받았으며 선진적 쓰딸린 군사 과학으로 무장된 전투력으로 장성되었다.

파시스트 히틀러 략탈자들의 배신적 침공을 받대하는 조국 전쟁은 쏘베트 인민과 쏘베트 군사 과학에 있어서 중대한 시련이었다. 거의 구라파 전부를 점령하여 그 나라들을 자기의 군사 기지로 전환시킨 히틀러 도배는 철저히 무장한 대군단으로 쏘베트 국경을 침입하였다. 이러한 공전의 위기에 직면하여 볼쉐위끼 당에 의하여 조직되고 고무된 쏘베트 인민은 위대한 조국 전쟁에 궐기하여 유일 전투 진영에로 결합되었다.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의 수호에 일어났으며 쏘베트 전체 생활은 전선에 복무하게 되었다. 위대한 쓰딸린은 쏘베트 인민의 반팟쇼 투쟁을 지도하였으며 쏘베트 군대의 모든 작전을 지도하였다.

독일 군대가 모쓰크바 근방에 침공하였을 때 쓰딸린은 쏘베트 군대 장병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전세계는 여러분을 독일 략탈자들의 강도 무리를 능히 격파할 수 있는 힘으로 간주한다. 독일

강점자들의 압박 하에 신음하는 노예화된 구라파의 수많은 인민들이 여러분을 자기들의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다. 위대한 해방적 사명은 여러분들에 부담되었다. 이 사명을 철저히 실행하라!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전쟁은 해방 전쟁이며 정의의 전쟁이다」

쓰딸린의 현명한 호소와 고상한 전쟁 목적을 교시한 지시를 받들고 쏘베트 군대는 모쓰크바 근방에서 력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독일 군대는 처음으로 대타격을 당하여 그들의 소위 「불패성」은 여지없이 분쇄되었다. 쏘베트 무력은 一九四二—一九四三년 겨울에 쓰딸린그라드 전투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하였다. 쏘베트 무력은 밀려들어 온 적의 주요 집단을 포위 격파하였으며 이리함으로써 모쓰크바를 점령하려던 히틀러의 계획을 전복시켰다. 쓰딸린그라드에 있어서의 독군의 붕괴는 팟쇼 군대의 조락(凋落)을 고하는 것이었다. 쓰딸린그라드 전투는 전쟁사에서 가장 탁월한 승리로 끝났다. 이는 쓰딸린적 전략 전술의 승리였으며 위대한 사령관 쓰딸린의 작전 계획의 승리였다. 이 탁월한 작전은 쓰딸린의 사령관적 천재의 위대성을 명시하는 고전적 모범으로서 군사학 력사에 기록되었으며 위대한 전투 력사에 빛나는 승리로써 기록되었다.

一九四三년 七—八월에 시작된 크르쓰크 전투는 최대 규모의 전투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쏘베트 륙군 공군은 적의 주요 집단을 격파하였으며 전투는 독일 군대의 궤멸로 끝났다. 쓰딸린은 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만일 쓰딸린그라드의 전투가 독일 팟쇼 군대의 조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면 크르쓰크의 전투는 독일 팟쇼 군대를 파국에 직면시켰다.」 쓰딸린그라드에서 상실한 전략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쓰딸린그라드의 「복수」를 하려던 독일군의 최후의 기도는 수치스럽게 파탄되었다.

쓰딸린의 천재적 계획을 실천하면서 一九四四년에 쏘련 무력은 十차의 강력한 타격을 련속적으로 독일군에게 가하였으며 그 결과에 쏘련의 령토는 완전히 팟쇼 침략자들로부터 해방되었다. 국경을 넘은 쏘베트 군대는 히틀러 략탈자에게 노예화되었던 구라파 제인민에게 형제적 원조의 손을 내 밀었다.

구라파 제인민을 독일 팟쇼의 기반에서 해방시키는데 있어서 쏘련이 어떤 략탈적 계획을 가지고 있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는 쓰딸린이 지적한 바와 같은 고상하고도 고귀한 목적에 의하여 지도되었던 것이다. 쓰딸린은 말씀하기를 팟쇼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조국 전쟁의 목적은 「우리 나라에 내려 덮인 위험을 제거하는 데만 있는 것



아니라 독일 팟쇼의 기반 하에서 신음하는 구라파의 모든 인민들에게 방조를 주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완강한 전투를 통하여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도시와 농촌이 속속 히틀러 강점자로부터 해방되었다. 쏘베트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불가리야, 유고슬라비야 및 기타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해방군을 환영하는 인민들의 경축 행사가 련일 거행되었다.

一九四五년 초에 쏘베트 군대의 새로운 강력한 진격이 개시되었다. 그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 미증유의 전략적 공격을 실시하여 히틀러를 완전히 격멸하였고 야수를 그 소굴에서 무찔렀다.

독일을 격파한 후 쏘베트 군대는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으로 그 무기를 돌렸다. 쏘베트 군대는 단시일 내에 일본의 주요 공격력인 관동군을 격파하여 일본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쏘베트 군대의 결정적인 승리로 우리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三十六년 간의 치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해방된 조선 인민은 감격적인 환희와 경의로써 쏘베트 군대를 맞이하였으며 자기의 해방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표하였다.

이리하여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자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 전쟁은 쏘베트 무력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쏘베트 군대의 세계사적 승리로 말미암아 쏘련의 국제적 지위는 훨씬 공고히 되었으며 그의 군사적 위신은 무한히 제고되었다. 쏘베트 무력은 전쟁을 통해서 일층 단련되었으며 강화되었다. 전쟁은 쏘베트 무력만이 참으로 二차 대전의 모든 곤난한 시련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파시스트 히틀러의 궤멸은 동시에 독일 군사 과학에 대한 쓰딸린적 군사 과학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쓰딸린은 쏘베트 군사력의 성격을 특징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붉은 군대가 어제 아직도 구라파 제국의 군대에게 공포를 주고 있던 독일 군대를 완전히 격파한 바로 그 군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붉은 군대의 「비평가」들이 더욱 더욱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신문들에는 더욱 더욱 빈번히 붉은 군대의 높은 소질, 그의 병사들 및 지휘관들의 숙련, 그의 전략 및 전술의 흠할 데 없음을 말하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가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붉은 군대가 모쓰크바와 쓰딸린그라드에서, 크르쓰크와 벨고로드, 끼예브와 끼로브그라드, 민쓰크와 보부루이쓰크, 레닌그라드와 딸린, 야씨와

리보브, 비스타 강안과 네만 강안에서, 다뉴브 강안과 오델 강안에서, 윈과 백림 근방에서 붉은 군대의 혁혁한 승리가 있은 후에는, 모든 이런 것이 있은 후에는 붉은 군대가 제一급의 군대이며 붉은 군대에서 배울 수가 있다 함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쏘베트 인민은 그의 위대한 령도자 쓰딸린의 지도하에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대승리를 거두었다. 쓰딸린의 큰 공로는 그가 조국 전쟁에서 전쟁의 모든 중하를 자기 쌍견에 걸머진 새로운 군사지도 인재들을 선택하고, 교양하고 중요한 군사직무에 그들을 등용한 것이다. 쏘베트군대의 장교 장관들의 류례없는 용감성, 쓰딸린적 전략에 기초한 작전의 민활성은 이 대승리의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된다.

쏘베트 인민은 자기 군대의 혁혁한 무훈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쏘베트 인민은 승리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자기의 무력을 자랑한다. 인민민주주의 제국 인민들은 자기 나라 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쏘베트 군대가 수행한 위대한 해방자적 사명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전체 진보적 인류는 깊은 사랑과 존경의 념으로 쏘베트 무력을 대하고 있으며 그들은 쏘베트 무력을 평화와 자유의 믿음성있는 성채로 보고 있다.

위대한 조국 진쟁에서 쏘베트 인민이 거둔 력사적 승리는 영광스러운 불쉐위끼 당과 위대한 지도자 쓰딸린 대원수에 의하여 달성된 것이다. 쏘베트 인민은 곤난한 전쟁 시기에 쏘련과 그의 무력을 위대한 승리에로 인도한 쓰딸린 대원수에 대하여 무한한 충성과 감사의 념을 가지고 있다.

레닌—쓰딸린 당의 지도 밑에 쏘련에서는 승리의 기본적 원천인 쏘베트 사회 및 국가 제도가 창전되었으며 이 쏘베트 사회 국가 제도는 쏘베트 무력 발전의 기초로 되어 있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위력성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견실하고 민주주의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라는 데 있다. 조국 전쟁에서의 쏘베트 군대의 승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무한한 우월성을 가진 쏘베트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 쏘베트 사회의 사상—정치적 통일, 쏘베트 제인민의 친선, 쏘베트 애국주의는 쏘베트 무력에 강대한 위력을 부여하였다.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와는 반대로 쏘베트 군대는 인민의 리익에 봉사하며 일반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한다. 쓰딸린은 쏘베트 군대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 군대의 특성은 착취 계급들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쏘베트 인민의 군대이며 근로 대중 자신이 이 군대를 창설하였다는 점에 있다. 쏘베트 군대는 착취 계급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근로 인민 자체가 구성한 군대이다. 그 구성 부분으로 보아 다민족적인 쏘베트 군대는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되였으며 인종적 민족적 반목과 타민족에 대한 멸시는 쏘베트 군대에게는 전혀 무연(無緣)한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위력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쏘베트 후방이 강력함도 또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쏘베트 후방은 자기의 무진장한 력량을 보여 주었다. 전시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강력한 쏘베트 군사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후방은 더욱 더욱 많은 무기와 군수품을 전선에 공급하였다. 쏘베트 후방이 강력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례컨대 一차 세계대전 당시 짜리 군대가 五천五백六十만의 포탄과 모든 구경(口徑)의 지뢰(地雷)를 받았다고 한다면 쏘베트 군대는 二차 대전 시기에 사회주의 공업으로부터 七억七천五백六十만의 포탄과 지뢰를 받았다. 一九四五년 四월 백림 결전에 있어서 쏘베트 군대는 四만一천의 대포 및 박격포, 八천四백대의 비행기, 六천三백 이상의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쏘베트 군인들은 쏘베트 사람의 헌신적인 근로, 그들의 공훈, 전선에 대한 방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쏘련의 국력과 쏘베트 군대의 위력의 큰 원천으로 되는 것은 쏘련 제민족간의 친선이다. 조국 전쟁은 쏘베트 국가 사회 및 국가 제도의 준엄한 시련인 동시에 또한 다민족 국가인 쏘련 제민족 친선와 힘과 견고성에 대한 시련이기도 하다. 쏘련은 이 시련도 또한 영예롭게 극복하였다. 인종 및 민족 증오의 히틀러 략탈자를 반대하는 조국 전쟁에 로씨야 민족을 선두로 하는 쏘련의 다민족 쏘베트 국가의 모든 민족은 조국 옹호에 궐기하였다. 쏘련의 크고 적은 모든 민족은 전인민적 리익에 대한 미증유의 높은 자각을 발휘하였다. 그들은 자가의 민족적 자유와 독립을 옹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쏘련 전체의 명예와 독립을, 근로 대중의 위대한 전과를 옹호하였다. 조국 전쟁은 쏘베트 민족 친선의 강대한 힘을 명백히 증명하였다. 전쟁 행정에 있어서 이 힘은 더욱 더욱 견고해졌으며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쓰딸린은 지적하기를 「우리 나라의 민족 친선은 전쟁의 모든 곤난과 시련을 극복하였으며 파시스트 략탈자 도배에 대한 공동 투쟁 가운데서 가일층

단련되었다」라고 하였다。

쓰베트 무력의 력사적 승리는 쓰딸린 대원수가 창시한 선진적 쓰베트 군사 과학의 기초 위에서 달성된 것이다。새 형태로의 쓰베트 군대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낡은 부르죠아 군대의 병학(兵學)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쓰베트 군사 과학을 창조하였는데 이 창조자는 바로 쓰딸린이다。이 군사 과학은 이미 공민 전쟁 당시에 그 기초가 구축되었으며 평화 건설시에 발전되었으며 특히 조국 선쟁 당시에 일층 발전되었다。쓰딸린적 군사 과학은 새로운 것이며 사회수의 국가의 군사 과학이며 이는 리론적 사상적 발전의 최고 계단의 것이다。쓰딸린적 군사 과학의 힘은 그것이 그 기초와 본질에 있어서 진보적인 데 있다。이것이 진보적인 리유는 그것이 진보적인 사회 제도와 선진적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르죠아 군사 사상은 그것을 소유한 사령관들이 확실히 전쟁이 승리할 가능성을 줄만한 그러한 전쟁 수행 리론을 만들려고 수차 기도하였다。그러나 이러한 리론들은 대개는 현대의 조건 밑에서 과거의 병학의「고전적 전형」들을 재생시키려는 노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부르죠아 군사 리론의 위과학적(僞科學的)이며 형이상학적인 리론은 불가피적으로 그들을 파탄으로 이끌지 않을 수 없었다。독일 군사 리론이 파탄된 제一차 세계 대전에서 그러하였고 독일 및 기타 부르죠아 군사 리론가들의 현대화된 리론이 완전히 실패한 二차 대전에서 특히 명백해졌다。오직 현대전의 제 조건에 완전히 적응하는 쓰딸린적 군사 과학만이 승리하였다。

쓰딸린적 군사 과학은 국가의 경제적 도덕적 가능성의 문제들과 또 군사 과학의 문제들 즉 전략 전술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며 이 문제들을 군사 과학의 다른 문제들과 호상 련관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군사 과학의 모든 요인들을 조화적(調和的)으로 결합하고 있다는 이것이 쓰딸린적 군사 과학을 자본주의 국가의 군사 과학과 구별시키는 것이다。방위와 공격의 법칙을 훌륭히 리해하는 쓰딸린은 반공에 관한 문제를 새로이 연구하였다。쓰딸린은 방어로부터 공격으로의 이행이 적의 공격을 소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적 자체를 소탕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쓰딸린적 군사 과학의 힘은 군사 행동의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면서, 군사 행동 및 전쟁 전체의 새로운 방법을 창조하면서 그것이 실제적 경제적 



가능성에 의거해 있고 또 도덕적—정치적 요인들을 제 방면으로 타산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위대한 조국 전쟁에서의 쓰베트 군대의 작전의 미증유한 규모와 특별한 합목적성(合目的性)을 가지게 되였다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쓰딸린적 군사 과학의 힘은 또 부르죠아 군사 과학에 있어서와 같은 그런 전통적인 관념과 공식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자본주의 국가의 현대 군사 리론가들은 원자탄과 로케트 기술의 응용에 의한 소위「전격전」의 새 리론이라는 명색 밑에서 파탄되어 버린 과거의 군사 리론을 재생시키려고 기도하고 있다。이러한 리론들은 자본주의의 체제와 그의 군사 체제 및 군사 리론이 위기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자기들의 반과학적 견해를 원자탄과 로케트 기술의 힘을 빌어 기초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가련한 부르죠아 군사 리론가들은 더욱 더욱 전쟁 방화자들에게 복무하고 있다。

오늘 쏘련은 항구한 평화와 안전의 초소에서서 자기의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해방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달성하는 성과들을 기쁨으로써 주시하고 이를 원조하고 있으며 세계를 또 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 넣으려는 미 영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을 분격의 감으로 주시하고 그의 사도를 폭로 분쇄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세계 제패를 망상하고 있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군사 예산을 팽창시키고 군대를 증대시키고 군사 기지를 구축하면서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를 반대하는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그러나 그들의 전쟁 방화의 정책은 파탄될 운명에 있다。그것은 쏘련을 선두로 하는 민주주의 력량과 전쟁을 반대하는 인민 대중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 력량은 최근 수년간에 현저히 장성되었으며 또 날로 장성되어 가고 있다。세계 평화와 안전의 기수인 쏘련은 확고하게 자기의 력사적 진로로 나가고 있다。아무도 쏘련의 위대한 전진을 제지할 수 없으며 막아낼 수 없는 것이다。그것은 一九一八——一九二〇년의 국제 제국주의의 실패가 말하여 주며 一九四五년 히틀러 독일의 파멸이 말하여 준다。

볼쉐위끼 당과 쓰딸린의 지도 밑에 쏘베트 무력은 부단히 강화되고 있으며 지휘 간부들은 지난 전쟁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응용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현대 군사 과학과 현대 군사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오늘날 쏘베트 무력은 어떠한 적의 물의의 침공이라도 능히 소탕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전투력과 최신식 장비로 무장되어 있다。쏘베트 무력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자기 인

민의 신뢰에 언제나 보답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 영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새 전쟁 도발 음모에 광분하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쏘베트 무력이 자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의 초소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은 평화와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전체 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더욱 굳게 해주며 쏘베트 군대에 대하여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높이는 것이다。

볼쉐위끼 당과 쓰딸린에 의하여 지도되는 쏘베트군대는 우리 민족 해방에 혈연적 관계를 가진 군대이다。 그들이 흘린 고귀한 피에 의하여 조선이 일제의 독아에서 해방되었다。

위대한 쏘련은 조선을 일제의 기반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인민에게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진정한 원조를 주었다。 공화국 북반부에 진주하였던 쏘베트 군대는 우리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방면에서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의 주인으로 되게 할 온갖 가능성과 조건들을 지어 주었으며 일제가 소유하였던 일체 산업 운수 체신 금융 기관들을 조선 인민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조선 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건설을 백방으로 원조하였다。

이러한 원조의 결과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력사적인 민주 개혁들이 실시되었으며 이 기초 위에서 인민 경제 계획이 성공리에 달성되었으며 또 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조선의 통일적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튼튼한 기지로 되고 있으며 전체 인민들은 이 민주 기지에 의거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에 무한한 자신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조선 인민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미제의 사수하에 있는 리승만 역도들을 타도 분쇄하는 정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쏘베트 군대 三十二주년을 기념한다。 이날을 맞이하여 조선 인민은 우리 민족의 해방자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의 수호자인 쏘베트 군대의 불멸의 공훈을 높이 찬양하며, 그의 백전 백승의 위력에 고무되면서, 평화와 민주와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 거족적 투쟁에서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남반부의 현정세와 남반부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과업

김 삼 룡

一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 역도들의 유린 차에 있는 남반부의 정치 및 경제 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 완성을 위한 애국적 인민들에 대한 야수적 파씨스트적 테로 학살은 더욱 더욱 혹심하여 가고 전면적인 경제적 파멸과 예속화는 더욱 더욱 심각하여 가고 있다。 따라 인민들은 기아, 빈궁 파산 암흑의 형언할 수 없는 「도탄 생활과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침몰되고 있다。

조국의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우수한 것과, 민주주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을 무조건하고 미제국주의자의 팽창 아욕과, 더러운 사리 사욕을 위하여 말살 유린하고 있는 리승만 역도들은 인민으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 제 앞에 시시각각으로 가까와 오는 무서운 무덤에 전률하고 있는 리승만은 자기의 잔명의 보호를 오직 외국 침략자에게 더욱 파렴치하게 더욱 열광적으로 의뢰하고 있다。 놈들은 미 제국주의자의 아주 비굴하고 구역질나는 종으로 되고 있는 것은 재언할 필요도 없거니와 요사이에는 우리 민족의 불공 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에게 까지 더러운 매음녀적 교태를 부리면서 완전 아부하는 추악한 음모를 로골화, 적극화하는데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 방해하고 「온갖 매국적 대죄악을 감행하는 원쑤들에게 대한 인민들의 증오와 분노와 원한과 적개심은 참으로 거대하게 격화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의 야만적 식민지화 음모를 분쇄하고 그 주구들을 타도하려는 인민들은 더욱 많이 더욱 용감하게 빨찌산으로 달리어 가고 있다。 영용한 빨찌산 투쟁의 장성 강화와 전인민들의 반항과 반대가 더욱 치렬화하여질

여의한 원수들의 붕괴가 날로 촉진됨에 따라 놈들의 내부 모순도 더욱 격심하여 가고 있다。날로 창백하여지는 리승만 역도들의 최후 멸망과 그 상전들의 식민지화 음모가 완전 종결되는 운명은 여하한 파시스트적 발악과 발광으로도 결코 모면할 수 없으며 빛나는 공화국 기치 밑에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승리적 인민들의 투쟁을 여하한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

× × ×

리승만 역도들은 미 제국주의자의 지시 밑에서 八·一五 해방 이래 작년말까지 十五만명의 남반부의 애국적 동포들을 학살하고 반동적 파씨스트 질서를 유지하기에 열광하면서 인민들로부터 민주주의적 자유의 최후 일점까지 박탈하였다。

남반부에서 애국적 인민들과 영웅적 빨찌산을 학살、도살하기 위하여 역도들은 작년 하반기에만 七천만 딸라의 흉기를 자기 상전으로부터 공급받았었다。그러나 인민들의 피를 더욱 대량적으로 흘리게 하며 인민들의 백골 위에서만 저들의 잔명을 일시라도 더 부지할 수 있다고 망상하는 역도들은 가면 갈수록 미 제국주의자의 흉기가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다。여게서 금년 一월 二十六일 또다시 一천一백만 딸라의 흉기를 받을 것과 앞으로 계속하여 더 받을 것을 진제하고 미 제국주의자와 두개의 소위「군사 협정」을 체결하였다。이것은「한미 상호 방위 협정」과「군사 고문단에 대한 한미 협정」의 명칭으로서 체결되었었다。이 두개의「협정」에 의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제 창고 속에서 썩어지납는 무기들을 고가로서 팔아 먹는 동시에 리승만 역도들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간「국방군」、「해군」 및「경찰」 전체를 자기들의 침략 목적에 사용하는 완전한 고용병으로 만들어 버렸다。즉 역도들은 무「협약」으로써 인민들로부터 강탈한 막대한 금액을 미 제국주의자에게 무기 댓가로 지불하고 또 十여만의 무장 도배들을 인민으로부터 수탈한 재산으로써 유지하면서 이 무장 도배들을 미 제국주의자의 고용병으로 바쳐 인민 학살의 갖은 만행에 구사하게 된 것이다。역도들의 흉악한 매국 행위에 의거하여 남반부는 미 제국주의자의「합법적」인 군사적 기지가 된 것이다。그러면 이 두「협정」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소위「한미 상호 방위 협정」에는

첫째、미국이 주는 모든 군용품은 미국인이 요구하는 목적에 쓸 것과 미국의 승인없이는 타목적에 사용、우는 양도하지 못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즉 미 제국주의자는 군용품을 줌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역도들의 무장 도배의 일체 행동에 대한 조직、지휘、감독을 잡아 쥐게 된 것이다。



둘째、미국이 제공하는 군용품、기술、정보의 기밀을 방비하기 위하여 량국 정부의 안전 보장 방도를 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즉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반부에서 마음대로 군사 정탐 기관과 군사 시설들을 무제한으로 설비하게 된 것이다。

셋째、미국인은 제공된 군용품의 리용 상태를 자유로 또는 충분히 시찰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즉 미 제국주의자들은 역도들의 무장 도배와 군사 시설과 기타 군사상 필요한 조사、검열의、전권리를 장악하는 것이다。

넷째、미국인은 이「협정」에 의하여 다른 필요한「협정」이 없더라도 남반부로부터 자기들에게 필요한 원료 및 반제품을 마음대로 가져가기로 규정되어 있다。

실로 이 흉악한「협정」에 의하여 리승만 역도들은 남반부의 귀중한 청년들을 미 제국주의자의 침략적 야욕을 위한 모든 범죄 행위에 가련한 노예 군대로 만들었으며 남반부의 전 땅덩어리를 미 제국주의자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군사 기지로 만든 것이다。一九四八년 十二월 十일 소위「한미 경제 협정」으로써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반부 경제의 완전한 주인이 된 것같이 이번의「협정」에 의하여 미국인은 완전히 남반부의 군사적 주인이 된 것이다。

소위「군사 고문단에 대한 한미 협정」은 상기「협정」의 보조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미 제국주의자는 상기「협정」에서 걷어련 모든 군사상 권리에 대하여 소위 군사 고문단이 그 실행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즉「국방군」「해군」「경찰」의 조직、훈련 및 통활의 전권을 미국인이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미 제국주의자가 남반부에서 이상과 같은 군사적 지배를 이 두「협정」에서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늘 뒤에서 행동한 세음이었으나 이제부터는 이 망국「협정」을 구실로 하여 아주 공개적으로 떠젓이 나서서 더욱 대대적으로 남반부 인민들과 빨찌산들을 도살하고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시설하게 되는 것이다。二월 十七일 경성 발「한국 통신」에 의하면「군사 고문단」장 로트가 빨찌산「토벌」지구에 직접 출동한 것을 보도하고 이것은 가일층「토벌」을 강화할 것이라는 [illegible]것을 첨부하였다。이 사실 한가지만 가지고도 남반부 인민들과 빨찌산에 대한 학살 계획과 그것을 실천하는 데 대한 조직、지휘、통활이 전부 미 제국주의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 이제부터는 더욱 로골화、적극화하며、그럼으로써 더욱 잔인하여지며、악독하여질 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이 외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수원、광주、군산、대구、제주도에 군사 비행장을 완성하였다고 소위 「공군 참모장」 김정렬은 발표하였으며 금포 비행장의 사용 독점권은 이미 그 자들이 장악하였다。또 이•씨•에이 책임자 번즈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도 하반기에만 三十五만 딸라、즉 리승만 화폐로서 三억五천만원을 들이어 항공 기지를 시설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 二억八천만원、즉、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六억三천만원을 항공 기지 신설에 투입할 것이 예정되[illegible] 있다고 한다。(一월 十三일 「련합 신문」 참조) 또 한편 소위 「국회」에서는 一월 二十六일 소위 「해군기지법」을 통과하고 약 三억원을 투입하여 목포 삼학도 (木浦三鶴島)에 새로운 축항 계획을 발표하였다。이상의 사실에서 남반부가 어떻게 미 제국주의자의 완전한 군사 기지로 되어가고 있는 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이 남반부 인민들과 빨찌산들을 학살하고 조선 인민을 동족 상잔으로 내란 속에 몰아넣으며 남반부를 미국인의 동방 침략의 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은 미 제국주의자의 긴밀한 지도 밑에서 만고 역적 리승만이 우리 민족의 불공대천의 원쑤 일본 반동 정권과 로골적인 야합을 감행하는 데서 더욱 그 흉악한 정체가 폭로되고 있는 것이다。리승만의 이 반역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는 실로 급전 직하적으로 로골화되며 적극화되고 있다。인간의 렴치도 량심도 그림자조차 없어진 역적 리승만의 이 반역 행위는 금년 一월 十一일 미국 무입소 특사 제섭과 맥아더 사령부 외교 국장 씨-볼드가 온 때 부터 아주 열광적으로 진전되기 시작하였다。리승만은 一월 十四일 기자단에게 「금번 동씨 (제섭을 말함임……필자)와 같이 온 맥아더 사령부 외교 국장 씨-볼드씨와도 일본 문제를 이야기하였는 데 우리의 주장은 한인과 일본인이 과거의 악감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대세를 살피어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一월 十五일 「련합신문」)라고 말하였다。이 추악한 발표가 있자마자 一월 二十四일 동경 발 유•피통신는 소위 주일대사 신흥우 (친일파의 거두)가 동경 기자단에게 「리승만 대통령의 목적하는 바는 과거를 망각하고……일본과 현재 및 장래를 위하여 협동하는 것이다。………한일 량국은 동일한 인종에 속하여 있는 동시에 지리적으로 접근하여 있을 뿐 아니라 자연 자원 교류에 상호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과거의 불만이 여하한 것일찌라도 상호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보도하였다。유•피통신은 맥아더가 이 계획을 극히 환영한다는 신흥우의 담화를 첨부하여 보도하였다。인민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리승만 역도들은 추악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 강도들이 반세기 동안 조선 인민들을 압박할 때 그 흉악한 「황민화」 정책의 최대의 기만적 구실로 목구멍이 터지도록 되풀이 하던 소위 「동조 동근론」에 까지 타락되고 있는 것이다。모든 흉악한 친일파들이 네활개를 쭉 펴고 인민들을 피의 바다 속에 잠그게한 도살장 속에서 제마음대로 날뛰게 하고 모든 경제적 리권들을 차지하여 인민들의 고혈을 계속하여 빨아 먹고 있게 한 자 그 누구이냐? 친일파의 괴수 리승만이가 아니고 그 누구이냐! 이제 리승만은 제 졸도를 거느리고 옛 상전을 찾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갖은 간악한 음모를 품고 시기가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있던 일본 반동들이 어찌 좋아 날뛰지 않겠는가? 과연 二월 六일 요시다는 중의원 회의에서 「리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하여 호의적 성명을 한 것은 퍽 기쁘다。일본과 한국과는 긴력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명하였다。사실상 리승만의 의도를 요시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이 두 반동 「거두」들의 야합은 「긴 력사적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이리하여 二월 十六일 리승만은 드디어 소위 외무부 장관 림병직과 작전 참모장 정일권을 데리고 옛 상전을 찾아 동경에 가게 되었으며 요시다와 군사 정치 통상 등 모든 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과연 리승만은 동경에서 요시다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불공 대천의 원쑤들과 일심 합력할 것을 승낙받고 돌아온 것을 뻔뻔스럽게 광고하고 있다。반역자 리승만과 일본 반동 분자들과의 사이의 더러운 야합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시 밑에서 아주 조선 인민들의 극도의 격분과 증오 속에서 이렇게 흉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 역도들은 이상과 같은 친일 행동을 철면피하게 행하면서 벌써 광범하고 심각한 「봉사」와 「충성」을 일본 「사무라이」들에게 바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다。우선 그 실례를 식량 문제에서 들면 다음과 같다。

리승만은 일본 군국주의 재생을 위하여 그 식량 공급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현하 남반부에서는 백미 소두 한말에 二천원이 넘어도 쌀이 없어 주민들이 기아에 빠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승만은 값비싼 쌀을 팔고 값 싼 잡곡을 사서 먹어야 된다느니、굶주린 외국인을 동정하여야 된다느니、쌀밥을 먹는 까닭으로 조선 사람은 채중이 많다느니、또 일본인이 돈을 많이 주니 팔아야 한다느니 등등의 별별 기만적 구실을 조작하여 몇번이고 성명을 발표하여 「사무라이」에게 견마의 충

성을 다하면서 二월부터 그 수출을 감행하고 있다。

그러면 리승만 역도들은 「사무라이」들에게 금년도에 얼마마한 쌀을 주기로 되어 있는가? 놈들은 七十만석이라고 루차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아주 허위인 것이다。 미국・포링・콤마쯔 위크디지는 금년도에 일본놈들이 四백三十만석을 요구하였다 하며, 또 동경발 二월 二十일 공동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남조선으로부터 백미 二十만톤, 즉 一백四十만석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 제一회 무역 예정 계획 중에는 쌀을 제외하고는 극 소량의 칼치비늘과 참깨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리승만이 七十만석을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 실은 수백만석에 달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이러한 거량의 쌀을 수출하는 것은 남반부 정세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역도들은 사실상 총검으로써 농민들의 식량은 고사하고 종자까지 빼앗아 가고 있는 천고 만행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一월 十八일 소위 국회의원 조한백 등 五十二명이 「량곡 매상에 있어 강권 발동을 즉시 중지할 것과 생산자에 한하여는 식량과 영농용 량곡을 인정할 것」을 련서 제의한 데서 아주 명백하게 폭로되었다。 또 리승만 역도들은 농민으로부터 식량 강탈의 목적을 위하여 一월 二十三일 소위 국회에서 「량곡 관리법」을 통과시키었는데 그 내용인즉 「량곡을 고의로 정부에 매도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것을 선동하는 자는 十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과 이러한 농민들의 소유 량곡은 전부 몰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고 악법이 일본 「사무라이」에게 「충성」을 로골적으로 다하게 되는 시기에 나온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며, 이 더러운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총검으로 농민을 위협 학살하여 그 종자까지 빼앗아가고 전인민들을 아사의 구렁텅이에 쓸어넣어도 아무러한 부끄럼도 모르는 것이 리승만 역도들의 면모인 것이다。 이 역도들의 지배하에 있는 남반부의 정세와 인민 생활이 어떠할 것이라는 · 것은 불문가지가 아닌가!

이 외에도 리승만 역도들이 「사무라이」에게 대한 「충성」스러운 「봉사」의 실례는 허다하다。 작년 가을 재일 조선인 련맹과 민청과 학교들을 강제 폐쇄하고 七천만원의 조선인 재산을 략탈하는 야만적 행위에 대하여 리승만 역도들이 요시다 정부를 공공연히 지지하고 나섰던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새롭거니와 리승만은 금년 一월 七일 요시다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재일 조선인 七十만명에



대하여 그들은 조선인이 아니고 일본인이라는 오만불손한 「법규」에 대하여서까지 얼버무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것은 「오전(誤傳)」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이번 동경서 돌아온 후에는 리승만은 아주 로골적으로 요시다의 이 불법적 만행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천하에 드러난 일인 까닭에 소위 외무장관 림병직도 그 후 이 비법적인 「법규」를 반대하는 조선인들이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고 있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하였다。

소위 대사관이니, 쌀값 교섭단이니, 구매 사절단이니 하여 매국 정권의 고관들이 금년만하여도 수없이 동경에 드나들고 있으며, 요사이에는 또 다시 친일파 박흥식을 위수로 하여 수十명의 소위 무역 시찰단을 보냈었다。 그리고 그 월말부터 부산과 대판, 신호간과 부산과 문사(門司)간에 정기항로(航路)의 신설이 결정되었으며 二월 一일부터 경성 동경간과 경성과 대판, 광도, 문사, 웅본, 소창, 하관, 복강 등지에 직통 전화를 개설하였다。 놈들의 야합을 위한 조치가 어찌 이뿐이겠는가? 빈번하게 열리는 소위 통상 회의, 어구(漁區) 협정, 일본에 조선은행 지점 설치, 리승만 기관지 련합신문의 특파원 파송 등등으로써 리승만 역도들은 아주 저들의 옛 상전의 품안에 갖은 아양을 다 부리며 안기고 있는 것이다。 벌써 동경에는 「한일 친선 협회」가 조직되고 동경내 신문들의 간부로서 「조선 연구회」까지 조직되어 있다。

만약 우리가 리승만 역도들의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대한 「충성」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놈들이 얼마나 일본 상품을 사들이고 있는가를 보면 더욱 놀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금년 一월 二월 두달만 하여도 一월에 면포 二〇〇만마와 二월에 六〇〇만마를 사들여 오고 있으며 (一월 二十一일 련합신문) 작년 一년간 민간 무역에서만 수출 三천만원에 비하여 수입은 十九억 一천만원에 달한다고 이・찌・에이는 발표하였다 (二월 六일 동아일보)。 즉 수출은 수입의 一%도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리고 일본 상품은 이 외에도 미국과 영국의 상표를 붙여서 향항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남반부 각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오히려 문제도 되지 않는다。 매국 정권이 직접 수입하는 무기를 비롯하여 석탄, 전기용품, 경공업 기계 부속품, 방사 등등을 넣으면 실로 남반부는 일본 군국주의자의 상품 판매 시장과 식량 공급 지대로 완전히 복귀되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 역도들의 천고에 용서할 수 없는 매국적 죄악에 의하여 남반부는 三十六년간 겪어온 수치스럽고 통분할 형편으로 각일각 들어가고 있

는 것이다。 요시다가 일본놈들과 리승만의 관계를 「긴 려사적 관계」에서 설명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리승만과 요시다의 이러한 로골적 야합을 급전 직하적으로 진전시키며 지도 선동하고 있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가장 악독한 앞잡이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며 리승만 역도들을 이 강도놈들의 휘하에 집어넣음으로써 평화적 통일과 민족적 독립과 민주 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과 영웅적 빨찌산들을 더욱 더욱 포악하게 도살하고 남반부에서 저들의 식민지적 통치를 더 연장하는 것과 우리 민족을 동족 상쟁의 내란 속에 기어히 몰아넣어 저들의 동방 침략 기지를 남반부에서 하루라도 더 유지하자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게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구 리승만은 또 다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위하여 견마의 「충성」을 다하게 되는 신세로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조선 인민의 천추의 원쑤 일본 강도놈들은 남반부 인민들의 도살자 리승만 역도의 비밀 무기고의 주인으로만 있게 되지 아니하고 미 제국주의자의 지도 하에서 리완용의 후손들과 긴밀하게 야합하여 남반부 인민들의 악독한 착취자로 도살자로 공공연히 등장하게 될 것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 있다。 남반부의 정치 정세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 주구들에 의하여 더욱 더욱 악화되며 애국적 인민들의 머리 위에 번득이는 파씨스트의 칼날은 날로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민과 빨찌산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역도들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 가는 리승만 매국노들의 소위 一九五〇년도 예산안에서도 명백하게 볼 수 있다。 놈들은 일반 예산에 대하여 九백七十四억원을 예산하고 있다。 이 중 국방비가 三백五十一억원에 달하며 내무비가 一백七十六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즉 「국방군」과 경찰의 비용이 전 지출액의 실로 五四%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작년도 놈들의 예산 총액 五백七十三억원에 비하여 거의 전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비는 작년도 一백三十四억원에 비하여 약 二·六배로 증가되어 있다。

그 반면 상공비, 농림비, 사회비, 보건비의 네개의 부문을 합하여도 겨우 六十억으로서 국방비 한가지의 一七%밖에 아니된다。 이러한 것이 원쑤놈들의 인민 도살을 위한 소위 예산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면 원쑤놈들은 비록 종이쪼각같이 된 지폐라 할찌라도 작년보다 거의 二배로 증가된 지출을 어떻게 보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가? 지금 리승만 역도들이 아주 극도의 재정적 파탄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은 허구와 날조의 상습자인 저들의 입으로도 감히 은폐하지 못하고 있거늘 무엇으로써 이 방대한 지출을 메꾸어 대려하고 있는가? 이것은 순수한 인민들로부터 더욱 혹심하고 악착한 수탈에서 소위 세입을 꾸미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놈들은 인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에서 방대한 수탈의 증강을 계획하고 있다。 즉 작년 각종 세금 총액 一백九억五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일약 二백六十六억六천만원으로 올릴 것을 예정하여 놓았다。 이것은 실로 二·五배로 인상된 것이다。

둘째, 놈들은 소위 국채라는 명목 하에서 一백억을 인민들로부터 강탈할 것을 소위 세입 예산 속에 포함시키었다。

셋째, 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인민의 재산——귀속 재산——을 강도질하여 팔아먹는 데서 二백十三억七천여만원의 수입을 예정하여 놓았다。

넷째, 농민들의 당당한 소유물인 전 일본인 소유 토지를 강제로 농민들에게 팔아먹는 데서 五十八억五천여만원을 세입 속에 계산하고 있다。

인민들을 더욱 혹심한 파산과 빈궁과 기아 속에 몰아넣는 야수적 략탈과 강도 방법에 의한 이 네가지 부분은 실로 五백二十九억三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즉 일반 세출 총액의 五八%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만고 역적 리승만은 인민들의 피와 땀을 그 최후 일적까지 략탈하여 그것으로써 사리사복을 채우고 또 그것으로써 인민들을 더욱 악독하게 고문 혜로 학살하며 또 그것으로써 재상전 미 제국주의자들의 팽창 야욕을 충족시키며 또 그것으로써 일본 「사무라이」들과의 「긴 려사적 관계」에 복귀하려하는 것이다。 이 역도를 타도 분쇄치 않고 어떻게 우리 인민들의 거족적 갈망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할 수 있으며 자주 독립을 완성할 수 있겠는가?

× × ×

이제 우리는 미 제국주의자의 소위 「원조」 밑에 있는 남반부 경제 사정을 보기로 하자! 미 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 역도들은 언필칭 요순격으로 입만 벌리면 남반부의 경제가 「발전」되었느니 「부흥」되었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다。 사태는 아주 정반대로서 남반부 경제는 날로 더욱 혹심하게 파멸되고 더욱 심각하게 예속화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선 무역 숫자에서 명백히 볼 수 있다。 동아일보 二월 六일 보도에 의하면 민간 무역만 수입 백四十六억九천만원이며 수출은 八十八억五천만원이라 한다。 이것은 수입 초과 五十八억四천만원으로써 수

출은 수입의 약六○%밖에 아니된다。 그런데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 여기에 다만 작년 하반기의 이・씨・에이의 경제 원조 물자 六천만딸라와 군사 원조물자 七천만딸라 합계 一억三천만딸라 즉 一천三백억원(一딸라대 一、○○○원의 비률로 환산한것)을 가산하면 수입은 실로 一천四백四十六억九천만원인 것이다。 곧、수출은、수입의 六%에 불과하다。 여기에 작년 상반기의 소위 원조라는 명목 하에서 수입된 것과 각종 각색의 밀수입들까지 집어넣으면 소위 수출은 수입에 비하여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 도 아니될 것은 명백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씨・에이 책임자인 번즈도 一월 十二일 미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중에 「현재 한국의 수입은 수출에 비하여 약 十배나 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수출 수입 관계 아래에서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국내 산업 경제가 파멸 예속화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지 아니한가? 그런데 만약 이 거대한 천문학적 숫자의 수입을 물품의 종류별로 보면 우리는 더욱 남반부의 산업 경제는 파멸과 예속화의 일로를 달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톡톡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첫째、민간 무역을 보면 작년 一월부터 十一월까지의 수입물 중 물론 공업 기계류는 전무이며 방적、고무등 경공업 원료에 속하는 것이 겨우 三・六%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식료、기호품、용지류(用紙類)、모직、면직、견직、약재、약품、화장품、도료、염료、악기、사진용 기구、도자기、유지류(油脂類) 등등의 순수일용 상품으로써 차지되고 있는 것이다。(一월 一일서울신문참조)

둘째、소위 군사 원조에 의한 七천만딸라 ―七백여―의 수입품은 단 한가지도 경제 발전과 관계 없는 것이요、도리어 인민들을 학살하고 경제를 파괴하는 자재 뿐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그러면 六천만 딸라―六백억에 해당한 소위 경제「원조」는 어떠한 것인가? 미 제국주의자와 리승만 역도들이 입만 벌리면 이 경제「원조」로써 소위 한국 경제는 발전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명백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씨・에이 책임자 번즈가 리승만 역도들에게 전달한 六천만난라 용도에 대한 세목에 의하면 소위 이・씨・에이 행정비가 一백七만딸라、해상 운송비가 六백十六만二천딸라、소위 기술 감정비와 기술 원조비가 二백四十二만二천딸라、합계 一천二十八만四천딸라로써 六천만딸라 전액의 거의 二○%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그대로 앉아서 뜯어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六천만딸라 중 소위 산업 부흥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업 기계류에는 단 五十八만딸라 밖에 지출되지 아니하였다。 즉 전액의 一%도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나머지의 부분에는 약간의 경공업 원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소비용 상품의 댓가로 지출되어 있다。(一월 十三일 련합신문 참조) 이상의 세가지 부분을 종합하면 一천四백四十六억九천만원의 방대한 수입 물품 중 기본적으로 산업 부흥을 위하여 수입된 공업 기계류는 단 五억六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 수입액의 ○・四%에 해당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형편 하에서 산업 경제가 부흥된다고 떠드는 놈들의 허위 날조가 그 얼마나 파렴치하며 비량심적인가를 그 누가 모르겠는가?

미 제국주의자가 남반부 경제를 파멸 예속화시키는데 있어 또 한가지의 악행은 소위 이・씨・에이 「원조」물자에서 작년 十월부터 十九종의 물자를 제외한데서 더욱 명백히 볼수 있는 것이다。 이・씨・에이 책임자 번즈의 발표에 의하면 유연탄、연초제조용 자재、인쇄용 자재、도락크 급 뻐쓰 부분품、자동차 엔진、식료 제조 설비와 및 방적 공장、제지공장、인쇄공장、제혁 공장、통신 시설등의 수선 급 보수 부분품 등등의 전부가 제외 물품 중에 들어 있다고하는 것이 여게서 미 제국주의자는 남반부의 산업 경제를 부흥시키기는 고사하고 남반부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공업 부문까지 전멸시켜 치우자는 것을 아주 계획적으로、고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눈감은 소경으로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여게서 놈들이 발표하는 소위 생산 숫자라는 것은 저들의 파멸을 은폐하고 인민을 기만하려는데서 온 아주 황당무계한 것임을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만약 놈들의 산업 경제가 더욱 파멸의 일로를 걷지 않는다면 남반부의 화폐가 무엇 때문에 七백억을 돌파하고 있으며 귀속 재산에 속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리승만 매국정권이 무엇때문에 금년 一월 七일 현재로 一천六백억의 조선은행 채무를 지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는가? 또 무엇때문에 애치슨이 미 하원 외교 위원회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원조가 없어지면 한국은 二、三개월 내에 붕괴될 것이다」라고 비명을 올리었으며 공화당 의원 촌・보리스가 리승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쥐구멍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떠들어 댔겠는가?

또 무엇때문에 이・씨・에이 책임자 번즈가 「한국 정부의 재정적 지위는 최근 수개월에 극도 악화되어 졌다」(련합신문 一월 二十五일) 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아니되었겠는가?

이 모든 것은 산업 경제의 여지없는 파멸과 예속화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지 아니한가?

남반부 경제 파멸은 비단 산업 부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또한 동일하다。 미 제국주의자놈과 역도들이 입을 모으면 남반부의 식량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짖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 누가 믿겠는가? 만약 농업 경제가 황폐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때문에 백미 소두 한말에 二천원대에 뛰어 올랐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농산 물가의 폭등은 실로 전면을 걸친 현상으로 그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작년 十一월과 금년 一월 十六일 현재를 대비하여 보면 백미는 소두 한말에 一천六十五원으로부터 一천九백원에, 콩은 八백五十五원으로부터 一천三백원에, 팥은 一천二백十원으로부터 一천六백五十원에, 보리쌀은 八백六十원으로부터 一천八백원에, 밀은 九백원으로부터 一천七백원에, 고구마(一관)는 一백五十원으로부터 四백원에, 참기름(一병)은 二천十원으로부터 三천원에 뛰어 올랐다(一월 十八일 동아일보)。

여게서 주목할 것은 농산물 전체에 걸쳐 이렇게 놀랠 만큼 그 가격이 뛰어 올라도 현품이 없어 살 수 없는 그것이다。 이것이 「자작 자급」의 정도에 이른 농업 생산에서 오는 결과이냐? 실로 남반부에서는 농업 경제도 황폐화의 일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산업 및 농업의 파멸과 황폐는 남반부의 전인민들의 생활 즉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형언할 수 없는 비참과 암흑의 구렁텅이로 더욱 깊이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실업자가 증가되는 것과 이들의 생활 형편이 형언할 수 없이 비참한 것은 말할 여지도 없거니와 소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도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다。 一월 十八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三인 가족의 연명을 위한 생활비만도 최저 二만五천원이 요구되는데 로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무원들도 살아나갈 도리가 없다고 한다。 만약 이 위에 작년보다 二·五배로 인상된 세금, 각종 명목의 기부금, 소위 국채 배당액 등등을 가산하면 남반부 인민들은 실로 문자 그대로 기아 선상에서 더욱더 헤매게 될 것이다。

기아와 영양 부족에서 오는 두려운 결과는 영월 탄광 로동자 一、一〇一명 중에서 五七三명 즉 五七%가 결핵 환자이며 녕월 발전소 로동자 三二〇명 중에서 二八五명 즉 八五%가 역시 결핵 환자(一월 十四일 련합신문)라는 데서 아주 명백하지 아니한가? 그리고 가혹한 지주의 착취와 함께 종자까지 떼앗기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이 더 말할 수 없이 비참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 × ×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



주주의적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애국적 열정에 끓어넘치고 있는 남반부 전인민들이 인민 도살자이며 천추의 매국노인 리승만 역도들을 타도 분쇄하는 투쟁에 어찌 궐기하지 아니하겠는가? 리승만 역도들을 타도하지 않고는 조국의 절반 땅을 미 제국주의자와 그의 악독한 앞잡이 일본 강도 놈들의 피묻은 침략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으며 인민들을 피의 바다 속에 잠그고 있는 이 역도들을 타도 분쇄함에는 손에 무기를 들고 놈들의 아성을 무력으로써 쳐부시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남반부 전체 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 경험 속에서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이다。 여게서 남반부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 지휘 밑에서 리승만 역도놈이 더욱 발악적으로 진행하는 테로 학살에도 불구하고 영용한 빨찌산들은 백방으로 원호하며 우수하고 용감한 아들 딸들은 폭포수와도 같이 빨찌산 대렬로 달리어 가고 있는 것이다。

실로 남반부의 빨찌산들은 악독한 침략자로부터 조국 강토를 생명으로써 수호하고 인류 반대의 적 히틀러와 천고의 매국노 리완용의 후손인 리승만 역도들의 파씨스트적 테로 학살에서 부모 형제를 피로써 구출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선 진정한 애국자들이며 혁명 투사들이다。 그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투쟁 정신은 임진 왜란에서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의병 투쟁과 일제 압박 시기에 우리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이 지도하신 항일 빨찌산의 애국적 구국 투쟁의 피로써 련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미 제국주의자의 여하한 무기도, 여하한 흉책도, 리승만 역도들의 여하한 발악도, 학살도 날로 장성강화되는 인민들의 투쟁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놈들의, 저들의 힘과 꾀를 경주하여 아살, 동살, 도살의 악독한 음모 하에서 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작년 말부터 금년 초에 걸친 소위 동기 작전이 이르는 곳마다 실패하고 있는 데서 아주 분명한 것이다。 누가 오늘에 있어 놈들의 소위 동기 토벌이 전남 지방에서, 지리산 지구에서, 태백산 지구에서, 령남 지구에서 모조리 실패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자 있겠는가?

투쟁에서 단결된 인민들의 힘은 가역 위대한 것이다。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강대한 위력 앞에 리승만 역도들은 더욱 그 초조와 불안과 동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의 불공 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의 앞에까지 아부하고 있는 데서, 리승만 역도들은 인민으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배격되며 고립이 더욱 심하여가고 그 죄악이 더욱 명백히 폭로되는 데서, 놈들의 내부 동요와 초조는 더욱 증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놈들이 소위 개헌안과 제二회 망국 선거 희극 등을 중심하고 날로 격화되는 그 내부 모순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리승만 역도들은 반드시 멸망하며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은 객관적 주관적 모든 조건에서 아주 부명한 것이다.

이러한 정세 하에 있어 남반부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과업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一월 九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호소문에서 내세운 과업들을 남반부 전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또한 그 속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충실하게 희생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그것인 것이다.

남반부 애국 정당 사회단체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달성시키기 위하여 남반부 전체 애국 력량을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총집결시키는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뭉치면 강하고 분렬되면 약하다」 이것은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다. 우리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 수상을 수반으로 한 공화국 정부의 정강과 이 정강이 벌써 실시되어 통일 독립의 민주 기지가 철옹성같이 공고화하여 가는 북반부의 전반 성과들을 인민들의 속에 꾸준히 선전하고 리승만 역도들과 그 상전들의 죄악과 음모들을 매일 매일 명백하게 폭로하여 전인민들을 공화국의 기치 밑으로 굳게 단결시키는 투쟁을 더욱 강력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남반부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남반부 농민들을 토지 혁명, 투쟁에로 더욱 광범하게, 더욱 용감하게 궐기시키어 농민 자신의 손으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자기들 사이에 분배하는 투쟁을 더욱 철저하게 실행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남반부 농민들은 토지 혁명을 위한 투쟁에 광범하게 궐기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 투쟁을 전지역으로, 전면적으로 전개시키게 하며 더욱 용감하게, 더욱 결정적으로 농민 대중을 이 력사적 투쟁에로 진출시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남반부에서 영용하게 투쟁하는 우리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인 빨찌산 투쟁을 더욱 거대한 규모와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 강화시키는 투쟁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투쟁하는 빨찌산들을 모든 성심 성의로써 원호하는 사업에 궐기하도록 추동시키어야 한다. 그리고 전인민들로 하여금 서로 빨찌산에 참가하도록 고무하여 빨찌산의 대렬을 일층 강화하고 빨지산과 인민과의 련계를 일층 긴밀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빨찌산이 없는 곳에는 하루속히 조직하고 강대한 빨찌산들이 활



동하는 곳에는 강력한 해방구를 설정하는 투쟁에 용감하게 진출하도록 백방으로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빨찌산들을 더욱 고상한 애국주의로써 그들을 교양하며, 선진적인 전술과 전투 기능들을 신속하게 습득하도록 하며, 적에 대하여는 열화같은 증오심과 적개심을 더욱 환기시키고 적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무자비하며, 용감하며, 대담하며, 강인하여야 하는 투쟁 정신을 더욱 배양시키어야 할 것이다. 우리 애국 정당 사회단체들은 원쑤들의 모든 반역적 시도와 음모와 소위 법령과 결정들을 매일 매일, 매걸음 매걸음 마다 파탄시키는 투쟁을 철저히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으로부터의 량곡 강탈 정책, 일본 군국주의자에게 대량의 식량을 주는 흉책, 일본 군국주의자와의 야합 음모, 징병제, 인민들의 강제 소개, 빨찌산을 학살할 비용으로서의 국채강탈, 조선 인민의 재산인 귀속 재산의 강도 판매, 막대한 세금 인상, 전일본인 토지의 강제 매매, 량곡 콱리법의 실시 등등과 기타 모든 반동적 기도들을 철저하게 파탄시키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되 우리들은 역도들의 시도와 음모들의 내용과 흉악한 목적을 인민들에게 명백히 지적 해석하고 그것을 파탄시키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 전술을 가르쳐주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항상 투쟁의 선두에 시서 인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로동자들로 하여금 八시간 로동제와 사회 보험제와 생활을 향상시키는 투쟁과 아울러 로동 조합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 권리들을 찾기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기에 자기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어야 할 것이다.

원쑤들은 자기들의 멸망이 가까와 오면 올쑤록 더욱 발악적으로 우리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에 대한 파씨스트적 야수적 탄압을 더욱 적극화하며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원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 중세기적 고문, 검거, 투옥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원쑤들의 이 발악적 탄압을 대항할 뿐 아니라 이것을 아주 무력화하며, 완전히 실패하도록 우리들의 모든 기관들을 더욱 더 완강하고 견고하게 조직하여 단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합법적」 방면을 활발하게 리용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들은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하게 무장함으로써 여하한 곤난과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것을 모조리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인민의 힘은 무적인 것이며, 무진장인 것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의의 투쟁은 승리하고야 마는 것이다. 남반부 전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원들은 고상한 애국적 민주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하게 무장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 독립국가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선두에서 더욱 용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 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교양

고 혁

간부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시키는 것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우리 당의 정치적 과업이다。

「국가 및 당 사업의 어떤 부문의 일군을 물론하고 그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주의적 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업 자체가 더 높아지고 실효가 많으며 사업의 결과가 성과있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사업자들의 정치적 수준과 맑쓰—레닌주의적 각성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업에서의 파탄과 실패가 필연적인 것이요, 사업자 자체가 필연코 천박하게 되어 린색한 안전 리익의 사무주의자로서의 퇴화가 필연한 것이며, 그들의 변태가 필연한 것을 공리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모든 사업 부문의 인재를 사상적으로 준비시키였고 국내 및 국제 환경에 대하여 그들이 자유로 방향을 정하기에 능숙하도록 정치적으로 단련시키였다면, 만일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국가 령도 문제에 있어서 심오한 파오가 없이 해결하기 능한 완전히 성숙한 맑쓰—레닌주의자로 만들었다면 벌써 우리의 모든, 문제의 十분지九는 해결되였다고 인정할 모든 근거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으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쓰딸린)

맑쓰—레닌주의 리론은 우리 간부들로 하여금 당의 정책을 리해케 하며 어떠한 정세 속에서도 옳은 방향을 정하게 하며 정치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준다。

레닌주의의 사상, 가운데서, 맑쓰—레닌주의의 리론 가운데서 우리 간부들은 우리 사업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투쟁 력량을 흡수한다。

우리 당 간부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며 정치적으로 단련하는 사업은 오늘의 조전 하에서 특별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은 오늘 국내외 반동파의 가혹한 투쟁의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며 인민 공화국의 기치 하에 국토를 완정시키며, 조국을 통일시키기 위한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이 투쟁의 선두에 선 근로 대중의 전위대인 우리 당의 매개 당원들과 간부들을 가장 세련되고 검열된 백전 백승의 강력한 무기인 맑쓰—레닌주의로 무장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교양의· 긴절한 요구는 그것은 우리 당 대렬이 짧은 기간에 급격히 장성되고 많은 청소한 일꾼들이 국가 건설 사업에 참가하게 되였다는 것에도 있는 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정치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의 수준과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매일 높아가고 있다。

정치 경제 사업에 있어서의 금후 성과는 우리 간부들의 사상 정치적 준비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국가 건설의 모든 부문을 옳게 지도하는 과업은 우리 간부들로부터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기본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며 실천 활동 상의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리론에 의하여 지도될 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 지도 간부들은 그들이 반드시 사회 발전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선진 과학의 지도를 받으며, 선진 혁명당들의 우수한 경험과 교훈으로 무장하는 경우라야만 그들이 실지 사업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국가 건설 도상의 우리의 전진은 더욱 더 추진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간부들에게 체계적으로 또는 꾸준히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하며, 일상적으로 자기를 교양할 의무를 주는 것이며, 또한 우리 당 단체들로 하여금 이 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 당은 맑쓰—레닌주의 교양을 강화할 데 대하여,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리론 수준을 높일 데 대하여 일상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당원들의 사상 정치 교양 사업 강화와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한 최근 당 중앙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당원들의 사상 정치 교양에 대한 당의 부단한 주의를 명확히 표현한 것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의 사상 정치 교양에 대하여 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당은 그동안 간부들과 당원들을 사회 발전에 대한 가장 선진적 리론인 맑쓰—레닌주의 리론과 쏘련 공산당의 혁명적 투쟁 경험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과 또는 우리 조국 북반부에서 진행된 민주 개혁의 경험들로 무장시키는 당 사상 정치 교양 사업에 있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당은 당 지도 간부들과 당 열성자들을

잉성하기 위한 상설적 당 교양 기관인 중앙 당 학교와 각 도 시 당학교들 가지고 있으며 그외 시 군에 야간 당학교들을 가지고 있다。

전 당을 통하여 당 학습회와 자습 당원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당원들의 사상 리론 수준 제고를 위한 강연 사업, 쎄미나르 및 난기 강습 제도가 설정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 당은 당원들의 맑쓰―레닌주의적 리론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당 출판 사업을 확장하고 맑쓰―레닌주의 리론 서적들과 레닌―쓰딸린의 기본 저서들을 번역 출판하여 당 교양 자료들과 자습 당원들을 위한 보충적 참고 자료들과 맑쓰―레닌주의적 리론 문제에 대한 강연 자료들을 대량적으로 출판합에 적지 않은 성과를 서두었다。

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 교양에 대한 당의 거대한 사업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간부들은 당 전설과 국가 전설 부문에서 그들 앞에 나선 과제들을 성공리에 해결하고 있다。 당 정치 교양의 질적 제고와 당원들의 맑쓰―레닌주의적 각성의 장성은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한 전 완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투쟁을 너욱 추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것이 이미 다 되었으며, 현재에 있어 당원들의 정치 학습이 지절로, 주 당 단체들의 조직적 및 지도적 사업이 없이, 또는 학습의 질에 대한 일상적 감독이 없이 자연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은 아니다。

이지까지도 우리 당 사상―정치 교양 사업는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고상한 정치적 수준에까지 제고되지 못하고 허다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개최되였던 당 중앙 위원회 정기 회의는 우리 당 선전 사업의 중요 결점 중의 하나를 「각급 당 기관과 국가 기관의 령도적 지위에 있는 당 지도 간부들과 당 열성자들에게 대하여 사상―리론 수준 제고에 대한 사업이 미약하게 전개된 사실」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 당 지도 간부들과 당 열성자들을 위한 당 교양 체계의 기본 형식인 자습 당원 체계는 아직 당적 지도와 검열과 원조로 원만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당 단체들에서는 자습 당원들을 위한 정상적 쎄미나르나 보충적 강연 사업들이 미약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많은 당 단체들에서는 자습 당원들에게 대한 개별적 취급, 원조 및 방법상 지



도와 검열 사업이 없이 당 지도 간부들의 리론 교양 사업을 자연 생장에 방임하여 두었다。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당원들의 일반적 정치적 준비 정도 여하와 그들의 요구를 불문하고 적지 않은 수효의 당 간부들과 당 열성자들을 자습 당원, 체계에 기계적으로, 배속시킨 결과 많은 당 지도 간부들과 열성자들은 자기의 리론 수준 제고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리론적으로 락후한 현상에 처하였다。

당 교양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모든 당 단체들이 간부들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교양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직성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당 단체들은 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방임과 무감독을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대중을 지도하는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 간부들이 사회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과학, 고상한 민주주의 사회 건설에 관한 과학인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소유하도록 원조하여 주는 과업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당 간부들의 정치적 자기 교양에 대한 기본 방법은 자습 방법이다。

현재 대다수의 우리 간부들은 자습 당원 체계에 망라되어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온갖 원조 사업은 당 단체들의 가장 중요한 일상적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습 당원들에 대한 원조의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다。즉 출판 선전, 강연, 쎄미나르, 꼰술따찌야, 단기 강습 등등이다。

자습 당원들에 대한 원조 사업에 있어서 강연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잘 준비되고 내용있는 강연은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게 큰 도움으로 되는 것이다。

강연은 자습 당원들의 연구 제목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해명하며, 당원들이 읽어야 할 저서들을 해득하는 것을 용이케 하며, 또한 강연은 리론을 실천에 적용한 실례들을 주며, 그럼으로써 맑쓰―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섭취하는 데 방조하여야 한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강연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강연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방향과 좋은 구상으로 작성되었다 하나 이것이 만약 불충분하게 준비되고 피상적이며 흥미없는 것으로 진행된다면 강연 선전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자습 당원들에게 하등의 원조로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연은 강연에 대한 자습 당원들의 흥미를 저하시킬 뿐이다。

일부의 우리 당 단체들에서 진행되는 자습 당원들을 위한 보충 강연은 그의 내용이 불충분하며 당원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리해하는 것을 도와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리론 강연은 당의 정책과 결부됨이 없이 추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력사적 사실을 리론적 원칙과 련결이 없이, 당의 현 임무와 결부시킴이 없이 진술하는 것은 강연에 있어서 큰 결함의 하나이다。

강연의 낮은 질은 강사가 자료를 연구하지 않으며, 그것을 깊이 리해하지 못하는 결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강연은 결국 피상적으로 되고 만다。

내용있고 흥미있는 리론 강연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당 단체들은 강사들에 대한 사업을 옳게 조직하며, 강사들이 내용있고 높은 질을 가진 강연을 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며, 강사들에게 일상적 주의와 배려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보충적 강연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강연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그것이다。

부분적 우리 당 단체들에서는 자습 당원들의 학습 정형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없이 강연을 다치는 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강연은 당원들의 자습 제목과 유리되어 자습 당원들의 학습과는 아무러한 관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게 정당한 원조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보충적 강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 당 단체들은 자습 당원들의 연구 제목에 적응한 강연 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보충 강연은 자습 당원들의 연구 과목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식을 주며, 그 연구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를 가지게 하며, 어느 정도 그들의 자습을 조직 지도하는 방향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당 기관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게 주는 원조를 옳게 조직하기 위하여 자습 당원들의 학습 정형과 질문을 세밀히 연구하여야 한다。

만약 당 단체들에서 강연 계획이 미리 자습 담원들에게 알리워지며, 이 강연 계획이 자습 당원들의 질문에 맞도록 작성된다면 강연에 대한 흥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당 단체들은 간부들의 정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리론 문제와 국제, 국내 정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은 내용을 가진, 그리고 높은 질을 가진 강연을 더욱 광범히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당 도서실에서 원거리에 있는 자습 당원들과 당 열성자들을 위하여서는 강사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보충적 강연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리론 강연에는 당 및 정권 기관 간부들과 교수들과 기타 준비된 당 리론 간부들로 된 직외 강사들을 광범히 참가시키며 직외 강사의 구성은 실제로 준비되었고 맑스—레닌주의 리론 문제에 대하여 강연할 수 있는 일군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당 기관들에서 조직되는 자습 당원 쎄미나르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게 거대한 방조로 된다。

쎄미나르는 자습 당원들로 하여금 자습한 제목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 해명케 하는 것을 도와주며, 자습 행정에서 받는 지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쎄미나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준비된、리론 간부들로 쎄미나르 지도를 담당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우리 당 단체들에서는 쎄미나르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를 돌리지 않고 이 사업을 전혀 방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부분적 쎄미나르에서는 보고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나 쎄미나르 지도자의 무준비로 인하여 참가자의 보고와 토론들이 수습되자 못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총화가 지어지지 못하며 명확한 결론이 없이 쎄미나르는 형식적 회합으로 화하고 만다。

쎄미나르의 성과적 진행은 쎄미나르 지도자의 준비 여하에 크게 달려 있으나, 또한 쎄미나르를 조직하는 방법상 문제에도 많이 관계된다。

쎄미나르에서 취급되는 제목은 자습 당원들의 당면 연구 제목과 또는 보충적 강연 제목과 련관성을 가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서로 유리된다면 그 쎄미나르는 자습 당원들을 위한 정당한 원조 사업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며 참가자들은 그 쎄미나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쎄미나르에서는 자습 당원들이 형식적으로 모여 앉아 아무러한 준비도 없이 쓸데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갑론 을박함으로써 시간만 허비하거나 또는 당사에 씌운 글줄 그대로를 간단히 외이는 형식으로 쎄미나르를 아무 의의없이 진행한다。

당 기관들은 자습 당원들을 위하여 보충 강연을 진행한 후 그들에게 요취고 서적을 소개하여 주며, 다음번 쎄미나르에서 진행할 보고 제목을 그들에게 지적하여 주며(보고 제목은 그들의 자습 제목과 진행한 보충 강연 제목에 근거하여 설정한다) 또한 토론자들을 위하여 그 제목의 중심적 문제들을 지적하여 줌으로써 쎄미나르 참가자들로 하여금 제목에 대하여 심각히 연구하며 흥미있고 풍부한 토론을 준비하는데 방조를 주어야 한다.

다음번 쎄미나르에서는 보고를 토의한다. 쎄미나르에서 지도자는 쎄미나르의 총화를 지어주며 보고는 토론에 대한 평가를 주며 보고와 토론 중에서 그릇된 점을 시정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보충적 설명을 주어야 한다.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꼰술따찌야이다.

자습 제목에 대한 연구 과정에 있어서 자습 당원들에게는 수다한 의문들이 발생되며, 또한 그들에게는 자습의 방법상 문제에 대한 개별적 지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꼰술따찌야는 자습 당원들의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여 주며 또한 방법상 문제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어야 하며 꼰술딴트는 자습 당원들과의 일상적 실지 련락을 취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온갖 개별적 방조를 주어야 한다.

꼰술따찌야의 의의는 또한 이것이 매개 자습 당원들의 질문을 참작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감독하며 학습이 방임되지 않도록 그의 학습을 지도하는 데도 있다.

꼰술딴트는 자습 당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조직자로 되어야 한다.

꼰술딴트는 자기가 담당한 매개 자습 당원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며, 정상적으로 그들과 만나며, 그들의 학습에 있어서의 곤난과 결점들을 밝혀 주며, 제때에 방조를 주어야 한다.

자습 당원들과의 사업에 있어서 꼰술딴트는 당원들의 자습 계획 작성을 방조하며, 그 제목에 대한 연구 강령을 가르쳐 주며, 그 강령에서 어느 부분이 용이하고 어느 부분이 곤난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계획에서 자습 당원들이 어떤 문헌을 얼마마한 기간 내에 연구할 것인가를 예정하여 주며 그 다음 꼰술딴트는 자기 그루빠의 전체 자습 당원들을 위하여 서적 연구에 대한, 또는 읽은 것을 어떻게 필기 또는 요약할 것인가에 대하여 담화를 한다.



다음에는 학습을 더욱 조직성있게 하기 위하여 꼰술딴트는 자습 당원들에게 제목별로 과제를 주고 주요한 주의를 무엇에 돌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연구 기한을 주어야 한다.

자습 당원들에게 있어서 서적의 기본적 내용을 즉시로 파악한다는 것은 곤난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꼰술딴트는 당원들이 연구하는 서적의 기본 내용을 인식하게끔 방조하여 주며, 그 저작의 저술된 시기와 그 시기에 있어서 전개된 정치 투쟁의 주요한 방향을 리해시키며, 그에 대한 보충적 참고 서적과 문헌들을 지적하여 주어야 한다.

꼰술딴트는 정상적으로 자습 당원들과 개별적 담화를 진행함으로써 그들의 과제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곤난을 당하고 있는가를 검열하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줌으로써 이 곤난을 자습 당원들에게서 배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자습 당원들이 요약 필기하는 행정에서 읽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책을 깊이 연구하는 습관을 자습 당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꼰술딴트는 담화에 있어서 자습 당원이 연구 제목의 근본적 요점들을 정확하게 섭취하였는가 못하였는가를 검토하며, 만약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소화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다시 연구하여야 될데 대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당 기관들은 리론적으로 가장 준비된 당 선전원들로서 꼰술딴트를 선출하여 그들을 약간명씩으로 된 자습 당원 그루빠에 배치하여 고착시켜야 한다.

꼰술딴트들의 역할, 그들의 사업 방법 등에 대한 문제를 위하여 당 도서실은 정기적으로 지도 회의를 조직해야 한다.

꼰술딴트는 넓은 시야를 소유하고 맑쓰—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박학이 되어야 하며 그는 교수와 같이, 또는 친절한 동로와 같이 자습 당원들과 꾸준히 일상적으로 사업하여야 한다.

꼰술딴트는 당 단체와 일상적으로 긴밀한 련결을 가지며, 자기가 담당한 자습 당원들의 학습 진행에 대하여 초급 당 단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 군 당부 선전 선동부와 당 도서실은 꼰술딴트들의 활동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맑쓰—레닌주의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 대한 이상과 같은 다양한 원조 사업는 당 도서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여야 한다.

당 자습 당원들에 대한 방조 사업 조직에 있어서 당 도서실의 역할는 거대하다.

당 도서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자습 당원

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방조하는 데 있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이상과 같은 방조 사업 조직의 계획 작성에 있어서 당 도서실는 우선 그들의 학습 정형과·질문들을 연구하여야 한다。즉 각급 당원들에게 방조를 주려면 그들이 어떠한 방조를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정된 사업 조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며、그 사업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직외 팜플렡트와 또는 그외 당 선전원들을 통하여 당 도서실은 자습 당원들이 당사의 어떤 장을 연구하고 있으며、그들이 무엇에 곤난을 당하고 있으며、그들에게 어떠한 방조가 필요한가를 알아내며 사업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당 도서실는 자기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급 당 단체들과 함께 사업하여야 한다。

자기 계획의 실현에 있어서 당 도서실는 열성자들에 의거한다。

당 도서실에 집결된 광범한 방조자들이 없이는 도서실은 자기가 하여야 할 다양하고 계획적인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도서실은 맑쓰—레닌주의 선전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즉 가장 리론적으로 준비된 그리고 당 선전에 경험이 풍부한、능력있는 일군들로써 직외 강사와 직외 팜플렡트와 기타 필요한 선전원들을 집결시켜야 한다。

당 도서실는 우선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과 당 열성자들이 충분히 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는 당 도서실의 관리와 운영에 심중한 당적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결과 당 도서실들은 시설이 불충분하고 도서가 불비함으로써 당원들이 도서실을 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당 도서실에는 쏘련 공산당사와 맑쓰—레닌주의의 기본적 저서들과 그외 일체 당 출판물들이 충분히 비치되어야 한다。

당사를 연구하는 당원들에 대한 참고 자료로 당사의 새 장별로 분류된 참고서와 문헌들、연구 강령 및 직관물、또는 그 외의 정치 경제 력사 문화의 각방면에 궁한 교양 자료를 구비함으로써 당원들의 일상적 리용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자습 당원들은 례하면 그들이 당 도서실에 오면 그들에게 필요한 당면 연구 제목에 관한 자



료、정치 및 력사 문헌、실지 참고물들은 그곳에서 언제나 발견하게 되고、경험있는 팜플렡트와 연구 방법에 대하여 담화하고、어떤 흥미있는 리론 문제에 대해서나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습 당원들을 위한 이러한 환경은 무엇보다 먼저 당 도서실이 그들에 대하여 용의 주도한 태도를 가질 때에라야만 지어지리라는 것은 아주 명백한 일이다。

당 도서실 사업은 도서실 주임인 각급 당부 선전 선동부 부부장이 직접 조직 지도하며、당기관들은 도서실 주임인 선전 선동부 부부장의 역할을 제고할 데 대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당 도서실은 맑쓰—레닌주의를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간부들에게 방조를 주는 과정에서 당 단체들이 축적한 거대한 경험들을 반드시 연구하며 보급시켜야 한다。

초급 당 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결 속에 또는 자기 사업을 당원 대중과 긴밀히 하는 데 당 도서실이 우리 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 자습의 방조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담보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간부들의 정치 교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단체들의 조직 지도 사업이 옳게 진행된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또한 기본적인 것은 당원 그들 자체의 학습하려는 열의와 노력이다。

아무리 당 단체들이 학습을 잘 지도하고 아무리 학습을 위한 자료가 풍부히 보장되였다 하여도 학습하는 자신이 배우려 하지 않으며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의 지도적 간부들이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소유하며 선진 혁명당인 쏘련 공산당의 투쟁 력사와 레닌—쓰딸린의 로작들을 연구하기 위한 가능성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오늘 우리 간부들이 모두 충분히 리용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 일부 간부들은 자기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발전시키며、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자기들의 리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습에 적극 노력하지 않고 있다。

당원은 전진하고 체계있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자기 학습을 옳게 조직할 의무가 있다。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 간부들의 제일 첫째가는 임무인 것이다。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간부들은 지식을 소유하여야 되며 대중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

쑤욱 지도자들로부터는 더욱 높은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 일부 간부들은 자기들의 게으른 학습을 말할 때에 그것은 당면 사업의 과중한 부담이 기본적 원인이라고 한다。

기실 우리 일꾼들의 사업은 광범하게 또한 책임적이다。

우리 당이 제기한 거대한 력사적 과업과 건설 사업은 우리 간부들로부터 방대한 정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간부들의 장성과 실지 사업은 학습 없이는 전혀 장성할 수는 없으며, 또는 그가 맡은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학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간부가 침체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오늘의 조건하에서 침체된다는 것은 그가 퇴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간부들은 그들이 자기 실지 사업과 그의 리론적 준비와의 결합이 없이는 어떠한 실지 사업도 그는 담당하여 나가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간부들이 만약 맑쓰—레닌주의를 연구하지 않으며 그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또한 자기의 실지·사업을 필요한 리론적 준비와 결합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필연코 맹목적으로 일하는 우둔한 기계적 인물로 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흔히 자기 교양에 대한 문제들을 론할 때에 「그저 시간이 없어서」 또는 「하루 종일 분주하다」는 것을 유일무이한 구실로 삼는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무조직성과 무긴장성 때문에 무의미하게 랑비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불필요한 사적 또는 과도의 장시간 회합으로 인하여 일부의 우리 간부들에게서 랑비되고 있다。

우리는 재정과 물질의 랑비와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직장에 있어서의 귀중한 시간의 랑비와는 타협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간을 옳게 조직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학습하며, 독서하며 자기를 교양하기 위한 아주 큰 시간이 있는 것이다。

간부들은 리론 서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자기의 자유 시간을 합리적으로 짜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요구되는 것은 우리 간부들이 맑쓰—레닌주의 리론의 자습에 대한 곤난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굳은 욕망과 자각적 열성이다。



어떤 락후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마치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소유할 과업이 소부문의 특수한 일꾼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인 듯이 인식함은 잘못이다。

어떤 우리의 검찰 일꾼은 법률은 맑쓰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법률만 알면 따라 맑쓰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허무한 궤변으로써 자기 학습의 태만을 엄폐하려고도 하였다。

이러한 일꾼들은 맑쓰주의를 모르는 자기와 같은 법률가가 언제든지 인민의 법률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나는 법률가니」「나는 경제 일꾼이니」「나는 의사니」「나는 기술자니」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치가 요구되지 않으며, 나에게는 정치 리론 수준 제고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일꾼들은 자기의 책임을 실행할 줄 모르는 변생된 관료주의자나, 그렇지 않으면 암둔한 맹목적 인물로 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일찌기 쓰딸린 대원수가 말씀하신 다음과 같는 교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보통으로 과학과 기술의 각부문에 따라 즉 전문 기술에 따라 젊은 인재들을 배양하며 편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요하고 적당한 일이다。 의학 전문가가 동시에 물리학 혹은 식물학에 대한 전문가로 되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후자가 전자의 전문가로 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의 모든 부문에 있는 볼쉐위크들이 의무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가지 과학 부문이 있나니 이것은 즉 사회에 대한, 사회의 발전 법칙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 혁명의 발전 법칙에 대한,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 법칙에 대한,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맑쓰—레닌주의 과학이다。

왜 그러나 하면 레닌주의자라고 자칭하면서、자기의 전문 기술에 국한되어, 말하자면 수학 식물학 혹은 화학에 국한되어, 자기의 전문 기술밖에는 아무것도 더 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진실한 레닌주의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까닭이니。

레닌주의자는 그가 애호하는 과학 부문의 전문가로만 될 수 없다。 그는 동시에 자기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하여 사회의 발전 법칙을 알며, 그 법칙을 리용할 줄 알며, 국내의 정치적 지도의 적극적 참가자가 되려고 도모하는 정치가—사회 활동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간부들의 맑쓰—레닌주의 리론 연구는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일상적 실지 사업과 긴밀히 련결되어야 한다。

당원들에 대한 정치 교양에 있어서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는 그들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민주주의 애국 사상을 제고시키며, 레닌—쓰딸린의 프로레타리아적 국제주의 사상과 제인민의 동등권과 친선을 강화하는 사상을 제고시킴에 있다。

우리 당 교양 사업은, 온갖 부르죠아적 사상과 일제 잔재 사상과 국제 반동의 사상적 도구로 되어 있는 부르죠아 꼬스모포리찌즘과 부르죠아적 민족주의 사상을 반대함에 자기의 날카로운 무기를 돌려야 한다。

쓰딸린 대원수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맑쓰—레닌주의 리론을 소유한다 함은 이 리론의 본질을 소유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여러가지 조건에서 혁명 운동에 대한 실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이 리론을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교양 사업은 계급성과 맑쓰—레닌주의적 당성으로 충만되어야 하며, 반동과의 가혹한 투쟁에서 자주 독립 국가 건설과 민주 건설을 위한 투쟁의 제 과업들과 긴밀히 련결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실지 과업들을 해결할 때에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을 리용할 줄 알게 하며 사회와 사회 발전의 법칙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발전의 법칙과 고상한 민주주의 사회 제도의 발전과 승리의 법칙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적 과학에 기초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알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사상 정치 교양 사업의 기본 과업으로 된다。

# 三·一 운동과 그의 력사적 교훈

김 승 화

一九一〇년에 조선은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었다。조선을 강점한 일본 제국주의는 억압적이고 강탈적이며 야만적인 식민지 정책을 감행하였다。당시 총독 데라우찌(寺內)는「조선 사람은 우리 정권에 순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선언하였다。그들은 가혹한 테로 독재를 수립함으로써 조선을 완전히 일본화하려 하였다。

일제는 조선에 대하여 야만적 탈취 정책을 실시하여 우선 토지 수탈부터 시작하였다。소위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여 一九一〇—一九一八년 간에 걸쳐 조선의 비옥한 토지를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탈하였다。관료적인 토지의 신고 방법과 독단적인 측량은 그들이 마음대로 토지를 략탈하는 담보로 되었다。일제는 이 사업을 통하여 직접 八、八〇一、五一三정보를 략탈하였고 그 외에、군용지 철도 용지로서 광대한 토지를 수탈하였다。토지의 략탈은 조선에 침입한 일본 독점 자본가들에 의하여서도 진행되었다。일제 총독부가 수탈한 토지 외에 三五九、二九〇정보의 토지가 독점 자본가들의 수중에 들어갔다。그리고 조선 산림의 대부분은 일제의 수중에 들어갔고 좋은 산림은 일본 각 대학의「실습림」이라는 명목으로 강점되었다。

복잡하고 관료적 신고 방법과 기만적 독단적 측량을 통하여 농민들의 토지는 주소 불명지、관용지 기타 등등의 명목으로 략탈되었다。농민들은 토지 면적 신고에 있어서 지나온 날의 과중한 세금을 회상하고 자기의 토지 면적을 적게 신고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일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일제는 토지 수탈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선 귀족 구(舊) 관료 지주들의 리해를 많이 고려하였다。그들은 리왕조가 지배하던 토지 중에서 일부만 수탈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리왕족에게 맡겨주었으며 기타 지주 토호들의 토지도 그대로 남겨주었다。이것은 자기들의 경제적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제의 토지 략탈 사업의 결과 식민지적 반봉건 농노제가 수립되어 조선 농민은 二중 三중의 착취의 멍에를 메게 되었으며 반면에 당시 조선의 기본

생산 수단인 토지를 장악한 일제는 조선 인민을 착취하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일제는 강탈한 토지를 조선 농민에게 소작주어 五〇—八〇%의 소작료를 짜냄으로써 식민지 착취의 기본인 「초과 리윤」을 획득하였으며 농민들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과중한 직접 간접 세금으로써 농민의 고혈을 짜내였다. 농촌에는 일제의 착취 기관인 금융조합과 수리조합망이 깊이 침투되었다.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하는 재물의 五〇%는 인민들로부터 징수하는 각종 명목의 세금이었으며 그의 五五—七〇%는 농민들로부터 착취해내었다. 세금은 금납이었다. 세금 독촉에 몰리어 파는 곡물은 불등가로 교환되어 일제와 지주의 고리대, 착취의 좋은 수단으로 되었다.

농민들의 생활은 곤경에 처하였다. 一九一七년 한해 단 하여도 지세와 부과세 때문에 차압당한 인원수는 약 六천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작농의 파산을 가져왔으며 일제와 지주에게 토지를 집중시켜 중농은 몰락되었으며 소작농과 고농은 기아 선상을 헤매게 되었다.

一九一四년에 지주가 전체 농호의 一·八%이고 자작농이 二〇%, 자 소작이 四一·一%, 소작농이 三五·一%였다면 一九一九년에 와서는 지주는 三·四% 약 二배로 장성하고 자작농은 一九·七%, 자 소작농은 三九·三%로 감소되고 소작농은 三七·三%로 격증하였다. 전농호 二六六만여호 중에서 약 九만호에 불과하는 지주가 전 경지의 五〇·四%를 차지하였고 二五七만여호의 농가에서 四九·六%의 토지—그것도 산전박토를 소유하였다. 극빈한 농민들은 적은 토지에서 얻는 사소한 수확 중에서도 그 대부분은 일제에게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또 지주와 고리 대금업자에게 착취당하여 그들의 생활은 갈쑤록 파산 일로였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파산된 농민은 일제와 지주 토지를 소작하거나 고농으로 너 심한 착취를 받거나 혹은 로동자로 일제 독점 자본가의 착취 대상으로 되었으며 혹은 화전민으로 되거나 또 생도를 구하여 외지로 떠나갔다. 당시 농민들에게 여러가지 세납이 부과되었다. 약 五十二종 세납 중 十一개 세납은 직접적 세납으로 되었다. 과중한 세납을 부담할 수 없어 고용 로동자로 화하였다.

령락하는 농민은 자기의 경리를 개선할 수 없이 품팔이 계절 로동자로 떠났다. 一九一七년에 품팔이 농민은 四五〇, 五六一명에 달하였는바 이는 전농민의 五분지 一에 해당하였다. 일제와 지주에게 예속된 소작농과 고농의 처지는 비참하였다. 그들은 五〇—八〇%라는 세계적 고률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외에 예속된 조건에서 지주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돌았다—「가을 마당에서 비반 늘



고 돌아온다」—가을에 수확 타곡은 하였으나 소작료와 꾸어먹은 량식에 리자까지 붙여 반환하면 탈곡장에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비짜루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은 비짜루만 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빚을 걸머지고 돌아오게 된다. 소작인은 온갖 학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그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녀를 지주의 노복으로 보내야 하며 지주의 토지를 계속 경작하기 위하여서는 갖은 공납과 부담을 걸머져야 했고 지주와 사음의 요구는 무조건 수행하여야 하였다. 지주들은 소작권 이동을 내걸고 소작인을 위협하여 더 예속적인 소작 계약을 맺는 것이였다. 소작 농민들의 위에는 지주, 사음, 토지 회사, 고리 대금업자, 상인이 있었고 모든 일제 통치자들의 착취 압박이 있었다.

일제는 이렇게 토지를 략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농민이 생산한 미곡은 모조리 일본으로 반출하였다. 一九一九년만 하여도 일본에 반출된 량곡은 백미 二, 八八二, 〇〇〇석, 대두 一, 二八八, 〇〇〇석이였다. 이로써 조선 인민의 식량을 얼마나 제한하고 일본 략탈자들에게 유족하게 식량을 공급하였던가 하는 사실은 一九一二년에 조선인 일인당 백미 소비량이 七두였다면 일본인은 一석七승이였고 一九一八년에는 조선인은 六두로 감소되었고, 반대로 일본인은 一석一두四승으로 증가되었다는 사실로 충분히 설명된다. 이상과 같이 토지를 빼앗기고 온갖 착취와 학대를 받으면서도 빚은 늘어가고 예속과 압박은 너 혹심하여 드디어 농민들은 압박자들을 반대하여 일어섰다. 즉 소작 쟁의가 그것이다.

일제는 토지를 수탈하여 착취의 기초를 구축한 토대 위에 식민지적 산업을 편성하는 교통, 운수, 체신, 시장, 원료 채굴, 가공 공업 등의 시설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편으로 조선의 부원을 강탈하며, 다른 편으로 조선 로동자들을 가혹히 착취하여 초과 리윤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산업 경영을 위하여 일제는 우선 조선 민족 자본을 억압 예속시키기를 목적한 「회사령」을 발포하여 독점적인 자본 투하를 시행하였다. 그 독점적 경영의 결과를 본다면 一九一〇년에 五〇명 이상의 로동자를 가진 공장이 一五一개소에 로동자 八, 〇〇〇여명이였다면 一九一七년에는 一, 三五八개의 공장이 설치되어 四二, 〇〇〇여명의 로동자가 일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부원이 많이 강탈되었다는 것과 일제가 조선 로동자에게서 많은 초과 리윤을 짜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제의 조선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는 가장 가혹하였다. 로동은 기계화된 공장, 기업소에서가 아니라 보통 원광석 채굴과 그 가공 공업 부문에 우마(牛馬)와 같이 혹사되었다. 로동자들의 임금은

가장 저렴하였으며 동일 로동에 대하여 일본인로동자들의 반액밖에 되지 않았다。공장 로동자들은 감옥같은 기숙사에 강제로 수용당하여 외부와의 련락을 가질 수 없었으며 하루에 一五——一六시간의 불휴 로동을 하면서도 하등의 로동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무장한 감독의 채찍이 항상 로동자들의 머리를 갈겼고 최소한의 임금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였다。광산、철도 등 원료 채굴 및 운수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은 험악한 생활 조건 하에서 아무런한 안전 보장이 없는 유해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농촌에서 굶어 죽게 되고 빚에 몰리어 할 수 없이 로동하러 나오는 그들은 처음 계약에 있어서 전채금(빚을 갚기 위하여 고용주로부터 채용함)이나 혹은 일정한 기간의 임금을 선불받는 선불 임금 계약을 맺는다。이것은 가장 기아적 임금에 얽매우는 것이며 고용주에게의 완전한 예속이다。고용자들은 무장한 감독으로 하여금 그들을 감시케 하며 죄수와 같이 구속한다。그들은 견디지 못하여 도망하려 하다가는 총살되거나 또는 투옥 고문을 받았다。실망하여 자살도 하였다。

일본 자본가들은 다만 조선에서 조선 로동자들을 착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만적 수단으로 조선 로동자들을 일본 기타 지방으로 붙아갔으며 노예 매매처럼 중간 리득을 위한 「인부모집」을 하였다。

로동자들은 이러한 압박과 착취에 견디지 못하여 마침내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一九一二년에 일제 사법 기관에 등록된 파업만 하여도 六건이 되며 그 참가자 수는 一、五〇〇여명이었다。이러한 투쟁은 일제 착취의 강화와 로동자 수의 증가에 따라 완강하여졌으며 확대되었다。운동은 경제 투쟁으로부터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일찌기 레닌은 쓰기를 「일본은 제반 기술적 최신 발명과 순전한 아세아적 고문을 련합시킨 비상한 야수성으로써 강탈되고 있는 조선을 더 강탈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것이다……조선에는 제정 시대의 모든 최신 기술 완성과 아세아적 고문제와 비상한 야수성이 집결되었다」(레닌전집 제二五권)

농업이나 산업에서 만이 아니라 전체 조선 인민의 경제 생활을 장악하고 고도로 되는 착취와 압박으로써 조선 인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제 통치 하에서 매국노 친일파 친일적 지주 자본가를 제외한 전민족은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였다。

일제는 이러한 원시적 수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시 근 五만명의 정규 륙해군과 二만二천여명의 헌경、二〇만여의 헌병 보조 대원과 수많은 관리를 배치하였다。

조선 인민들의 요구와 항의는 무장으로 진압되었으며 조그마한 사회—정치적 자유도 용허되지 않



았다。一九一九년까지 조선에는 두가지 일본말 신문 외에는 아무러한 문화 기관도 없었다。一九一九년까지 태형이 존재하였다。

소학교 교원까지 칼 채운 일본 지배자들은 정치 생활에서만이 아니라 문화적 령역에서도 민족 문화를 말살 외곡하고 반동적 「천황주의」에 근거한 우민 동화 정책으로 조선 인민을 영영 일본화하려 하였다。일제는 조선 인민에게 외국 류학을 허하지 않았으며 세계 선진 문화와 사상에서 격리시켰다。일제의 주구로 된 소위 「중추원」에 집결된 매국노 친일파들은 이것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야수적 착취와 학살적 통치는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을 격화시켰다。「제국주의란——쓰딸린은 쓰기를——광대한 식민지 예속 국가들의 수억만 인민들을 가장 몰렴치하게 착취하며 가장 비인간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초과 리윤」을 짜내는 것이 착취의 목적이다。그 나라들을 착취하며 그 나라들에 철도、공장、제조소、산업 중심지 및 상업 중심지들을 건설 아니하지 못하게 된다。프로레타리아가 생기는 것、본토 인테리겐차가 생겨나는 것、민족적 자각성이 솟아나는 것、이러한 것이 그 정책의 필연적 결과들이다」(식민지 문제와 민족 문제)。사실상 조선에 있어서 一九一〇년에 八천명의 공장 로동자가 있었다면 一九一七년에는 四만二천명으로 장성하였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一九一二년에 六건의 파업에 一、五〇〇여명의 로동자가 참가하였다면 一九一九년에 와서는 八四건의 파업 투쟁에 만여명 이상의 로동자가 참가하였다。

농민들의 투쟁도 앙양되었다。일제와 지주의 착취와 탄압을 반대하는 소작 쟁의는 一九一八년경에 전국에서 일어나 수만명의 농민이 가담하였으며 일제의 토지 수탈에 대한 반항으로서 二〇、二三〇건의 분쟁이 일본 관헌에게 취급되었다。농민의 투쟁은 자연 생장적이나마 날로 앙양되었다。이러한 근로 대중의 혁명적 진출은 三·一운동에서 결정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로동 계급의 장성이 미약하고 그의 세계관인 맑쓰—레닌주의가 전파되지 못한 당시의 조선 사회 벽사 조전에서 운동의 지도부로 나선 독립 운동자들은 대부분이 소부르죠아 출신인 인테리겐차였으며 의병에는 농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동시에 로동 계급 속에서도 적극적 활동가가 나왔다。

독립 운동은 일제의 탄압 하에서 극히 비밀리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비밀 결사、의병、애국 문화 운동 등의 형태가 중심이었다。독립 운동자들의 활동은 대부분 국외에서 진행되었다。망국 전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 운동은 점차 북부 국경 지대와 만주가 근거지로

되었다。이 시기로부터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주구로 반인민적 진영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독립 운동자로 가장하고 미제의 앞잡이로 조선을 미국의 위임 통치로 전환시키려는 매국적 음모를 진행하였고 오늘 계속 미제의 식민지로 전환시키려고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는 리승만 도당이 그 대표적 존재이다。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반인민적 봉건 의식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파쟁을 조장하여 해방 투쟁에 조해를 주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을 새로운 투쟁 대렬에까지 파급시켰다。그러나 새로운 투쟁 력량의 장성과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승리는 날로 반일 투쟁을 앙양시켰다。

쓰딸린 대원수는 十월 혁명의 세계사적 의의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세계적인 제국주의 전쟁과 하층부의 일반적 불만의 분위기에 十월 혁명은 린방까지 전파되지 않을 수 없었다。제국주의와 손을 끊고 략탈 전쟁으로부터 로씨야를 해방한 것, 비밀 조약을 페지하고 타국 령토 점령 정책을 엄연히 취소한 것, 민족적 자유를 선포하고 분란의 독립을 승인한 것, 로씨야를 제 쏘베트 민족 공화국 련방으로 선포한 것과 제국주의와 결정적으로 투쟁하고 세계에 호소한 쏘베트 주권의 투쟁적 호소, 이 모든 것이 예속되고 있던 동방과 피를 흘리고 있는 서방에 막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사실상 十월 혁명은 몇 세기 동안 졸고 있던 동방 피압박 약소 국가의 근로 대중을 깨우쳐 그들을 세계 제국주의와의 투쟁에로 끌어들인 세계 최초의 혁명이었다—」일반적으로 동방에서나 혹은 서방에서 진행되는 투쟁이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구폐(舊幣)에서 해방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개시되었다는것 또 그 투쟁은 계속 진행되며 불가피적으로 그 론리적 종국에까지 도달하리라는 데 있다」(쓰딸린 전집 제 四권 二一〇—二一二페지)

실지에서 十월 혁명의 승리는 일제의 식민지로서 압박과 착취의 질곡 속에 있던 조선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궐기 투쟁에로 추동하였다。우리 민족 해방 투쟁사상 빛나는 궐기가 一九一九년 三월 一일의 운동이었다。

× × ×

일찌기 레닌은 「민족적 압박은 광범한 인민 대중 사이에 일대 반발을 일으키고 또 민족적 압제를 당하는 인민의 모든 반발적 경향은 민족적 봉기를 지향한다」고 하였다。조선 인민들은 자기의 적 일제를 반대하여 혁명적 피의 항쟁을 전개하였다。그러나 이 운동의 지도부는 미약하였다。

一九一九년 三월 一일 서울 인사동 료리점 태화관에서 소위 「민족을 대표」한다는 독립 선언서는



三十三인의 종교인 대표에 의하여 발표되었다。그들은 종교적 무저항주의로 다만 미 영 제국주의의 원조로써 독립을 이루려는 것이었다。그들은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열의」를 보이기 위하여 궐기하는 군중들을 자기들에게 합류시켰다。그러나 三월 一일 독립 선언과 함께 三十三인과 군중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만약에 군중들은 대중적 시위를 감행하였다면 三十三인은 대중 앞을 겁내어 이날 료리점 방안에 모였다가 일제의 취체를 겁내어 전화로 자복하고 달려온 헌경들의 「안내」밑에 인력거를 타고 총독부 경무국으로 갔다。

三十三인은 스스로 투항하였다。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그것은 력사적 계급적 제한성에서 규정되는 것이다。그들은 독립 선언서에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규정하면서 「전세계의 대세로」보아 조선이 독립할 시기이며 또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그러나 선언서에는 강력한 투정으로써 독립과 자유, 토지와 경제권, 인민들의 진정한 해방을 찾을 길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투쟁 강령과 방법이 지적되지 않았고 도리어 「질서를 존중히」하며 자유 정신을 발휘하되 무저항적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三十三인과 그들의 선언서가 요구하는 것과는 관련 없이 군중들의 시위에 합류한 로동자 농민 인민 대중은 자기들의 요구를 내걸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시위 운동은 폭동으로 전환되었다。시위대들의 억센 기세는 매국노 리완용의 집을 부셨고 전차 운행을 정지시켰다。이날 서울에서 시위에 동원된 인원수는 약 三十만에 달하였다。그들은 「일본 군대와 일본인놈은 물러가라!」「조선 독립 정부를 세우자!」「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 자유와 평등 만세!」등의 구호와 독립 운동에로의 궐기를 호소하는 연설과 격문들이 널리 살포되었다。교통은 물론 「헌병만능」을 자랑하던 일제 통치 기구는 마비 상태에 들어갔고 헌병들은 도망하고 일본인들도 독립 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이에 대하여는 일제의 출판물에도 보도되기를 「이 소요가 일어난 三월 一일에는 총독 하세가와(長谷川)를 비롯하여 정무총장 야마가다(山縣), 내무부장 우사미(宇佐美), 경무총감 고지마(兒島) 등은 대단히 랑패하여 당황한 기색으로 취체 방침과 선후책에 대하여 구수 협의하였으나 좋은 의사가 나올리 만무하였으며 경관과 헌병들도 어쩔줄을 모르고 평상 인민들에 대하여 취체와 간섭이 많던 것이 일단 이와 같은 대사변을 당하여서는 순수하고 의쇄에도 용기가 없었다。평상시 관헌 만능을 자랑하던 당국도 이미 이에 이르러서는 여하한 권위도 없었다」라고 하였다。

독립 만세의 시위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였다。 三월 一일 평양、선천、남포、신의주、원산、안주、대동군에서 二일에 해주、개성、청진、황주 등지 그리고 뒤이어 금산、대구、대전、전주 등지를 비롯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일 봉화가 올랐다。

시위는 적의 탄압에 대답하여 폭동으로 전환되였다。 낫、식칼、괭이、돌(石)로 무장한 폭동 군중은、일제 관청、공장을 파괴하였으며 악질 관헌과 지주들을 처단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일본인 군수를 몰아내고 자기들로써 군수를 선출하였다。 폭동은 완강한 성질을 띠였고 전국적 규모에서 진행되였다。

三·一 운동에 있어서 농민 대중은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시위대와 폭동 군중의 대다수는 농민이 차지하였다。 이것은 아직 로동 계급이 장성되지 못하였던 당시의 조선 사정에 기인한다。 농민들은 일제 토지 회사와 악질 지주들을 반대하여 사기적인 소작 계약서、차용 증서 등을 소각하고 부채 환부와 세금 납부를 거절하였다。 경상남 북도、전라남북도 농민들은 여러 부락의 폭동 군중이 단합하여 일면의 농민군을 편성하여 가지고 유격전의 형태를 취한 관청 기습과 산중에 웅거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의병 운동이 계속되는 함평(咸平) 및 강원도 일대의 폭동자들은 독립군에 합류하였다。

이 시기에 만주를 근거지로한 조선 독립군은 국경 경찰을 무찌르고 국내에 진군하여 폭동 군중과 합세하였다。 따라서 농민들의 폭동은 더욱 더 장성하였고 함、평도 일대에서 일제 통치 기구에 대한 습격이 가장 빈번하였다。

장성하는 조선 로동 계급은 三·一 운동에 첫 대중적 피의 시련을 받았다。 一九一八년에 동맹 파업에 참가한 수가 四천여명에 불과하였다면 一九一九년에는 만여명으로 되었으며 그들은 경제적 조건을 내걸고 투쟁하였으나 식민지 사회 조건에서 풍부한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 三·一 운동에 있어 로동자들은 파업에만이 아니라 폭동에로 진출하였다。 경성 전차 로동자들은 시위에 참가하였고 폭동에로 전환되자 전차를 전복시켰으며 천안 광산 로동자 五백여명은 괭이와 곤봉을 들고 일제 헌병대를 습격하였다。 서울、영등포、평양、부산、인천、원산、대구、남포 등지의 로동자들은 파업으로써 반일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폭동 군중에 가담하여 적의 기관을 습격하는 데 용감하였다。

각지 청년 학생들은 만세와 시위、독립 연설과 격문、신문 살포의 선두에 섰다。 그들은 적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맹휴를 견지하였으며 폭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그 외 친일파、매국노、친일적 지주、자본가를 제



의하고는 전민족이 총궐기하여 三개월 동안 피의 항쟁을 계속하였다。 전국 二一八군 중 二一一군에서 「독립 선언 운동」이 진행되였고 조선 인민이 있는 곳마다 반일 봉기가 일어 났다。 부정확한 일제의 통계에 의하여도 이 운동에 二백만여명이 동원되였다。 운동은 외지에서도 일어났다。 특히 쏘련 연해주와 만주에서 활동하던 홍범도 부대를 비롯한 의병들은 직접 무력으로 일제와 혈전을 전개하였다。

피의 항쟁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일시 밀리였다가도 또다시 노도와 같이 일어났다。 일제의 탄압과 검거가 심하면 심할수록 투쟁은 더욱 완강하였으며 줄기찬 三개월 간의 항쟁은 일제를 전률케 하였다。

조선 인민들이 평화적 시위로부터 시작한 독립운동에 대하여 일제는 그 첫날부터 무차별 학살로 응답하였다。 전조선은 애국 인민의 피로 물들여졌다。 수원에서 진행된 학살을 비롯하여 십자가형、총살、다메시기리 (일본놈들이 자기 칼 맛을 시험하느라고 사람을 찍어 죽이는 것) 가 범상한 사실로 진행되었다。 일제의 통계에만 의하여도 이 운동에서 二만三천여명의 사상자가 났고 五만二천여명이 검거되었다。

一九一九년의 조선 인민의 대봉기에서 질겁한 일제는 더 야수적 전면적 학살에 광분하였다。 一九二〇년 소위 「경신 토벌」이 그것이다。 그들은 현경만이 아니라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륙해군도 총동원하여 조선 인민의 학살을 진행하였다。 이 대 학살 토벌은 비단 조선 내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있는 곳마다—만주에서와 쏘베트 연해주에서도 그들의 무력 침공과 함께 전개되였다。 일제의 이 해 학살 수는 발표되지 않아 명확한 숫자는 모르나 수십만에 달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일제의 탄압 밑에 三·一 운동은 진압되었다。

× × ×

三·一 운동은 실패하였다。 이 실패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 조건들을 지적할 수 있다。

一、당시의 조선 봉건 사회 발전의 력사적 제한성으로 프로레타리아트는 다만 자기 발전의 시초에 있었으며 그들의 혁명적 세계관은 매우 미약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대중적 계급으로 출현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에게는 전위대로서의 근로계급의 정당이 없었다。 때문에 해방 투쟁의 명도력을 구성하지 못하였고 방대한 근로 대중의 혁명적 력량을 조직 명도할 수가 없었다。 맑쓰는 일찌기 「모든 피착취 계급이 착취로부터 해방되려면 선진적 계급—로동 계급의 명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三·一 운동이 자연 발생적 투쟁에 그

치었던 사실은 그 실패의 근본 원인의 하나로 된다。三•一운동에 있어서 인민 대중은 자연 발생적 운동으로서 폭동에 전환되였으나 그를 령도할 참모부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二、전국적으로 일어난 대중 폭동을 혁명의 기본 수단으로 되는 무장 폭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하였다。당시 十만의 정규군과 二十만의 경찰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 적수 공권으로 대항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그리고 국외의 무장 투쟁도 직접 국내 운동에 합류되지 못하였다。쓰딸린은 一九〇五년 로씨야 혁명의 경험에서 「참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위하여서는 세가지가 필요하다。첫째로 무장해야 하며 둘째로 무장해야 하며 셋째로 무장하고 또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었다。

三、三•一운동에 있어서 최초 지도의 위치에 선 소위 지도층은 소부르죠아 지식층으로서 그들은 운동을 혁명적으로 전환 추진시키려 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무저항적 비투쟁 방식으로 즉 평화적으로 독립을 달성하려고 기도하였다。그들은 다만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였을 뿐 곧 일본 제국주의에 굴복하고 투쟁에서 리탈하였으며 인민 대중으로부터 변절하였다。선진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미약과 전투적 참모부를 가지지 못한 대중의 운동은 분산적으로 되고 말았다。

四、혁명의 위기가 조성된 조선의 조건에서는 반드시 이 운동을 반제 반봉건 투쟁과 결부시켜야 할 것이었다。절대 다수의 농민 대중을 혁명에 인입시키려면 봉건적 잔재 세력을 타도하는 즉 토지 사유제와 지세 폐지를 요구하는 농업 강령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었다。그러나 당시 三•一운동의 슬로강에는 「조선 독립 만세」의 구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민족 해방과 함께 토지 문제의 해결이 제기되지 못하였던 사실은 농민 대중을 혁명 운동에 적극 진출시키지 못하였다。이렇게 민족 해방 투쟁과 토지를 위한 투쟁과의 결합 요소가 전혀 결여되었던 사실은 三•一운동 실패의 근본적 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실패 원인의 외적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一、三•一운동 당시는 국제 정세는 불리하였다。위대한 로씨야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영향에 세계 식민지 반식민지의 혁명 운동은 앙양되었고 새 혁명적 계단에 있었으나 젊은 쏘베트 공화국은 외래 제국주의의 무장 간섭으로 가장 곤난한 형편이었다。때문에 당시에 있어서는 조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하여 줄 아무 국제적 력량도



없었으며、또 제一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신흥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 인민에게는 큰 적이 아닐 수 없었다。

二、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는 종주국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당시 일본 프로레타리아트는 아직 조직적으로 강하지 못하였고、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적 진출이 미약하였으며、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였다。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는 모든 힘을 조선 인민의 학살에 돌릴 수 있었다。

× × ×

비록 운동은 실패에 돌아 갔으나 이 운동은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적 발전에 큰 교훈을 주었다。

첫째로 三•一운동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기의 민족 해방 투쟁이었다。조선 인민은 三•一운동을 통하여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서의 민족 해방 투쟁의 첫 경험을 가졌다。

「十월 혁명은——쓰딸린은 쓰기를——새 시대를、세계 피압박 약소국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도밑에 종주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으로써 수행되는 식민지 혁명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여러 식민지와 예속국에 대하여 평온 무사하게 착취하고 압박하던 시대는 지났다。여러 식민지와 예속국에서의 해방적 혁명의 시대、그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궐기 시대、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시대가 닥쳐 왔다」라고 하였다。

조선 인민은 十월 혁명의 길을 따라 혁명에 궐기하였다。피의 三•一봉기는 조선 인민에게 十월 혁명이 열어 놓은 새 시대、식민지 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 인민은 十월 혁명이 승리한 나라 쏘베트 공화국만이 약소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반일 해방 투쟁에서 진실한 동맹자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다。실지에 있어 쏘베트 극동 지방에 거주하던 조선 사람들은 쏘베트 주권으로부터 토지와 자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일의병 투쟁에서 실제적 방조를 받았으며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식민지 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일제 무장 간섭자들에 대하여 공동 전선을 취하였다。붉은 군대의 영용한 투쟁은 일제 무장 간섭 군대를 단시일 내에 국외로 구축하였다。조선 인민들은 이에서 일본에 대한 승리의 자신심을 가질 수 있었다。이때로부터 쏘베트 극동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 뿐만 아니라 국내외 선친적 독립 운동자들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위대와 쏘베트 로씨야의 영웅적 투쟁은 조선 인민이 자기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원천으로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일찌기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조선 빨찌산들은 자기들에 대한 투쟁을 중지하고 조선에 돌아가 일제와 투쟁하라는 백파(白派)들의 요구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우리 조선 사람들은 로씨야 인민의 원쑤로 되어본 일이 없었으며 또 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들은 영원한 친우로 있었으며 또 있을 것이다. 당신들 일본의 동맹자들은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구실로 삼는 일본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시오. 그 때에는 당신들도 또한 우리의 원쑤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속히 당신들을 뚜드려 부시면 부실쑤록 일본의 성공에 대한 희망은 그만큼 적어질 것이며, 그만큼 속히 로씨야 공화국은 부강하여질 것이며, 그만큼 조선 해방도 속할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十월 혁명과 극동에 있어서의 공민 전쟁)라고 하였다.

조선 인민은 三·一 운동을 통하여 당시의 여론에서 복미 합중국의 지원에 대한 희망은 떼어 놓아 버렸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적인 해방의 환상을 스스로 집어치울 수 있게 하였다. 三·一 운동에 있어서 반역적 영향을 준 윌손의 평화 十四원칙의 정체가 폭로됨으로써 조선 인민들은 다만 쏘베트 공화국만이 식민지 약소 민족들의 벗이며 옹호자이며 해방 투쟁의 진정한 지원자라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둘째로 피의 三·一 항쟁은 조선 민족의 혁명적 각성을 제고시키였으며 반일 투쟁에 나선 인민 대중에게 준엄한 시련으로 되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들은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과 그의 주구 친일파 매국노들이 조선 민족은 렬등하며 조선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명토가 적기 때문에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반동적 기만성을 폭로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통치가 조선 인민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일제의 허위 선전을 폭로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은 무력로 조선을 점령하고 군사 테로로 인민을 강압하면서 여론을 돌리기는 「조선은 일본의 황은에 감복하고 있다」고 하였던 것이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영향은 일본 자체 내에서 장성하는 프로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 기반을 뒤흔들게 하였으며 조선 인민들을 반일 투쟁에로 궐기시켰다. 조선 인민들은 투쟁을 통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일제와 야합한 친일과 매국 여노들과 친일적 자본가들에 대한 증오를 일층 깊게 하였으며 그들과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셋째 三·一 운동을 통하여 민족적 각성과 더불어 근로 대중 특히 로동 계급의 계급 의식이 자라났으며 이것은 투쟁을 통하여 로동 계급이 농민 계급과의 협동,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의 형성을 로대 지어 놓았으며 운동 행정에서 조직된 인민들은 장차 대중 단체 조직의 기초를 이루었다.



인민들은 투쟁을 일부 정객(政客)들에게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전민족이 일치 결속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그 핵심으로는 근로 계급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로동자 농민은 투쟁에서 가장 혁명성을 보이었으며 반면에 민족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계급적 리해 때문에 투쟁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로동 계급의 계급 의식의 제고는 민족 해방 투쟁의 높은 발전, 프로레타리아트 령도 하에서 민족 해방 투쟁 진행의 기초를 이루어 놓았다.

三·一 운동에서의 피의 세례는 三·一 운동 이후 진행되는 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과 그의 주동적 역할과 관련된다.

넷째 三·一 운동을 통하여 조선 인민들은 적 일본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그를 타승하고 해방과 독립을 전취하려면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그는 운동의 실패 원인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결론이니 즉 이 운동을 조직하고 령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선봉적 조직인 정당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 대중의 전위적 정당의 결여는 운동에서 산만성을 보이었으며 운동 실패의 제일 큰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이러한 력사적 교훈을 남긴 三·一 운동은 조선 해방 투쟁사와 동방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 사상에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三·一 운동은 十월 혁명이 열어 놓은 프로레타리아 혁명 시대, 식민지 혁명 시대에 일어난 조선 민족의 첫 조직적 대규모의 해방 투쟁, 거족적 피의 항쟁으로써 적 일본 제국주의를 진감케 하여 군사 테로를 자랑하던 그들도 할 수 없이 표면상으로나마 조선 인민에 대한 그 정책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일시적으로라도 조선 인민들의 사회 정치적 자유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것은 제한된 것이나 피로써 전취한 것이요, 조선 민족 해방 투쟁에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三·一 운동은 식민지 반식민지 해방 운동에 충동을 주었다. 조선 인민과 같이 일본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에 신음하던 중국 인민들도 조선의 三·一 운동에 뒤이어 一九一九년 五월 四일 반제 반봉건 투쟁—五·四운

중의 봉화를 올렸다。(화강(華崗) 저 중국 민족 해방 투쟁사 제一권 一九〇페지 참조)

三・一 운동은 조선 민족 해방 투쟁을 일층 높은 계단에 올려 놓았으며 조선 민족의 반일 사상을 일층 강화시켰다。

三・一 운동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은 조선 무산 계급으로 하여금 자기의 혁명적 당이 없이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기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없으며 식민지 무산 계급의 처지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 로동 계급의 전위대인 공산당이 없이는 잔인 무도한 일제와 투쟁할 수 없으며 기회주의적이며 투항주의적인 개량주의적 민족주의자들과 투쟁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그 준비를 진행하였다。

一九二〇년부터 사회주의 사상 단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정치 결사들의 활동은 무산 계급 투쟁과 결부된 대중 단체의 조직 활동파 불가분적으로 배합되어 로동 운동의 앙양을 가져왔다。

一九二四년 四월 근로 대중의 전국적 통일 기구로서 「조선 로농 총동맹」을 조직하였다。 이와 합께 조선 민족 해방 운동 진영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조선 무산 계급 운동은 一九二〇년 이후 一九二四년 봄에 와서 자기의 명도 하에 각부문에 걸쳐 대중 단체의 조직 전개로부터 그들의 전국적 통일 기구를 승리적으로 형성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 一九二五년 四월 조선 무산 계급의 진보적 분자는 로동 계급의 조직적 토대 위에서 조선 공산당을 창건하였다。

조선 무산 계급은 당의 기빨 밑에 굳게 결속하여 조직적인 반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거쳐 대륙 침략을 그 일정에 올린 시기 一九三〇년대에 와서는 조선 로동 운동은 일층 앙양되었다。 一九二九년의 원산 총파업은 전국적 지지 밑에 진행되었으며 파업 로동자 수는 二천여명에 달하였다。 이 파업을 계기로 하여 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적 공세는 일층 강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농민 운동도 비상히 앙양되었다。 一九二九년 二천여명의 농민을 궐기시킨 불이농장 소작 쟁의를 비롯하여 전국 각처에서 료원의 불길같이 일어난 소작 쟁의들는 전 농민 대중을 지주에 대한 투쟁에로 궐기시키었다。

로동자 농민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수적 강압 학살에도 굽히지 않고 갖은 투쟁 형태로써 대항하였다。

세계 파시스트들의 진출이 로골화한 一九三一년 동방의 파시스트 일제는 안으로 파시스트 독재를 수립하여 인민들을 탄압 교살하고 밖으로 외지



침략 ― 만주 사변 ― 을 일으키였다。

조선의 로동자 농민, 조국의 우수한 아들 딸들은 린방 민수 세력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김일성 장군의 빨찌산 부대에 직접 참가 또는 구지도 밑에 국내 국외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국제 민주 전선의 일익을 담당하여 투쟁하였다。

인민들의 투쟁은 위대한 쏘련의 진정한 원조로써 승리하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들은 다른 나라 인민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옹호하는 쏘련의 직접적 방조 밑에 반일 빨찌산의 지도자였으며 조선 민족의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치어 민주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하여 인민 정권을 받들고 민주 개혁과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늘 해방된 조선을 또다시 미제의 식민지화하며는 매국 역적 리승만 도당이 제아무리 발광적으로 애국 인민들을 학살 투옥하더라도 조국을 지키는 인민들의 거족적 항쟁, 빨찌산 투쟁은 날로 확대 강화되고 있으며 리승만 도당을 과멸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다。

조선 인민는 자기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창건하였으며 국제 민주 세력의 성벽 쏘련을 비롯하여 날로 성장 승리하는 국제 민주 진영의 지지를 받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그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주위에 결속하여 조국 통일의 결정적 승리를 향하여 총돌진한다。

# 조선에서의 인민적 민주주의 발전

## 一、인민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제조건

제二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직후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조선 근로 인민 대중은 자기의 창발적 의사에 의하여 인민위원회를 창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창발적 운동은 남 북 조선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운동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랜 력사를 걸쳐 국내 및 외래 반동 세력의 통치 하에서 신음하여 온 조선 근로 대중은 자기의 실지 생활 체험으로써 반 인민적 반동 세력을 증오하여 왔으며 그와 함께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할 수 있는 정권 기관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의사대로 창설하여야 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력량이 근로 인민 대중 속에서 강대해졌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리 문 일

조선 인민에게 이루어진 이와 같은 투쟁 력량은 사연 생장성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일제를 반대하는 애국 선렬들의 투쟁과 위대한 쏘련의 사회주의적 민주 제도 건설의 영향에 의하여 장성된 것이다。

조선 인민의 이러한 투쟁 력량은 조선에서의 인민적 민주주의 발전의 정치적 력량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해방 후 북조선에 조성된 모든 환경이 인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 북조선에 진주한 쏘련 군대는 첫날부터 조선 인민의 의사를 받들어 진정한 인민의 정권 기관인 각급 인민위원회의 공고 발전과 제반 민주 개혁 실시에 성의있는 원조를 주었다。

쏘련 군대는 「우리의 목적은 그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며, 다음에는 그들의 소원대로 자기의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한 쏘련의 성명과 또한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이제는 모두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라고 한 치쓰쨔꼬브의 포고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것은 레닌—쓰딸린적 민족 정책에 립각한 위대한 쏘련의 내외 정책의 구체적 표현인 것이다。



해방된 조선 인민들의 인민적 조선을 건설하려는 투쟁 력량은 고도로 강화되었다。 이 투쟁 력량은 김일성 장군의 올바른 령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 발전되었다。

一九四五년 十월 十삼 전 조선 인민이 경애하는 전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 영웅인 김일성 장군이 평양에 입성하였다。 十월 十四일 장군을 환영하는 평양 시민 대회에서 김일성 장군은 조국의 진로를 명시하는 자기의 력사적 연설에서 「조선 민족은 이제로부터 새 민주 조선 건설에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하겠다。 어떤 당파나 개인만으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 로력을 가진 자는 로력으로, 지식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완전히 대동 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전 인민에게 고하였다。

김일성 장군의 이 명시는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에 기초하여 조선의 장래 발전을 예견한 것이다。 즉 「새 민주 조선 건설에 힘을 합하여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한 명시는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에 조성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 민주 조선」 다시 말하면 인민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 조선을 건설할 수 있으며, 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현재 조선에서의 「인민적 민주 조선」 건설은 제二차 세계 대전의 결과에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국에 수립된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일련으로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어떤 당파나 개인만으로는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한 명시는 인류 사회 발전은 개별적인 탁월한 인물, 어떤 「영웅」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투쟁 력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맑쓰—레닌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로력을 가진 자는 로력으로, 지식있는 자는 지식으로,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라고 한 명시는 조국과 민족의 리익보다 자기의 사리를 높이 평가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동 부르죠아 지주 층을 제외하고는 각계 각층 인사들이 인민적 민주 조선 건설에 다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해방된 조선 인민은 쏘련 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하게 된 유리한 환경 속에서 김일성 장군의

金비론 멍도 밑에 제반 민주 개혁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민적 통일 민주 조선을 승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군사 정치 경제 및 문화적 기초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인민적 민주 조선 건설에 있어서 미제의 침략 정책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장애를 받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도 근로 대중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아직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일본 군경의 발광적인 저항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군 상륙 이전에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지역에 인민들의 창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미국 군대가 九월 八일에 남조선에 진주하면서부터 정세는 일변하였다. 인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미군정의 탄압으로 인민위원회는 자기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다하지 못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에 유린되었다.

그러나 인민의 창의는 영영 죽지 않았으며, 영영 죽을 수 없는 것이다. 그의 구체적 례로서는 반 인민적인 리승만 괴뢰 집단을 타도하기 위한 남반부 인민들의 무장 항쟁이 날로 드높아 가고 있는 그것이며, 그와 함께 무장 투쟁의 결과에 해방되는 구역에 인민위원회가 복구되는 사실이 곧 그것이다.

## 二、二十개 정강에 기초한 제반 민주 개혁 실시와 인민경제 발전

우리 민족의 령도자 김일성 장군은 조국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가르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강령으로서 二十개 정강을 발표하였다. 이 二十개 정강에는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로선이 표현되어 있다.

二十개 정강은 장군이 친히 령도한 재만 조선인 조국 광복회의 十대 강령을 발전시킨 것이다.

十대 강령 제一조에는 「조선 민족의 총동원으로서 광범한 반일 통일 전선을 실현함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전복하고 진정한 조선 인민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라고 기입되어 있으며, 제四조에는 「일본의 모든 기업, 은행, 철도, 선박, 농장, 수리 기관 및 매국적 친일 분자의 전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여 독립 운동의 경제에 충당하며, 일부분은 빈곤한 인민을 구제할 것이다」라고 기입되어 있다.

이 十대 강령은 조선 민족 해방 운동 력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강령이었으며 해방후 인민적 민주·조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초로 되는 강령이었다.

十대 강령 제一조와 제四조에 표현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강령의 근본 목적은 진정한 민주 조선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일본 국가 및 일본인과 친일 분자들의 소유로 있던 산업, 운수, 금융 기관, 및 토지를 몰수하여 인민과 사회의 소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十대 강령은 정치, 경제, 문화 및 대외 정책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있는 인민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의의는 실로 심대한 것이다.

해방 후에 발표된 二十개 정강은 일제 통치가 전복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장악된 오늘의 주객관적 조건에 비추어 十대 강령이 구체적인 형태로서 발전된 것이다. 二十개 정강과 十대 강령을 대비하여 깊이 연구하면 그의 발전상을 잘 알 수 있다.

二十개 정강은 제二차 세계 대전후 새로 조성되는 국제 및 국내 환경에서 실천화할 수 있는 조선 근로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十대 강령은 조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기본 방향이며 근본적 요구이었다면 해방후에 있어서의 二十개 정강은 진정한 인민적 민주 조선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조선 인민 대중의 기본 방향이며 근본적 요구이었다. 「이상에 지적한 제 근본 요구 조건을 실행하여야만 조선 인민이 진정한 자유, 정치적 권리 및 복리 향상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 국가의 자유 독립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한 김일성 장군의 언명은 二十개 정강의 진정한 인민 민주주의적 성격을 명백히 표현하였다.

二十개 정강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북조선 지역에서는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조선에서의 봉건 제도의 관계는 토지 문제에 많이 남아 있었다. 八○%의 농민이 소작인, 반소작인, 고용 농민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철저한 토지 개혁 실시는 인민적 민주 조선 건설에 있어서 초석으로 되었다.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의 력사적 의의는 一九四六년 四월 十三일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제一차 확대 위원회에서 진술한 김일성 장군의 「토지 개혁 총결 보고에 대한 결론 요지」에 똑똑히 나타나고 있는바 장군은 동 결론에서 「북조선에 있어서 실시된 토지 개혁은……조선의 봉건 제도를 없애 버리고 민주주의적으로 조선을 발전시킬 첫 기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 토지 개혁은 김일성 장군이

동 결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동원 하에 실시되었다. 다시 말하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 자본가, 지주 계급을 제외한 각계 각층의 열렬한 지지 속에 실시되었다.

토지 개혁이 실시된 결과에 북조선의 농촌 경리는 근본적으로 개변되었다. 토지 개혁 이전의 실상을 본다면 토지는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자와 그와 야합한 토착 지주가 소유하고 이것을 농민이 세분 경작하여 소작료 및, 기타로 혹독한 착취를 당하였다. 여기에 대한 숫자를 본다면 一九四三년도 북조선 총경지 면적이 一, 九八二, 四三一정보이었는데 총농가 호수의 四%에 불과한 지주가 五八·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농촌에서의 봉건적 착취 제도를 숙청하는, 극히 단기간에 실시된 토지 개혁 결과에 일본 제국주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및 五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진 지주 등의 토지 九六三, 六五七정보를 무상 몰수하여 六十만호의 땅이 없고 땅이 적은 농민과 고용 농민들에게 무상 분여하였다.

철저한 토지 개혁의 실시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급격히 촉진시켰으며, 따라서 공업 발전에 커다란 계기로 되었고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인 농민을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 대책으로 되었다.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 개혁은 그의 경제적 정치적 의의로 보아 실로 토지 혁명이었다.

토지 개혁에 뒤이어 중요 산업 — 교통 운수, 체신, 광산, 은행 등이 국유화되었다. 중요 산업 국유화는 一九四六년 三월 二十三일 김일성 장군이 발표한 二十개 정강을 구체화한 가장 큰 민주 과업의 하나이었다. 중요 산업 국유화는 김일성 장군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민주화의 도정에 있어서, 또는 조선의 자유 민주 국가 건설의 도정에 있어서 중대한 새로운 한 걸음으로 되었다.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에 의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통치하던 동안 조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조선의 공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값싼 로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또는 조선에서 공업 원료를 강탈할 목적으로, 또는 일본 자본가들이 리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시설하여 놓은 일체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과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들에게 속하였던 일체 산업을 국유화하여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다. 전 인민의 절대한 지지 속에 중요 산업이 국유화된 결과에 九○% 여자의 산업 비중을 차지하는 一, ○三四개소의 산업 기관이 국유화되였다. 이와 같은 산업 국유화는 인민적 새 민주 조



선 건설의 경제적 기초를 구축함에 있어서 결정적 대책의 하나로 되었다.

경제 부문에 대한 민주 개혁이 성공적으로 실시된 다음에는 정치 문화 사회 생활에 대한 진정한 인민적 민주 개혁이 실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다수의 조선 인민들의 열성적 참가 하에 이전 착취 계급과 친일파 및 민족 반역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극히 짧은 기간에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 생활 등 각분야에 걸쳐 성과적인 일대 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런 개혁이 실시됨으로써 낡은 사회의 일체 봉건 잔재와 일제 잔재를 숙청하고 새로운 사회, 새 민주 조선을 건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었다. 이런 의미로 보아 해방 후 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개혁들은 실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경제 부문에 대한 민주 개혁이 실시된 결과에 현재 조선 인민 경제는 四개의 요소, 즉 국가 경제 요소, 협동 조합 경제 요소 (소비조합, 생산 합작사),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 (상업가 기업가), 소상품 경제 요소 (농민 수공업자) 로 구성되어 있다. 四개의 경제 요소 중에서 국가 경제 요소가 인민 경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패망 직전의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고혈로된 수다한 공장 광산 기업소들을 무참히 파괴하였다. 그들은 북조선에 있는 청진 제철소, 평양 비행기 공장, 수풍 발전소 등 六개의 대 기업소와 중요 시설들을 파괴하였으며, 전체 기업소들을 침체시키였으며, 六四개의 탄광과 광산을 침수시키였으며, 기타의 많은 중요한 분공장들을 방화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八·一五 직후 북반부의 전 생산 능력은 거의 침체상태에 빠져 있었다.

북반부 인민들 앞에는 파괴된 공장 시설들을 급속히 복구할 뿐만 아니라 새로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며, 일제가 남겨 놓은 조선 산업의 식민지적 기형성과 편파성을 단시일 내에 숙청하고 인민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경제적 기초를 구축하는 임무가 제기되었다.

쏘련 군대가 진주한 유리한 조건과 김일성 장군의 옳바른 령도 밑에 인민들은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을 위한 건설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에 一九四六년도에는 이미 많은 공장, 광산, 기업소들이 복구되어 동년말부터는 비교적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인민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킬 목적으로 一九四七년 二월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는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 계획의 예정 숫자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 계획의 수립은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이 실

시되고 정권이 인민에게 장악된 조건에 의하여 가능하였던 것이다.

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 계획은 산업 생산량을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배로 제고할 것이며, 운수 및 철도 부문을 개선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운행을 보장할 것이며, 농촌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로동자 사무원들의 요구를 수응할 것이며, 농민들의 필수 공업품에 대한 요구를 수응할 것이며, 상품 류통을 강화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국가 상업망과 소비조합 상업망을 확장하며 그와 함께 개인 기업과 상업의 발전 등을 예정하였다.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 계획은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 증산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완수되었다. 산업 부문의 一〇二·五% 초과 완수를 비롯하여, 농업 부문 파종 면적은 一〇〇·四%로 초과하였고, 대단한 수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十八만톤의 량곡을 증수하였고, 철도 화물 수송 계획은 기한보다 三개월 단축하여 완수되었고, 산업 생산량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二六%로 장성되었고, 상품 류통은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九배로 장성되었다. 그리고 황해 제철소의 해탄로와 용광로, 성진 방직 공장, 흥남 인민 공장, 성진 제철소 등의 복구를 비롯하여 일제가 파괴하여 놓은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경제 기술 일꾼들을 양성하는 대책이 성과있게 실천되어 민족 경제 건설의 기술적 기초가 강화되었다. 민족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 경제 기술 간부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쏘련의 성의있는 원조가 막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종 공업품 생산과 농산물 생산의 장성에 의하여 인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인민 정권의 저물가(低物價) 정책에 의하여 시장 물가가 안정되었고, 신구 화폐의 교환에 의하여 금융 재정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것이 첫 계획적 경제에 의하여 조선 인민의 손으로 하여금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다.

一九四七년도 계획적 인민경제의 승리는 앞으로의 인민경제의 발전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그러나 산업의 식민지적 기형성은 아직도 잔존하였으며 복구 건설되지 못한 산업 부문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 계획은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만 할 뿐 아니라 공장 시설을 더욱 확충하며 기계와 기구, 기계 부속품의 생산을 증가함으로써 산업 총생산액은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四一%, 로동 생산률은 一四七%로 향상시킬 것이며, 각공장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를 확립하며, 생산품의 질적 향상과 아울러 생산 원가를 저하시킬 것이며, 농업 경제에 있어서는 경작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식량 생산과 공예 작물 재배를 증가시키며, 농업 생산의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운수 부문에 있어서는 철도 화물 수송량 연거리(延距里)를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一六二%로 향상시킬 것이며, 상업 부문에 있어서는 국가 및 소비조합의 상품 류통을 一九四七년에 비하여 一五八%로 제고할 것 등을 예정하였다.

두번째로 실시되는 계획적 인민경제는 一九四七년의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여 더욱 승리적으로 완수되었다.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 계획은 흥남 비료 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一개월 단축 실행 운동에 호응한 전체 근로 대중의 증산 투쟁에 의하여 대개 기한 전에 완수되었다. 三·四분기 중에 이미 년간 계획을 완수한 기업소가 二十二개소에 달하였으며 十一월 말까지에는 九〇여개소의 기업소에서 년간 계획을 완수하였다.

한편 평양 화학공장, 평양 기구 제작소, 풍영 발전소 등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복구되었으며, 강서 전기 제작소, 청수 화학 공장, 석탄 질소 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었다. 그리하여 국영 산업 부문에 있어서 총생산 계획은 一〇二·九%로 초과 완수하였으며, 각 공장 기업소의 독립 채산제가 확립되었으며,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중요 공업 제품들을 생산하였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파종 계획 一〇〇·五%, 수확고 계획 一一三%로 초과 완수되었으며, 공예 작물 생산이 급격히 장성되었다.

운수 부문에 있어서는 철도 화물 수송 계획이 一〇〇·九%로 초과 완수됨으로써 생산과 상품 류통이 원활히 보장되었으며, 특히 평원선과 만포선의 일부 전기화는 앞으로의 철도 전기화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다.

상품 류통 부문에 있어서는 국가 및 소비조합 상품 류통 계획이 一三一·八%로 초과 완수되었으며, 상업망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시장 물가는 저하되었으며,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다.

一九四七년 一九四八년 二차에 걸친 계획적 인민경제의 승리적인 성과에 기초하여 一九四九—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이 수립되었다.

二개년 인민경제 계획은 이미 달성한 경제 수준을 더욱 발전시키며 공업과 농업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물질적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며 자주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산업 부문에 있어서 제철、제강、기계、기계 부속품、조선업、화학 공업、철도、자동차 운수업 및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산업의 자립성을 확립하며、특히 금속 공업、기계 공업 및 경공업 생산을 발전시키어 국영 산업 총생산액을 一九四八년에 비하여 약 二배로 장성시킴으로써 각 생산부문은 전체적으로 一九四四년의 생산 수준을 릉가할 것이며、농업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벼를 비롯한 각종 곡물의 파종 면적과 경지 면적을 확장함으로써 수확고와 공예 작물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며、상업 부문에 있어서는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풍족히 공급하며、상품 류통을 일층 원활히 하며、물가를 더욱 저하시킬 것이며、생산 조직과 로력 조직을 합리화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과 로동의 실질적 임금을 제고시킬 것이며、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 있어서 一九五〇년도부터 초등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며、인민 보건 사업을 일층 발전시킬 것을 예정하였다。

一九四九——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국토 완정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전체 근로 대중의 고도로 앙양된 애국적 열성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각 공장、기업소들에서는 증산 경쟁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一九四九년 상반기의 생산 실적은 一九四八년도 상반년에 비하여 거대한 장성을 가져왔다。국영 산업의 총 생산고는 一三四·八%로 장성되었는데 그 중 특히 기계 공업 부문은 二三二·四%、경공업 부문은 一六九·四%로 각각 증가되었다。 이는 자주적 경제 토대를 확립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급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을 과업으로 하는 二개년 계획이 승리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산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이 조직적으로 전개된 결과에 계획 원가보다도 三·三%가 더 저하되었고、인민 경제적 축적은 강화되었고、기본 건설 공사가 수풍땜 에프롱 공사를 비롯하여 성과있게 진척되고 있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기상 조건이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애국적 창발성과 증산 투쟁에 의하여 춘기 파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축산업、림산업、수산업 등에서는 一九四八년 상반기에 비하여 거대한 장성을 보았다。

운수 부문에 있어서는 철도 화물 수송량이 一四



九·七%로 장성되었으며 해운 수송은 더욱 높은 장성을 보았다。운수 부문의 발전은 앞으로 계속하여 인민 경제의 수송 요구에 원활히 수응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였다。

상업 부문에 있어서는 국가 및 소비조합의 상품 류통고는 一九四八년 상반기에 비하여 一·六배 이상으로 장성되었으며 상업망은 一·六배로 장성되었다。

한편 로동 임금은 로동의 질과 량에 의한 보수 원칙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데 一九四九년 二·四분기중 국영 산업 부문 전체 종업원에 대한 一인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同期)에 비하여 一六·六% 더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타 사회 문화 보건 부문에 있어서도 상반년 계획은 성과적으로 수행되었다。

진정한 인민적 민주 제도가 수립된 북조선에서는 이와 같이 계획에 기초한 인민 경제가 공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국가 경제 부문과 함께 개인 기업 상업 부문이 자유롭게 발전되고 있다。

우리 국가는 국가 경제 요소와 협동조합 경제 요소는 물론 사유 자본도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반 국가 시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 장군은 일찌기 말하기를「인민을 위하여 상품의 수량을 증가시키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업에서 조선 기업가들과 상업가들의 자유 자본의 발전을 억압하지 말고 장려시키며、중소 기업의 발전을 백방으로 장려시켜야 될 것을 명백히 아는 바입니다」(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결성 대회 연설에서)라고 하였다。

협동조합 경제는 인민들의 물질 생활 수준을 제고시키는 의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협동심 또는 단합심으로 교양하는 중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협동조합 경제는 아직 발전의 첫 단계에 처하여 있다。 협동조합 경제를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 요소를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다。

### 三、인민적 국가 기구 강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레닌이 일찌기 지적한 바와 같이 혁명의 기본 문제는 주권에 대한 문제이다。 일제 통치의 낡은 국가 기구가 파괴되고 해방된 조선 인민 앞에는 전복된 착취 계급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진정한 인민의 리익을 고수할 수 있는 국가 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새로 창설되는 국가 기구는 어느 한개의 계

급 그루빠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계급 그루빠로 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김일성 장군은 예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의 통일 전선에 기초한 국가 기구만이 새로 조성되는 국제 및 국내 환경에 있어서 공고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기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권에 대한 레닌의 학설에 기초하여 김일성 장군은 해방 후 정세에 비추어 각계 각층 계급 그루빠 대표가 참가하는 진정한 인민 국가 기구로서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一九四六년 二월 八일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결성을 위한 각계 각층 대표가 참가한 대회 석상에서 김일성 장군은 말하기를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各局)、각 인민위원회、각 민주주의적 정당 및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수립의 필요성을 아주 명백히 리해하고 있으리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본 회의에서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조직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여 자기들의 의향을 언명하며 적당하고 구체적인 결정이 있기를 제의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제기되었다。 이 때는 국가 기구가 정비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전 착취 계급은 정권을 획득하려고 책동하고 있었으며、중간 동요 분자들은 자기가 나갈 길을 확정하지 못하고 반동과 민주 진영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 기구를 정비함으로써 근로 대중은 물론 중간층까지 그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것은 인민 정권 강화 발전에 대하여 결정적 의의가 있었다。

새로 구성되는 국가 기구는 이미 김일성 장군이 예견한 바와 같이 광범한 계급 그루빠에 기초하여야 될 것이었다。

우리 정권은 친일파、민족 반역자、대자본가、지주를 제외한 광범한 계급을 대표하는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 우리 정권은 진정한 인민적 정권인 것이다。

인민적 국가 정권이 광범한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는 것 만큼 통일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만이 국가 정권을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 전선 강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북조선에 있어 통일 전선의 조직 강화 및 발전에 있어서 북조선 로동당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조선 로동당을 선두로 하여 북조선 민주당、북조선 천도교 청우당、북조선 직업 총동맹、북조선 농민 동맹、북조선 녀맹、북조선 민청、조쏘 문화 협회、북조선 예술 총동맹、북조선 불교 총무원、북조선 소비조합、북조선 반일 투사 후원회、북조선 교육 문화 후원회、



북조선 공업 기술 총련맹、북조선 보건 련맹 등 제정당 사회단체로 결성된 북조선 민전은 국가 정권의 시책을 실천함에 있어 적극 방조하였으며 그의 주위에 인민 대중을 결속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력사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일찌기 김일성 장군은 통일 전선의 역할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우리 앞에는 우리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그 기초로 하는 인민위원회 사업을 더 향상시키며、더 공고화하며、강화하는 임무가 엄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 중앙위원회는 응당 최대의 관심과 로력으로써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하며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一九四六년 七월 二十二일 북조선 민전 위원회 결성 대회 연설에서)。 이와 같이 김일성 장군은 인민적 국가 정권 강화 발전에 있어서 통일 전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실지 생활 체험으로써 통일 전선 강화의 기초에서 만이 국가 기구를 강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一九四六년 二월 八일 지방 인민위원회와 광범한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합 대회에서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한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가 창립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는 인민의 력량을 집결하며、일제 통치의 악독한 잔재를 숙청하며、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며、인민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제반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다。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는 이미 수행한 제반 민주 개혁을 더욱 공고화하며 민주주의적 통일 전선의 기초 위에 각급 인민위원회를 강화하며 자유스럽고 부강한 민주 조선 독립 국가를 건설할 것을 자기의 프로그람으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북조선 인민들은 一九四六년 十一월 三일 민주주의적 선거 방법에 의하여 자기의 대표들을 각급 정권 기관에 선발하는 도·시·군 인민위원회를 법적 기관으로 고정화하는 선거 사업을 실시하였다。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법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써 실시되였는데 그 선거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면 모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였다。 선거자 총수 四、五一六、一二〇명 중에서 투표에 참가한 자의 수가 四、五〇一、八一三명으로 九九·六%가 투표하였으며 민전 립후보자에게 찬성 투표한 수는 四、三六九、四二八명으로서 총유권자 수에 비하여 九七%가 찬성 투표하였다。 이와 같이 북조선 각급 인민위원회는 진정한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 절대 다수의 유권자들의 찬성 투표에 의하여 창립되었고 또는 강화 발전되었다。

一九四七년 二월 十七일 개최된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는 자주 독립의 물질적 기초를 구축하는 一九四七년 북조선 인민 경제 부흥과 발전을 위한 예정 숫자를 통과하고 력사적 위업의 하나인 최고 립법 기관으로서 북조선 인민회의를 선거 창설하였다。

본 대회는 一九四六년 十一월 三일 진정한 민주주의적 선거 방법에 의하여 선거된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 대회에서는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가 과거 一년간에 제정 실시한 북조선 민주 개혁의 기본적인 법령 ―토지 개혁 법령, 산업 국유화 법령, 로동 법령, 남녀 평등권 법령 등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제一차 북조선 인민회의는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장군의 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사업 보고를 접수하고 열광적 환호리에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조직을 법적으로 승인하였다。

북조선 인민회의, 북조선 인민위원회,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적 선거 방법에 의하여 一九四七년 二월 二十四일과 二十五일, 三월 五일에 걸쳐 면·리인민위원회 선거 사업이 전 인민의 적극적인 참가 밑에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북조선의 각급 인민 정권 기관은 상부로부터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계급 그루빠를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 정권 기관으로서 전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우리의 국가 정권 기관은 그의 계급적 구성으로만 보아서가 아니라 그의 실천 프로그람으로 보아 인민적 정권 기관으로 되는 것이다。

인민적 성격을 가진 국가 정권의 프로그람은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인 농민 계급과의 련계를 밀접히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국가 정권은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의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을 자기의 정치적 기초로 하였다。 국가 정권의 인민적 프로그람은 소부르죠아 상인 및 기타 계층을 로동자 농민의 편으로 이끌었다。

이렇듯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는 인민적 성격을 가진 국가 정권이 강화 발전됨에 따라 계급적 원쑤들의 책동은 극심하여 졌다。 그러므로 국가 기구는 평화적으로가 아니라 맹렬한 계급 투쟁을 거쳐 강화 발전되었다。

이전 일본 통치 계급에 복무하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과 토지 개혁과 산업 국유화 실시에서 자기의 자산을 몰수 당한 이전 유산 계급들은 국내 및 외래 반동 세력과 야합하여 인민적 민주 조선 건설을 파괴하려고 갖은 음모를 다하고 있다。



일찌기 김일성 장군은 인민 민주주의 건설에서의 계급 투쟁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자유적 또는 독립적 조선의 갱생됨에 무엇보다도 인민의 적이 되는 어떤 친일파 또는 반 민주주의 분자들과 맹렬한 투쟁과 반동 세력을 소탕함에 있습니다。그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지도 기관에 변절자들과 반역자들과 타협자들을 두고는 민주주의적 조선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북조선 림시 인민위원회 결성 대회 연설에서) 이와 같이 김일성 장군은 우리의 계급적 경각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맹렬한 계급 투쟁 속에서 국가 기구는 강화 발전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 부르죠아, 지주 계급은 정치적 주권을 상실하였고, 국가 주권은 로동자와 농민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인민 대중이 장악하였고, 중요 산업은 국유화되었고, 토지는 농민에게 분여되었다。 인민 주권은 자기의 프로그람을 실천하기 위하여 튼튼하고도 믿을 수 있는 국가 제도를 수립하였다。

현재 우리 국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비되었다。 인민 군대와 정비대의 무력은 우리가 이미 쟁취한 제반 인민적 민주 건설을 고수할 수 있는 튼튼한 성벽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 치안을 보장할 수 있는 보안 기관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과업은 이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국토는 아직 통일되지 못하였다。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를 분석하며 국토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장래 투쟁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일찌기 一九四八년 四월 북조선 민전의 주최로 남 북 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 련석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동년 六월말과 七월초에 걸쳐 남 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의가 진행되었다。 본 지도자 협의회의는 미군의 총검에 의하여 강제로 실시된 남조선 五·十단선을 무효로 선포하고 남 북 조선 전체 인민의 총선거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을 위한 조선 최고 인민회의 선거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남 북 조선 전체 인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았다。 이 결정에 의하여 一九四八년 八월 二十五일 총 선거가 진행되었다。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남 북 조선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애국적 열성과 희생적 투쟁으로써 진행되었다。 북조선에 있어서는 쏘베트 군대의 적극적 원조와 김일성 장군이 령도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이루어 놓은 자유로운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선거 사업은 승리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조선에 있어서는 조국을 식민지 노예화하는 미 제국주의자와 그의 앞잡이이며 민족 반역자인 리승만 도배들의 인민과 민족을 반대하는 야만적 탄압과 테로와 학살을 감행하는

정치적 정세 하에서 인민들의 과감한 애국적 투쟁으로 진행되였다。 이와 같이 남 북 조선의 판이한 정치적 정세 하에서 진행된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은 남 북 조선에서 각각 다른 선거 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인민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북조선에 있어서는 인구 五만명에 대의원 一명의 비률로써 전체 유권자 四、五二六、〇六五명 중 四、五二四、九三二명 즉 九九·九七%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에서 추천한 립후보자에게 전체 선거 참가자 중 四、四五六、六二一명 즉 九八·四九%가 찬성 투표하여 二一二명의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이와 같이 북조선에 있어서는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평등적 직접적 일반적 선거 방법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원만히 보장된 자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

그러나 반동적 경찰 테로 정체가 수립되어 있는 남조선에서는 대의원 선거를 직접적 공개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의는 이중(二重)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 정세 하에서 가장 적합한 선거 방법이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인 매국노들의 잔인무도한 테로적, 탄압으로써 인민들의 조국의 통일을 위한 선거를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익의 일부가 통일을 위한 애국적 공동 투쟁에서 리탈하며 옳지 못한 비방으로써 통일 선거를 방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적 인민 대중들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 사업에 열광적으로 참가하였다。

남조선 선거자 총수 八、六八一、七四六명 중에서 六、七三二、四〇七명 즉 七七·五二%가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一천八十명의 인민 대표를 선거하였다。 해주시에서 개최된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는 대표 一천八十명 중 一천二명이 참가하여 인구 五만명에 一명의 비률로써 三六〇명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거하였다。

이와 같이 남 북 조선 인민들의 총의에 의하여 진행된 조선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합 五七二명의 대의원이 선거되었다。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거된 조선최고 인민회의는 一九四八년 九월 제一차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의 영웅인 김일성 장군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중앙 정부를 수립하였다。



「남 북 조선 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통일적 중앙 조선 정부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할」(공화국 정부의 정강에서)것을 자기의 유일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손으로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고 인민의 리익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선포하고 인민의 행복된 생활과 조국의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하여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하는 길에 들어섰다。

「이리하여……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 있어서 새 계단을 열어 놓았으며 우리 조국에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조성」(허가이)하였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자기의 정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조선 인민들과 애국적 력량들을 우리 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정치 경제 방면에서 모든 민주주의 력량들을 더 강화 준비함으로써 만이 조국의 신속한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 운동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일체 가능한 조건을 리용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三년 동안에 이미 쟁취한 민주주의적 성과들을 더욱 튼튼히 하며 그를 발전하여 강력한 공화국의 정치 경제 토대를 축성하며 민주주의적 근거지를 확고히 하는 사업을 가장 중대한 과업으로 제기하였다」(공화국 창립 一년에 관한 김일성 수상의 보고에서)

전체 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애국적 투쟁에 총매진하고 있다。

조국의 통일을 촉진할 목적으로 남조선 로동당을 비롯한 남조선 八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미군 철퇴와 조국의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체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력량을 총집결하는「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 제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념원하는 전체 조선 인민과 남 북 조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미군 철퇴와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을 갈망하는 남 북 조선 로동당을 비롯하여 북조선 민주당, 북조선 천도교 청우당, 북조선 직총, 북조선 녀맹, 북조선 민청, 민주 독립당, 인민 공화당, 근로 인민당, 신진당, 사회 민주당, 남조선 전평, 남조선 전농, 남조선 민애청, 남조선 녀맹 등 七十여개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력량이 총집결된「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었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는 우익 좌익 중간파 할것 없이 정견과 견해가 상이한 남 북 조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총망라되어 있다。이렇듯 미군 철퇴와 조국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 각층 조선 인민의 력량이 총집결되어 있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은 조국 통일을 하루 속히 쟁취하기 위하여 평화적 통일을 실천할 것을「남 북 조선의 전체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호소하고 그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국 전선은 자기의 호소문에「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된지 벌써 근 四년이 경과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은 인공적 계선인 三八선으로 분렬된 채 남아 있다。……

누가 우리에게 통일을 방해하는가?

누구의 리익을 위하여 이 분렬이 계속되는가?

우리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며, 인민을 기만하며,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팔아 먹으며, 자기의 미국 상전들의 리익과 자기의 정권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조국과 인민을 망쳐 먹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들의 주구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민족 반역자들은 자기들의 탐욕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원히 계속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조국의 통일 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될 때가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비호 하에서 우리 조국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반동 분자들은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리승만 도배들은 동족 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 하며 민주와 통일을 위한 투사들을 피의 바다에 잠그려고 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시키려 하며 또 통일시킬 수 있다。……

조선 인민은 언제든지 하나이었으며, 하나이며, 또 하나로 될 것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한 이 시기에 남 북 조선의 진정한 전체 애국자들과 제 정당 사회단체 당원들과 맹원들은 그들의 재산 여하와 사회적 지위와 성분 여하를 불판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총집결하여야 하겠다……」라고 지적하면서「조국의 평화적 통일 사업을 조선 인민이 자기의 수중에 틀어 쥐고 우리 인민 자체로 반드시 실천하자。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방해를 주는 미국이 우리 조선에서 즉시 철퇴할 것을 요구한다。우리는 비법적 기관인 소위「유·엔 조선 위원단」이 우리 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한다。우리는 남 북 조선을 통하여 통일적 립법기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는 민주주의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지도 하에서 선거를 실시하자。조국의 평화적 통일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 북 조선 제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에서 선거 지도 위원회를 선거하자。……」는 평화적 조국 통일 방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를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로 나선 리승만 매국 역도들은 평화적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온갖 흉책을 다 꾸며 내고 있다。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과 그와 야합한 리승만 도배들의 망국 멸족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三천만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조국 전선」의 선언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념려하는 조선 인민과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평화적 조국 통일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맹렬히 전개하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해방 후 四년 동안에 이미 쟁취한 민주 개혁을 공고 발전시켜 통일 조선의 경제 및 정치적 기초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一九四九년——一九五〇년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민족적 명절 八·一五 해방 五주년을 맞으면서 완수하려는 증산 경쟁에 광범위로 참가하고 있으며 자기의 책임량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같은 기업소와 많은 로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들은 최고 인민회의 국기 훈장, 공로 메달, 표창장, 공화국 내각의 상금과 순회 우승기들을 획득하고 있다。

그리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념원하는 남반부의 애국적 인민들은 리승만 도당의 팟쇼적 탄압과 테로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승만 괴뢰 정부를 타도 분쇄하고 평화적 조국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태백산 지리산 오대산을 거점으로 하여 영웅적으로 빨찌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무상 몰수와 무상 분여의 토지 개혁 실시를 위하여 봉기하고 있다。

김일성 장군은 말하기를「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미 북조선에서 실시한 토지 개혁, 산업국유화 법령, 로동 법령, 남녀 평등권 법령 등 제반 민주 개혁을 더욱 공고 발전시킨 것이며 그것을 전 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조선 인민을 이끌고 최대의 투쟁과 백방의 대책을 다할 것입니다」(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라고 하였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조국 전선의 결성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였다。주

남북 조선 로동당을 선두로 하는 七十여개의 애국

적 정당 사회단체의 집결체인 조국 전선을 자기의 정치적 기초로 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과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공화국 정부를 기초로 하는 인민적 새 민주 조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각종 형식을 다하여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인민적 민주주의의 건설은 조국과 민족의 리익을 반역하는 한줌도 못되는 친일과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력량에 의하여 발전되고 있다。

우리의 인민적 민주 조선 건설은 절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건설은 로동자 농민의 동맹을 핵심으로 하여 전 인민의 단결된 력량과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제국과 기타 제국 근로 인민 대중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민적 민주주의 제도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는 기본적 력량이다。

# 참 고 자 료

#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 군벌 및 봉건적 지주를 반대하여 일어난 동만 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폭동

림 춘 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하게 되자 조선 인민의 처지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여졌으며 문자 그대로 식민지 망국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혀다한 애국 투사들은 만주로 추방 혹은 망명하였으며 일제의 혹독한 압박과 착취에 못견디어 수十만 인민들이 또한 고국을 등지고 생계를 찾아 만주로 류랑하였다。 一九三○년에 이르러 동만에는 벌써 七十만의 조선 인민이 거주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七六·四% (一九三○년 통계)를 조선 인민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형편과 아울러 동만 지대는 지리상 조선 내지의 연장이나 다름 없는데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통치를 벗어나 있다는 조건들은 조선 망국 직후부터 만주, 특히 동만 일대로 하여금 조선 인민의 반일 독립 투쟁의 책원지의 하나로 되게 하였다。

一九○七년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를 침략하기 위하여 소위 「간도 조약」을 체결하고 룡정에 간도 통감부를 설치하였고 그 후 一九○九년에 일제는 「간도 조약」에 의하여 룡정에 총령사관을 설치하고 연길, 두도구 (頭道溝), 훈춘 (琿春), 백초구 (百草溝)의 四개소에는 령사 분관을 설치하였다。 (여기에 무장 인원이 약 二백명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一九一○년에 와서 재동만 조선 인민을 정치 및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소위 「구제회 (救濟會)」(동척 분점으로) ―― 위만시에는 만척(滿拓)이라고 개칭 ――를 조작하였고 문화적으로는 조선인에게 노예 교육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룡정 중앙 보통학교를 비롯하여 연길, 훈춘, 백초구, 두도구 등지에 보통학교를 신설하였다。



또한 일제는 동만을 자기의 상품 시장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획책하였으며 一九一○년에 조선을 강점한 후 재만 조선인에 대한 「령사 재판권」의 강요와 「토지 상조권 (土地商租權)」 확립을 위하여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였으며 一九一七년에 조선 은행 지점을 개설하고 동만의 산업 금융과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당시 재동만 조선인의 절대 다수는 빈농민이었다。 그들은 봉건적 중국인 토착 지주와 소수 조선인 지주들의 착취와 압박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유린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루대로 계속되는 만주 군벌 관료의 학대는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중세기적 농노로 화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와 만주 군벌 관료 및 봉건 지주들로 형성된 三위 一체의 가혹한 억압 략탈은 결국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극도의 빈궁과 기아 선상에서 신음하게 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의식적인 반제 반봉건 투쟁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혁명적 농민들은 일찌기 의병 운동과 三·一운동 등 일련의, 반일 독립, 무쟁에 용감히 궐기하였다。

특히 위대한 로씨야 사회주의 十월 혁명의 승리는 재동만. 조선 인민들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열화를 더욱 북돋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새로운 력사적 전환을 초래하였으니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혁명의 조류는 애국적 반일 독립 운동으로 하여금 협소한 민족주의적 경향으로부터 떠나 신흥 무산 계급 사조를 주류로 하는 새로운 발전을 갖게 하였다。

그리하여 一九二○년 일제의 잔악한 소위 「경신 (庚申) 토벌」 이후 一九二一년에는 이미 만주 공산 청년 운동이 시작되었으며 一九二三년에는 벌써 무산 계급 진영의 완전한 령도 밑에 반일 투쟁을 추진시키게 되었다。 각지방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하에 청년 동맹과 농민 동맹이 조직되었으며 이러한 대중 단체의 발전과 아울러 一九二六년 마침내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민족주의 진영과 무산 계급 진영 사이의 사상적 대립에 의한 알륵과 무산 계급 운동 지도부 내의 무원칙한 종파 투쟁의 결과는 불가피적으로 적에게 어부지리를 주게 하였으며 자체 운동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一九二七년 제一차 간도 공산당 검거 사건을 비롯하여 일제는 계속적인 검거 투옥을 감행

하였으며 탄압과 매수 징책 등으로 만주에서의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파괴에 광분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혁명적 앙양과 발전은 필연적으로 종파주의의 청산을 요구하였으며 광범한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재동만 조선인 로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교활하고 악독한 정책을 실제 투쟁을 통하여 체험한 만큼 일제와 그의 주구들에 대한 적개심과 아울러 민족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교훈 받아 강철 같은 규률로 단련되고、리론과 행동이 통일된、견선한 로동자 농민을 골간으로한、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그러한 전위적 지도 당의 조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소부르죠아 층의 동요 분자들과 행세적 혁명가들과 기회주의 분자들은 해방 투쟁의 령도적 지위에 서지 못하게 되었다。

조선 민족의 해방 투쟁은 새로운 조직 형태와 새로운 투쟁 방침의 수립을 당면 문제로 제기하였으며 투쟁 내오의 순결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로골화한 만주 침공 기도는 만주에 있어서의 조중 량국 인민의 국제적 단결을 시급히 요청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만주에서의 반일 조선 독립 운동은 중국 공산당과의 국제적 련계를 가짐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었다。

## 一、五·三〇 폭동

一九三〇년 五·三〇 폭동은 이러한 련세 밑에 조선 농민이 주체가 되어 중국 인민과 같이 일어난 첫번째의 봉기이였다。

당시 연변당부(延邊黨部)—그후 동만 특위(東滿特委)로 개칭—의 지도 밑에 룡정(龍井)、왕청(汪淸)、백초구(百草溝)、두도구(頭道溝)、이도구(二道溝)、삼도구(三道溝)、연길(延吉)、회경가(懷慶街)、팔도하자(八道河子)、시도구(四道溝)、걸만동(傑滿洞)의 각지에서 전선 절단、폭탄 습격、지주 재산 몰수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룡정(龍井)에서는 일본 총령사관、천도철도(天圖鐵道)、동척 출장소 금융부 및 일본놈들이 경영하는 보통학교、조선인 민회 등을 습격하였다。 룡정에서 주동적 역할을 논 사람들은 김철(金哲)、김광진(金光振)、장산해(張山海)、강상야(姜霜野)、김일원(金一元)、황기범(黃起範) 동지 들이였다。 이 중 동척 출장소 습격을 담당하였던 김철、강상야 량 동지는 적과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되었다。 봉기한 혁명적 군중들은 도시에서 일제의 기관을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즉 일본놈들이 경영하던 룡정 화력 발전소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화룡현 두도구(和龍縣 頭道溝)에서는 六백여명의 군중이 동원하여 당지의 일본 령사관 분관과 민회를 습격하여 이를 소각해 버렸다。 이도구(二道溝)、개산둔(開山屯) 지역에서는 소위 조선인 민회를 소각하였으며 철도도 또한 파괴하였다。 이 외에도 폭동은 도처에서 전개되어 일본놈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이 폭동의 결과로 혁명적 투쟁 력량이 장성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혁명적 동지들은 비밀 사업에 경험이 적은 관계로 그 피해도 적지 않았다。 즉 많은 사람들이 검거 투옥되었는데 그 수는 무려 二천여명에 달하였으며 이 중에서 三十二명이 사형당하였고 三백九十一명이 유기형에 처하였다。

五·三〇 폭동 당시 연변 당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쟁 구호를 내 걸었다。

一、전연변 조중 혁명 군중은 五·三〇 폭동에 총련합하여 궐기하라!
一、일본 제국주의와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一、국민당 군벌 정부를 타도하자!
一、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조중 농민에게 나누어 주자!
一、모든 제국주의 및 국민당 시설을 불살라 버리자!
一、일본 제국주의 주구들인 「한족 련합회(韓族聯合會)」와 「정의부(正義部)」 「민회(民會)」를 타도하자!
一、조선 혁명을 원조하자!
一、제二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하자!
一、쏘련을 무장적으로 옹호하자!
一、八시간 로동제를 쟁취하자!
一、지조(地租)와 가렴 잡세를 거절하고 모든 부채를 반환하지 말라!
一、공 농 병 쏘베트 정권을 건설하자! 등이였다。

이 혁명적 구호는 압박과 착취에 신음하는 동만 혁명 군중을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놈들의 탄압과 학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적 애국심은 계속 앙양되었다。

## 二、추수 폭동(秋收暴動)

동만 조선인의 생활은 일제와 토착 군벌놈 및 봉건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로 극도로 피폐하였다。 조선인 농민은 그 대부분이 소작농과 고용농이었다。 그들은 수확고의 평균 五할의 소작료와 전 수입의 一五%에 해당하는 공과금(公課金)、월 八분의 고리 대금과 그 외에 또 소위 치안비의 강

제적수, 지주의 부역 등으로 빈궁과 기아에서 헤매었으며 이 외에 일제의 직접 간접의 압박과 국민당 동북 군벌 통치의 경제적 착취와 압박으로 그들의 생활은 실로 비인간적 생활이었다.

그러면서도 동만의 조선 농민들은 자기들의 최저 생활을 의지하기 위하여 상품 농산물인 대두(大豆)를 많이 재배하였는데 이 대두는 전농작의 三〇%를 넘었다. 이제 동만 농작물의 시장 반출 상황을 보면 대두는 생산량의 八八·九%로 압도적이었고 기타 잡곡은 생산량의 三五·八%로서 전농산액의 四九·一%가 시장에 반출되었다.

농민들은 자기들의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두를 비롯한 농산물을 시장에 반출하는 것이었다.

一九二九년부터 일어난 세계 경제 공황의 영향과 심해 가는 일제의 착취는 동만 농민들은 더욱 궁핍과 령락으로 몰아냈으며 농산물 가격의 폭락은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파탄시켰다. 이제 농산물 가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련 도매 곡가표 (만주 농업 기구)

| 년별 | 一석 가격(원) | | | 동 지수 | | |
|---|---|---|---|---|---|---|
| | 대두 | 고량 | 조 | 대두 | 고량 | 조 |
| 一九二四년부터 一九二八년간 五년 평균 | 一四·一三 | 七·一四 | 一二·四九 | 100% | 100% | 100% |
| 一九二九 | 一二·四五 | 七·九五 | 一一·五五 | 八八·〇% | 一一一·三% | 九四·五% |
| 一九三〇 | 九·一七 | 五·八二 | 七·一四 | 六四·八% | 八一·五% | 五七·一% |
| 一九三一 | 七·九八 | 四·三一 | 七·〇〇 | 五六·五% | 六〇·四% | 五六·〇% |
| 一九三二 | 四·九五 | 二·四八 | 三·五四 | 三五·〇% | 三四·五% | 二八·三% |

이상의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두는 一九二九년에 전 五년 평균의 八八%로, 一九三〇년에는 六四·八%로 떨어졌으며 기타 작물도 역시 저락되었다. 대련의 도매 가격이 이렇 진대 생산지에서의 가격이 더욱 저락되었음은 물론이다. 동만에 있어서의 곡가 폭락은 극도로 빈약한 조선인 농촌 경리에 심대한 타격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 군벌과 봉건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 그리고 곡가의 대폭락은 조선인 령세 농민들을 더욱 더 령락으로 몰아넣었다. 극도의 빈궁에서 허덕이던 조선인 농민들은 일찌기 조선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토지를 위하여 혁명적 조직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동만 방방곡곡에는 혁명적 단체가 조직되어 있었다. 그 혁명적 조직체들은 공산당을 비롯하여 공산 청년단, 반제동맹(反帝同盟), 혁명 호조회(革命互助會), 농민 협회, 아동단, 적위대 등이었다. 이러



한 조직에 가입한 군중들은 혁명적 구호를 외치면서 一九三一년 九월 추수 폭동에 궐기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일제의 주구 기관인 「조선인 민회」를 타도하자! 반동 지주를 타도하자! 소작료는 三七제 二八제를 실시하자! 금융부와 고리 대금업자의 부채를 물지 말자! 이것이 당시 그들이 내 걸은 실지적 투쟁 구호였었다.

폭동 상황을 보면 연길현 로두구(老頭溝) 부근에서는 八천여명의 농민이 동원하여 七일간 계속하여 지주와 봉건 군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그리고 지주의 량곡을 헤쳐서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명월구(明月溝) 일대에서는 三천여명이 동원하여 반일(反日), 반봉건 투쟁과 三七제, 二八제 감조 투쟁을 성공적으로 결속하였으며 팔도구(八道溝) 일대에서는 五천여명의 농민이 동원하여 중국인 대지주 장절란(張折蘭) 및 기타 지주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였다. 특히 조선 농민을 착취하기 위한 일본인 경제 기관인 「구제회 농장(救濟會農場)」을 점령하여 저장해 있던 량곡을 모조리 빈민들에게 분배하였다. 조양천(朝陽川)을 중심으로 대모록구(大母鹿溝) 봉림동 룡궁(龍宮) 등에서는 八천여명의 농민이 봉기하였고 의란구(依蘭溝) 일대에서 만여명, 해란구(海蘭溝) 일대에서도 만여명이 동원되었는데 ●전 연길현만 하여도 근 五만명의 농민들이 추수 폭동에 참가하였다.

왕청현(汪清縣)에서는 백초구(百草溝), 대왕청(大汪清), 석현(石峴)을 중심으로 二만여명의 농민이 동원되었고 화룡현(和龍縣) 二만여명, 훈춘(琿春)만여명 등 전 동만적으로 무려 十만여명 농민들이 동원하였으며 동년 十二월까지 계속되어 三七제, 二八제, 감조투쟁(減租鬪爭)을 승리적으로 결속시켰다.

이 투쟁은 다소의 희생자(그것은 불과 몇녕)를 내였으나 그러나 그 의의와 성과는 실로 큰 것이다. 즉 단결된 인민의 힘은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선시하였으며 투사들로 하여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확고히 하여 주었으며 그 후 혁명적 기세는 더욱 앙양되었다.

## 三、一九三二년 기민 폭동(饑民暴動)

### —일명 춘황 투쟁(春慌鬪爭)—

一九三一년 九월 十八일 일본 제국주의는 심양(瀋陽)을 공격하고 단시일 내에 전 만주를 강점하였다. 놈들은 우선 무력으로써 혁명 운동을 진압하려고 하였다. 놈들의 침략 계획은 만주를 자기들의 군사 근거지로 하고, 이어서 전 중국을 점령하고 쏘련을 침략하려는 것이었다. 놈들은 「대륙 정책」의 실시에 있어서 만주에 군사 근거지를 공

고화하기 위하여서는 혁명 운동을 진압하는 것을 급선무로 하였다。그리하여 一九三二년부터 놈들의 대중적 학살이 시작되었다。

九·一八 사변이 일어나자 만주의 군벌들은 무력하게도 일제에 투항해버렸다。당시 연길현 진수사(鎭守使)로 있던 국민당 군벌 희흡(熙洽)도 일제에 투항하였다。그러나 인민들은 반일 투쟁에 용감히 궐기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항일 투쟁은 더욱 치렬화하였다。또한 중국 병사 중 민족적 량심이 있는 자들은 투항을 반대하여 무장한 채로 산중으로 도망하였다。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자와 접근하기를 싫어하였으며 때로는 공개적으로 반대도 하였다。

一九三二년 三—四월 경에 동만 조선인 농민들은、극도의 생활난과 일제의 만주 강점으로 인한 식민지 정책으로 더욱 혹독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드디어 동만 각현 조선 농민들은 반일 및 반봉건 지주와의 투쟁을 전개하였다。그들은 당면한 행동 구호들을 외치면서 투쟁에 궐기하였는바 그 구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우리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요구한다」。「우리들을 못살게 한 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 군벌과 반동 지주를 타도하자!」「반동 지주와 반동 지주의 창고를 헤쳐서 쌀없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라!」「가렴 잡세를 물지 말라!」「고리대의 부채를 물지 말라!」「일제의 주구 민생단을 타도하자!」등이었다。

연길현에서는 의란구를 중심으로 만여명의 농민들이 봉기하여 지주와 부농의 량곡 창고를 헤쳐서 쌀없는 빈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으며 일본 명사관 구룡평 분관(九龍坪分館)을 습격하여 구금되어 있던 공산당원 五명을 석방하였다。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 경찰과 보위단(중국인으로 조직됨)은 련합하여 봉기한 농민들에게 흉탄을 퍼부었다。이로 말미암아 적위대장 一명이 중상당하였고 임신부 일명과 기타 몇 동무는 원쑤의 흉탄에 희생당하였다。

이와 같은 만행에 더욱 분격한 농민들은 당장에 주구 몇 놈을 처단해 버렸으며 적극 분자들은 경찰서 습격과 무장 탈취 공작에로 넘어 갔다。

개화둔(開花屯)구에서는 五천여명의 농민들이 봉기(三월 경) 하였다。그들은 군용 창고와 지주 창고를 헤쳐서 량곡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일본놈의 대주구 최형근이라는 자를 숙청하였다。

팔도구(八道溝)에서 五천명、조양천(朝陽川)과 대모록구(大母鹿溝) 봉림동 등지에 五천여명、로두구(老頭溝)에서도 五천여명이 봉기하였다。그들은 모두다 지주 창고를 헤쳐서 기민(飢民)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일본놈들이 조직한 민생단원들을 군중 대회에서 자복시키며、악질 주구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였다。로두구에서도 一일간 군중 대회에서 二十여명 주구를 공개 심판하고 처단하여버렸다。



왕청현에서도 영창동(永昌洞)、대감자(大坎子)、전각루(轉角樓)를 중심으로 하여 기민 투쟁이 벌어졌다。그들 역시 농민의 고혈로 채워진 지주 창고를 헤쳐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그때 전각루의 반동 지주(중국인 지주)들은 발악하였다。놈들은 시위 군중을 향하여 발사하여 농민 八명의 희생자를 내었다。이에 더욱 격분한 농민들은 반동 지주들을 체포하여 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였다。

화룡현 각지의 농민들도 봉기하여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훈춘현 대황구 삼한리(琿春縣大荒溝三漢里) 등지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으며 철강(鐵江) 서구를 중심으로 만여명 군중들이 봉기하여 훈춘현 시가를 습격하고 군중들이 투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각지에서 봉기한 농민 군중 대회에서는 룡정 일본 감옥에서 학살된 혁명 동지 곽영희、리해국 두 동무의 추도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야만적 일본 경찰에게 참살 당한 두 동무의 추도식은 혁명 군중들로 하여금 비분의 눈물을 금하지 못하게 하였다。이에 군중들의 일본 강도에 대한 적개심은 최고도에 달했으며 두 동무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대모두다 한결같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결의를 굳게 하였다。

이렇듯 동만 각지를 휩쓸어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으며 농민들의 고혈로 이루어진 반동 지주의 량곡을 탈취하고 주구 및 반동 지주를 용서없이 처단한 춘황(春慌) 투쟁은 농민 군중들의 조직적이며 단결된 위대한 투쟁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이 투쟁은 一九三一년의 추수 투쟁보다도 그 규모에 있어서 확대되었으며 일제와 반동 지주에 대한 적개심、민족을 팔아먹는 주구배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일관되었었다。

이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더 한층 계급적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었으며 그들은 한결 같이 무장 유격대를 창건할 데 대한 전투적 의지를 발양시켰다。

## 四、일본 제국주의와 국민당 군벌들의 잔인 무도한 학살을 반대한 혁명 렬사들

일본 제국주의는 그의 충견들인 민족 반역자와 토착 봉건 지주들로 구성된 국민당 군벌놈과 합세하여 동만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피비린내 나는 인민 학살을 일으켰다。

一九三○년 동기에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과 국민당 군벌들이 야합하여 조선인 공산주의자에 대한 검거、투옥、학살의 만행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당시 소위 국민당 길림성 정부의 명령으로 국민당군 돈화현(敦化縣) 제七련대장 왕수당(王樹棠)은 수백명의 군인과 일제의 주구 단체인「한족련합회(韓族聯合會)」의 권수정(權守正)과 남대관(南大觀) 등 반역 도배들을 이끌고 동만 각지를 돌아다니면서「토벌」에 날뛰었다。

특히 그들은 왕청현에서 극심한 만행을 자행하였다。동만 혁명의 우수한 조직자이며 령도자의 한사람인 김무(金武) 동무가 북하마탕 타방즈에서 놈들에게 체포되었다。 김무 동무는 원래 빈농민의 아들로서 그의 견인 불발한 혁명적 의지와 절조는 항상 후배들에게 감명 깊은 모범으로 되었다。야만적 국민당에게 체포되자 김무 동무는 혁명적 비밀을 사수하기 위하여 손칼로 손수 인후를 끊고 죽음의 최후 순간까지 혁명가의 영예를 지키었다。잔인 무도한 국민당 군벌과 민족 반역도 남대관 일파들은 다시 김무 동무의 목을 잘랐으며 그것을 백초구(百草溝) 시가의 한 복판에 회시하였던 것이다。

국민당 군벌과 남대관 일파는 화룡현 평강(平崗)에서 (두도구 부근) 조선 인민의 우수한 딸 홍혜순(洪惠順)——(렬사 소성규의 부인)——동무를 어린아이 업힌 채로 총살하였다。(등에 업히었던 혜순 동무의 딸은 요행히도 사경을 면하였으며 현재 만경대 유가족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제국주의 경찰들도 국민당 군벌보다 못하지 않은 만행을 감행하였다。놈들은 一九三○년 겨울 동만 각지에서 二천여명 이상의 애국 지사들을 검거、투옥하고 중세기적 고문으로 수十명의 동지들을 고문 치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라체 고문을 가하는 등 형언할 수 없는 비인간적 만행을 다하였다。이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동만 각지의 혁명적 군중들은 간단없이 봉기하여 노도와 같은 치렬한 투쟁에 궐기하였다。이에 겁먹은 일본 제국주의는 一九三一년 봄 급격히 연길 룡정에 륙군을 진주시켰다。(그때 연길 진수사(鎭守使) 희흡(熙洽)은 투항하여 일본놈들을 맞아들이었다。)

일본놈들은 단지 검거、투옥、고문의 방법으로써는 물밀듯이 뒤를 이어 일어나는 동만 혁명 세력을 진압하기 어려움을 알자 一九三二년 五월 一일부터 대량적 인민 학살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이 대학살 선풍에 처음으로 희생된 동무는 연길현 조양천의 라일(羅一) 동무였다。동무는 인민과 조국을 사랑하는 로동자로서 일찌기 三·一 운동 때부터 꾸준히 혁명 대렬에서 복무하였으며 一九三○년에 중국 공산당 동만 특위 비서처에서 마득한 동무와 같이 일하였다。일본놈들은 국제 로동절인 五월 一일에 라일 동무의 목을 잘라 조양천시 중앙에 걸어 놓았다。동무는 최후 순간까지도 혁명적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태연 자약하게 희생되었다。

피에 주린 일제 야수들은 왕청현에서 오랜 혁명 투사 오중화(인테리) 동무와 동만 특위 비서로 있던 마득한 (교원 출신) 동지를 학살하였고 연길현에서는 당현위 책임비서 손동무(로동자)、현위 비서 구보원(빈농 출신)동지들을 학살하였다。

특히 구보원 동지는 죽는 순간까지 류창한 일본말로 약 二시간에 걸쳐서 열렬히 혁명 선동 연설을 하여 일본 군경들로 하여금 동요케 하였다。

야수 같은 놈들은 매일같이 잔인 무도한 방화와 학살을 계속하였으며 야수적 인민 도살을 감행하였다。 즉 놈들은 혁명자들을 총살、교살 또는 산채로 집에 가둬 넣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이는 등 별별 살인귀적 방법을 다하였다。력사에 드문 이와 같은 중세기적 야만적 학살도 혁명가들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놈들의 여하한 탄압에도 굴할 줄 모르는 혁명가들은 더욱더 그 영웅성을 발휘하여 투쟁하였다。 진강한 혁명 투사들에게는 감옥이나、죽음이나、다 무섭지 않았다。그들은 두서운 고문에서도 두려움을 몰랐으며 죽음을 눈 앞에 두고도 혁명적 열정에 몸을 태웠으며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기원하였다。「나의 몸은 죽어지나 혁명 정신은 살아 있다」「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왜놈들을 때려부시라! 승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이다」「전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만세!」「조선 혁명 성공 만세!」등의 불패의 신념으로 마지막까지 동지들을 격려하면서 쓰러졌던 것이다。

연길현위 선전부장으로 있던 전석권 동무(빈농 출신)는 공작차로 갖은 곤난을 겪으면서 놈들의 경계망을 뚫고 연길시에 들어왔으나 반역도들의 밀고로 놈들의 경찰에 체포되었다。그는 혀를 물어 끊고 혁명 조직의 비밀을 사수하였다。연길현 八구당 조직부장으로 있던 김임범(일명 김오준) 동무는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나 일찌기 학생 시대부터 무산 계급 혁명 운동에 참가하여 학생 속에서 꾸준히 싸우다가 팔도구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그는 죽음으로써 끝까지 조직의 기밀을 지키었다。

이와 같은 절개와 용맹은 일반 동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김일성 장군의 지휘 하에 북만 원정에서 중국 반일 병사 공작을 하던 김금녀는 八세의 소녀로

쩌 왕청현 일본 경찰에、十여명의 로인과 같이 체포되었다。놈들은 갖은 기편을 다하여「귀순」하면 살려 주겠다고 회유와 공갈 수단을 썼다。그러나 애국 소녀 김금녀는「귀순」하기는 고사하고 불타는 적개심으로 원쑤를 노려보며「공산주의 아동 단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개놈들에게 투항하는 법을 모른다。너희들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젖먹는 어린 동생까지 불태워 죽였으며 수 많은 우리 동지들을 학살하였다。차라리 네놈들이 혁명자들 앞에「귀순」해라。살인귀들아 나의 피도 먹고 싶으면 먹어라。조선 인민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승리하고야 만다」라고 외쳤다。애국의 화신인양 어린 입에서 흘러 나오는 저주와 증오의 외침은 추상 같이 날카로웠다。놈들은 기어히 八세의 소녀、김금녀를 살해하였다。

연길현 八구 공산 청년회 구위 선전부장 림춘이 동무는 불의의 습격을 받아 여러 동지들과 같이 룡정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十여일간 갖은 악형을 당하였으나 끝끝내 조직 비밀을 사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감옥에 갇히였던 다른 동지들의「죄」까지 자기가 쓰고 十여명의 동지를 석방시키고 자기는 놈들이 축인 군견에 물리어 죽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 절개를 굳게 지키면서 놈들의 독아에 희생된 동지들은 수천명에 달한다。

一九三二년 一년 간에 연길 한 현에서만도 근 二만의 조선 애국 청년들이 학살되었으며 왕청、화룡、훈춘 등 각현에서는 근 二만명이 학살되었으며 그 외에 동만 각지의 수천호 가옥이 불타 버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대량적 무차별 학살도 혁명의 불길을 말살시키지 못하였으며 이는 도리어 조선 인민 반일 유격 투쟁의 봉화를 더욱 북돋아 놓았다。연길현 팔도구 일본 경찰서장놈은 공공연하게 말하기를「조선 사람 백명을 죽이면 그 중의 十명은 공산당원이나 공청회원이다。조금도 꺼리낌 없이 죽여라……」고 언명하였다。

이에 놈들이 작성한 공산당원 검거 통계를 참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원적별 중국 공산당원 검거 인원(간도 총령사관)

| 년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황해 | 평남 | 평북 | 강원 | 함남 | 함북 | 계 |
|---|---|---|---|---|---|---|---|---|---|---|---|---|---|---|
| 一九三一 | 三 | 一 | 二 | | 一 | 二 | 三 | 四 | 六 | 五 | 八 | 六八 | 八〇五 | 九〇八 |
| 一九三二 | 七 | 二 | 七 | | 四 | 一 | 六 | 三 | 四二 | 六 | 三八 | 一六六 | 二、二〇三 | 二、四八四 |
| 一九三三 | 三 | 一 | 五 | 二 | 一 | 二 | 五 | 四 | 一七 | 一〇 | 二〇 | 八八 | 一、〇五七 | 一、三二四 |
| 一九三四 | 一六 | 一 | | | 一 | 二 | 九 | 一四三 | 五八 | 二七 | 二〇 | 二三一 | 九六二 | 一、四七九 |
| 一九三五 | 五 | | | | 六 | 二 | 一 | 二 | 一〇 | 八 | 一五 | 六六 | 五八四 | 六九九 |
| 一九三六 | 三四 | 五 | 一四 | 二 | 一三 | 二七 | 二四 | 一五六 | 一三三 | 五六 | 一〇五 | 六一九 | 五、六一一 | 六、七九九 |



이상 통계는 단지 당원을 체포한 숫자에 불과하며 검거하지 않고 학살한 당원과 비당원 군중의 수는 이 몇 十배나 더 되는 것이다。一九三二년부터는 검거한 사람들 중 극소수만을 살리고는 거의 전부를 학살하였다。一九三二년에는 체포하자마자 학살한 수가 수만명에 달한다。비당원 군중에게 까지도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였으니 공산당원을 살려 두지 않았음은 명약 관화한 일이다。

혁명을 팔아 먹고 내부 조직의 비밀을 제공하여 혁명에 손실을 가져 온 김찬(金燦)、신일용(辛日鎔)、최동욱(崔東旭)、조봉암 등 반역도배들과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과 무리들、그리고 일본놈들이 동북에서 수십년간 충견으로 사용하던 경찰놈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위하여 만주에서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을 이렇게 다량적으로 학살하였다。(놈들은 일제가 거꾸러진 오늘、우리 공화국 남반부에 도망하여 일제의 후계자로 들어 앉은 미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로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애국 투사와 애국 인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은 오직 강도적 테로에는 정의의 테로로、무장적 공격에는 무장적 반격으로 놈들에게 대항할 수 밖에 없었다。그리하여 가능한 힘을 다하여 반일 인민 유격대를 조직하는 것이 당시의 중요 과업으로 나섰던 것이다。

## 五、동만 조선인 반일 유격 구역 성립 및 그 활동과 인민 정부의 창건

일본놈들의 군대와 위만주국군의 혁명 군중에 대한 련합「토벌」이 계속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때문에 유격대의 조직과 함께 근거지 창설은 가장 급선무로 나섰던 것이다。

그리하여 一九三二년 겨울에 우리 민족의 절세의 영웅이신 김일성 장군의 령도 하에 연길현에서는 의란구(依蘭區)、석인구(石仁溝)、三도만、왕우구를 중심으로、왕청현에서는 영청동、대감자、요영구、대왕청、소왕청을 중심으로、화룡현에서는 어랑촌을 중심으로、훈춘현에서는 대황구(大慌溝)、연통랍자(煙筒磖子)를 중심으로 혁명 유격구가 각각 전립되었다。

혁명적 유격구를 전립하려면 적어도 세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될 수 있는 것이었다。그것은、첫째로 이미 조직된 혁명 군중의 튼튼한 물질적 및 구국 투쟁의 정치적 토대가 있어야만 될 것이며、또 반일 무장 대오와 조직된 군중의 힘을 련합하여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될 것이다。둘째로 지대 선택 문제인데 지리적으로 자기를 보위하기에 유리하고 적들의 침공이 곤난한 지대라야만 될 것이며、셋째로 적어도 최소 한도의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항일 무장적

대오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각현 유격 구역들의 공동적인 곤난은 무장 대오의 부족이었다。유격구의 대부분이 최초에는 불과 몇자루의 양포와 목창(木槍)을 가지고 유격구 근거지 창건 사업에 출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비약한 무장력에 비해 놈들은 현대식 무기로 전부 무장되어 있었으며 수백명 혹은 수천명의 대오로 우리 유격구를 매일같이 포위 공격하여 왔다。 심지어 산림대(토비)들 까지도 혁명 군중을 공격하였다。 실로 당시 유격구 인민들은 고립 무원하였으며 이 난관을 타개하는 길은 오직 자기들의 강철같은 혁명적 투지와 정의를 위한 희생심이었으며 맨 주먹으로 원수에 달려들어 그 무장을 빼앗는 외에는 아무 길도 없었다。 그러나 애국 일념에 불타는 유격구 인민들은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죽음을 무서워 하지 않고 일제 놈들과 싸울 것을 맹약하고 새로운 투지를 가다듬었다。 그 때에 동지들 사이에 서로 주고 받은 굳은 신념의 표현은、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즉「몸은 죽어도 혁명적 절개 변치 말라!」、「무장 없는 우리에게는 보초가 생명이다!」、「일체 곤난을 극복하라。 최후 승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이다」、「정의의 사업은 력사상에 승리하지 못한 적이 없다」、「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놈들의 무장을 탈취하여 자기가 무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활로를 얻을 수 있다」

一九三三년 여름에 와서는 벌써 우리들은 보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총도 있었다。이것은 모두 놈들에게서 동지들의 생명과 피로써 바꾸어 온 것이었다。우리들은 능히 유격구를 보위할 수 있으리만큼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격구를 근거지로 하여 지방 정치 사업과 유격 선쟁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무장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었다。

一九三三년 봄에는 각현 유격구마다 공농(工農) 쏘베트 정부를 건립하였으며 一九三四년 여름부터는 반일 통일 전선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이 쏘베트 정부를 인민 혁명 정부로 개칭하였다。인민 혁명 정부 밑에는 농민 위원회와 반일회(反日會)、부인회、소년단、농민、자위대、돌격대 등을 조직하였다。(반일회는 놈들의 통치 구역 내에 광범히 조직되었는데 一九三四년에 약 五만명 이상의 조직 군중을 가졌었다。이것은 一九三五년에 김일성 장군이 조직한 조선 조국 광복회의 기초로 되었다)。당시 인민 혁명 정부 정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一、동북 인민 혁명 정부의 근본적 임무는 일본 및 일체 제국주의의 세력을 동북 지방으로



부터 구축하고 일본의 주구인「만주국」을 타도하여 실지(失地)를 회복하고 망국 노예로부터 벗어나며 전 중국 령토의 완정과 조선 민족의 독립 해방을 보조하는 것이다。

二、인민 혁명 통치 구역 내에 있는 모든 로동자、농민、인민 혁명군、유격대 병사、혁명 군관、일체 근로 군중과 학생、상인、일체 반일 반만 반제 민중 및 그들의 가족은 남녀、종족、신앙의 차별이 없이 모두다 같이 평등권을 가지며 일률로 혁명 정부의 공민이 되며、상술한 공민으로서 十六세 이상인 자는 모두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다만 매국적 민족 반역자、일 만 제국주의의 주구배 및 일체 반혁명 분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이 없고 또 정치상 자유가 없다。

三、일본 및 일체 제국주의와 매국노의 은행、철도、광산、기업소의 재산을 몰수하여 반일 군비로 충당하며 일부분은 빈곤한 인민에게 분배한다。

四、일본을 반대하는 모든 피압박 민족과의 공동 전선을 결성한다。

五、무장적으로 반만(反滿) 반일(反日)하자。

六、가렴 잡세의 폐지。 통일 루진세의 실시。

七、언론、출판、집회、결사、독서 및 파업의 자유。

八、八시간 로동제와 최저 임금제 실시。 실업자 재민(災民)의 구제。

九、농민들의 二八 소작제 실시。

十、소수 민족의 자결권 확립(이하 생략)。

유격구가 공고하여 지고 놈들의 통치 구역 내의 인민들과의 련계가 더욱 긴밀하여짐과 또 그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인민 반일 유격대의 세력이 날로 장성함에 당황한 일본 놈들은 더 많은 병력으로 우리와의 싸움에서 얻은 경험을 리용하여 매일같이「토벌」하며 수천명씩 동원하여 위공(圍攻)하였다。

一九三三년 겨울에 놈들은 혁명 운동의 책원지인 각 유격구를 대부대의 동원으로 위공하였다。연길현 각 유격구에서는 침입한 五천 여명의 일만군을 상대로 하여 二十일간 장기 전투를 계속하였다。이 전투에서 최현(崔賢)——현 공화국 경비대 ○○부대장——동무는 기관총으로 놈들 백여명을 소탕하였고 주춘일(朱春日)、류삼손(柳三孫) 동무는 각각 보총으로 놈들 五十여명을 소탕하였다。이 전투에서 놈들은 합계 四백명이 소탕되었다。원쑤들의 이와 같은 대량적 침공에 대항하여 연길현 각 유격구 인민들과 유격대는 희생을 무릅쓰고 악전 고투한 결과 불과 몇명의 희생자를 내고서 적들을 과감히 격퇴시켰던 것이다。

왕청 각 유격구에도 놈들은 약 五천 여명을 동원하여 위공하였으나 불과 十여일에 퇴각하고 말았다。왕청 인민 유격대는 김일성 장군의 직접적인

명도 하에서 놈들을 요격하였는바 일부분 유격대만 유격구에 남겨 두고 기타는 전부 놈들의 주둔지를 야습하여 적군의 군심(軍心)을 소란하게 하고 대부대의 전력으로써 놈들의 통치 구역에 진출하여 놈들의 후방을 진공하고 지방 자위단을 소탕하고 군기 수백정을 로획하였다。

이와 같은 전술은 당시 각 유격대에의 모범으로 되었다。특히 왕청현은 연길현에 비하여 산림이 울창하고 적설이 많은 지대이다。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놈들로 하여금 군사 행동을 자유로 할 수 없게 하였다。또한 놈들은 매일같이 유격대의 야습을 받게 되고 손실은 날로 증가되어 자기들 후방이 오히려 소란하게 되니 부득이 十여일만에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이와 같이 김일성 장군의 영명한 전략과 전술에 놈들은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하고 커다란 손실을 당한 채 퇴각하였던 것이다。

훈춘현과 화룡현 유격구에서도 역시 전체 인민들과 인민 유격대의 용감한 전투는 놈들을 격퇴시켰다。이러한 전과는 고군 분투하는 인민들과 유격대의 사기를 날로 높여주었다。그러나 이런 반면에 허다한 곤난이 수반하였다。그것은 퇴각 후에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적군의 공격과 식량 및 피복의 결핍이었다。심지어 토비들의 준동도 우리를 괴롭게 하였다。하나의 실례를 들면 一九三二년 겨울에 토비관대장(土匪關隊長)은 대원 一백五十명을 데리고 유격구 소왕청 마촌(小汪淸馬村)에 와서 주둔하고 있었다。(당시까지는 토비관에서도 비교적 우리 대오를 동정하는 편이라고 보았다) 이때 유격대에서는 토비관 부대에 김은식(金銀植)동무를 파견하여 그 부대의 참모장으로 공작케 하고 공작원으로 중국어에 능숙한 김룡산(金龍山), 김하일(金河日) 등 七명의 동지를 부대에 파견하여 정치 공작을 시작케 하였다。며칠이 지나서 산림대(토비) 평동양(平東洋)의 소부대가 관대장 휘하에 소속되었는바 그놈은 이미 일본놈들과 관계를 가진 반변자(叛變者)들이었다。평동양은 리간 정책으로써 관대장으로 하여금 반일 대오로부터 반변하게 하였으며 당에서 파견하였던 김은식 이하 七명을 학살하였다。

김하일 동무만은 요행 생존하였다。이렇게 토비들은 우리의 우수한 간부 七명을 학살하고 일본놈들에게 투항하였다。이와 같이 모든 조건이 불리하고 곤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동지들의 투지는 더욱 더 왕성하여 갔다。놈들이 유격구에 방화하는 것은 일상사였다。놈들이 불지른 곳에는 그 즉시로 다시 집을 지었다。놈들이 또 태우면 또 지었다。심지어 한 집터에 二十二차 까지 집을 진 곳도 있었다。

유격구에는 무기 공장과 병원, 피복창, 학교 등이 있었다。인민들은 밤낮으로 요소 요소에 보초를 섰으며 놈들이 공격하여 오는 때면 신호로써 본부에 련락을 취하였다。낮에는 놈들의 행동을 정사피 발견할 수 있는 지소에 망원 보초와 지리에 밝은 보초를 세웠고 밤에는 요로에 비밀히 보초를 섰다가 놈들이 오면 폭탄으로써 신호를 하거나 불을 피워서 신호를 하여 유격대에 알리었다。



이와 같이 유격대와 인민은 혼신 일체가 되었으며 유격대는 인민을, 인민은 유격대를 서로 보호하며 응원하였다。

一九三四년에는 놈들은 三三년에 비하여 일층 무장을 정비한 정예 부대를 동원하여 치렬히 위공하기 시작하였으며 一九三五년에는 최후 발악을 다하였다。이러한 정세에 비추어 김일성 장군은 당시 요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왕청현 요영거우, 동만 군정 회의에서, 一九三五년 봄)

一、조선 민족의 해방, 독립을 위하여 만주와 조선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구축하려면 우선 광범한 인민을 혁명 대오의 주위에 묶어 세워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더욱 확대 강화 장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목적하는 투쟁에 있어서 승리의 선결 조건으로 되는 것이다。때문에 중국 인민에게는 반일 구국회를 더 공고 발전시킬 것이며, 조선 인민에게는 조국 광복회를 조직할 것이며, 비단 재만 조선인 뿐만 아니라 선조선에 광범히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과거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 혁명 력량을 총동원하여 이 사업에 주력하여야 될 것이다。이 사업은 단지 정치 공작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혁명 무장 대오도 이 사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二、유격구와 반일 인민 유격대가 성립된지 근 三년이 되는 동안에, 우리들은 아주 협소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전 동만 유격구를 모두 합하여도 일개 현의 범위도 못된다) 매일같이 놈들의 진공을 받아 수 많은 인민들의 희생을 내였다。그간 놈들이 유격구에 대한 침공 전략 전술은 최초보다 아주 달라졌다。놈들은 一九三四년의 동기 「대토벌」에는 동만 각 유격구에 수만명의 일만 군대를 동원시켰으나 지금은 군력을 더욱 증가하여 혁명의 책원지인 유격구를 없애기 위하여 각개 격파의 전술을 쓰고 있다。이것을 방임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것은 대단히 우둔한 것이다。자기 힘을 잘 보호하면서 많은 적을 소멸하는 것이 유격 전쟁의 기본 원칙임에 비추어 우리는 적은 지역에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전 만주 벌판을, 한걸음 나아가서 조선 내지로 진출하여 대규모의 유격전을 전개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광범한 조중 인민의 지시 밑에서 적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우리 혁명적 무장 대오를 더욱 더 공고하게 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三、현존하고 있는 극소한 유격구로부터 광대한 지역으로 진출할 것이며 유격구 내지의 청년 남녀들을 모두 인민 유격 무장대오에 편입시키어 군사정치 훈련을 받게할 것이다. (일부분 긴장한 아동들도 편입시킬 것). 로약들은 안전 지대에 이주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一九三五년 내로 유격구 문제를 해결짓고 무장 부대들은 광범한 지역으로 원정할 것이다.

김일성 장군의 제안은 당시 당이 당면한 지도 방침이었으며 로선이었으며 또 빨찌산 운동을 더 광범한 지역에 확대 강성시키는 유일한 전투강령이었으며 반일 통일 전선의 구체적 실현의 강령으로 되였다.

김일성 장군의 현명하신 통찰력과 창조적 제안은 전체 유격구 인민들과 인민 유격대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김일성 장군은 당시 적아 력량(敵我力量) 대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였으며 모든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구체적 지도 방침과 정치 로선 및 전략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유격군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하고 一九三五년에 보다 높은 투쟁 조직에로 들어갔다.

(부기 —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사를 연구함에 본 론문을 참고 자료로 재공함과 동시에 독자들의 기탄없는 론의에 붙입니다. 독자들은 자기의 의견들을 편집국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 편집국)

# 강원도 당 단체의 간부 양성 사업

북조선 로동당
강원도당부 간부부장 주 창 복

강원도 당 단체는 우리 당의 조직자이시며 지도자이신 김일성 동지의 지도와 당 중앙 위원회의 올바른 지도 밑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항상 인민의 선두에 서서 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 속에 튼튼히 뿌리박고 그들의 무한한 지지와 신임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의 이러한 승리의 원천력은 우리 당이 가장 선진적인 과학적 리론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된 간부들로써 지도된 데 있다.

김일성 동지는 제二차 전당 대회에서 우리 당 간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지적하면서—우리 당 단체들은 앞으로 광범한 인민 층에서 우수한 새 간부들을 발견하며 그들은 대담하게 등용하며 실지 사업에서 훈련과 경험이 약한 젊은 간부들에게 심중한 고려를 돌리며 그들을 교양 훈련하며 낡은 간부들은 민주 사상으로 재교양하는 사업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강원도 당 단체는 이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 밑에 조국 건설 사업을 통해서 검열되고 단련된 우수한 민족 간부를 양성 등용하는 데 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생산 직장을 중심으로 각 세포에서 조국 건설 사업에서 육성되고 발전성있는 우수한 분자들을 선발하여 실제 사업 과정에서 훈련주는 동시에 상설 교육 기관인 도당 학교를 통하여 양성 훈련하고 있다.

당 창립 이후 오늘까지 현직 간부를 중심으로 한 三개월반에서 양성된 것이 一、〇七八명이며 특히 당 중앙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생산 직장에서 직접 선발된 六개월반에서 一五九명이 양성되어 당 기관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사회단체 중요한 간부로 등용되어 정치 경제 문화 각부면에 있어서 그의 주도적 역할을 놀고 있으며 그의 성분 구성은 로동자 빈농 성분이 八三%이다.

다음으로는 우리 당 기본 조직인 세포를 강화하며 후비 간부의 원천으로 되는 세포 핵심—열성자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는 제二차 전당 대회 결정 정신에 튼튼히 립각하여 구체적 지도를 주고 있다.

특히 도당 위원회 제七차 회의와 八차 회의는 이 사업을 강조하였으며 세포 핵심—열성자 구성은 세포 내에서의 국가 건설 사업과 당 사업에서 헌신성을 더하는 열성 당원들의 투쟁 업적을 기준으로 그들의 발전 척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다. 물론 이 지도 사업에는 시 군당부 책임 간부들이 직접 참가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각 시 군당부에서는

당 중앙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열성 당원들을 위한 강습을 정기적으로 一五—二○일간씩 계속 조직하여 그들의 정치 리론 수준 제고를 위한 정치 교양과 그 실무적 훈련들을 주고 있다. 이 결과 세포 사업을 강화함에 그 골간적 역할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비 간부로 자라날 기본 조건을 조성하였다.

× × ×

도당 상무위원회는 一九四九년 九월에 화천군 당 단체 간부 사업정형과 특히 평북도당 단체 간부 사업 정형에 대한 당 중앙의 결정에 근거하여 시 군 당 단체들의 간부 사업에 있어서의 기본적 결함들을 시정할 데 대한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는 결과 그 후 간부 양성 사업에 있어서 많은 전변들을 가져왔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 당의 간부 원천인 생산 직장과 농촌 세포에서 새로 자라나는 로동자 빈농민 성분의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지도적 지위에 등용하여 간부 진영은 질적으로 강화한 것이다.

둘째로는 이미 등용된 간부들은 실제 사업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도와주며 훈련하며 엄격한 사업적 비판과 자기비판의 정신을 배양하며 항상 긴장된 전투적 상태로 훈련 양성함으로써 그들이 오유와 융화하거나 긴장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서 사업에서 무능해지거나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심을 상실케 하는 결함들을 시정한 그것이다.

셋째로는 세포 핵심—열성자 양성 사업이 가지는 정치적 의의를 철저히 파악하고 시 군당 책임 간부들의 직접 지도 하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세포 핵심—열성자들은 재검토하여 애국적 열성과 헌신성을 다하는 당원들로써 재편성한 것이다.

도당부의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조직 지도의 결과로 전반적 세포에 기본적으로 옳은 핵심—열성 당원들이 구성되게 되었다.

인부 시 군당부에서는 후비 간부 양성 사업을 자연 생장성에 방임하였기 때문에 [illegible]가 없다는 구실로 결원 간부들 장시일 방임해두어 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게 하던 결함들이 기본적으로 시정되고 실지 세포 핵심—열성자 중 가장 우수하고 발전성있는 일군들을 선발 등용 배치하는 후비 간부진을 석정하고 그들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방조해 줌으로써 후비 간부 양성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부들을 옳게 선발 등용하며 옳게 양성하자면 실지 그 사업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간부 자업 일군들의 정치 지도 수준을 제고시키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도당부는 수차에 걸쳐 각 시 군당 간부 지도원 회의를 소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경험들은 호상 또의 비판케 하며 결점들을 퇴치하고 우수한 사업 경험들을 호상 교환케 함으로써 그들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무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결함들을 시정하여 주었다.

인부 당 단체에서는 책임 간부들이 간부 사업을 등한히 하여 매개 간부들의 실지 사업을 통해서 발견되는 우단점과 그들의 경력과 환경들을 옳게 료해하여 간부들을 계통적으로 선발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경력과 환경에만 치중함으로써 그 간부의 료해 자업을 다한 것처럼 인식하거나 또는 정확한 정치적 평가가 부족한 데서 간부들 적재 적소에 배치못하고 두워칙한 조동을 초래하는 결함들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지도를 한 결과에 오늘에 와서는 이 결함들이 기본적으로 퇴치되고 있다.

도당 단체의 간부 구성은 이러한 투쟁



은 통하여 현재는 우리 당의 기본 성분이 합당 당시에 비하면 五三·四%가 제고되었다. (도당 대상 당간부 이상)

× × ×

도당 단체는 민족 간부 양성 부문에 있어서나 기술적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하였다. 제二차 전당대회에서는 『국가 기관의 간부와 인민 경제, 인민 교육, 기술자 준비 문제와 교육기관 및 강습소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인민 위원회를 백방으로 방조』하며 『전문 학교 대학 기술 학교 이외에 민족 간부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산에 참가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장기 및 단기 야간 강습을 광범히 조직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라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도당부는 이 결정의 구체적 실행 대책을 강구하고 첫째로 정권 기관 간부 양성에 있어서 많은 책임적 당원 간부들을 옳게 재교양, 훈련하였으므로 인민 정권 기관 간부진이 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도 행정 간부 학교 사업에 있어서도 옳게 협조한 결과 인민층에서 선진 간부들이 대담적으로 양성되었다.

둘째로 중요 생산 직장 기술 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술 학교와 양성소를 통해서 수많은 기술 인재가 양성되어 국가 기관과 기업소 및 경제 기관에 중요 일군으로 등용되었다. 원산시와 문천군내 큰 공장에서만 보더라도 야간 기술 학교 및 기능자 양성소를 통하여 일반 로동자로부터 기능자로 一、二六五명, 기능자로부터 기술자로 四四명이 각각 발전되어 방대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총력량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진출될 민족 간부 양성을 직접 책임지는 교원 양성 사업에 관심을 두고 협조한 결과 재교육반에서 중학 교원 五三二명, 양성반에서 六六六명이 민주주의적 교육 방법과 선진 사상으로 재훈련 양성되어 신성한 민주 학원에서 앞으로 진출될 민족 간부 양성에 총력량을 경주하고 있다.

셋째로 경리 일꾼 양성 사업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한 결과 소비·조합 간부 양성소, 재정 간부 양성소 등에서 많은 간부가 양성되어 국가 기관 및 경제 기관 중요 간부로 등용되어 재정 경리 운영 제산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정치적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다.

넷째로는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 골간적 역할을 놀 농업 기술원 양성 사업에 도당부는 큰 관심을 두고 협조한 결과 옳은 기술 인재들이 양성되이 농산 부문에 부족되는 기술 인재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음으로 민주 개혁이 실시된 기초 위에서 민주 건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국가 기관의 확장과 인민 경제가 급격히 장성된 조건 하에서 녀성 간부 양성 문제는 간부 양성 사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당부는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두고 협조한 결과에 근로 녀성들이 당과 국가 기관에 진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생산 직장은 중심으로 근로 녀성들 속에서와 국가 기관 사회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 성분을 가진 녀성들을 선발하여 도당 학교에서 一七二명을 양성하였으며 도 인민 위원회 간부 학교에서 양성된 五十一명을 비롯하여 각종 양성소에서 많은 녀성 간부들이 양성되고 있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근로 인민 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젊은 간부들을 대담하게 선발하여 등용하는 문제이다.

근로 인민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우수한 간부들을 선발하여 광범히 양성 등용한 결과에 간부 부족의 기본적 애로를 타개하여 국가와 경제 기관을 능히 관리 운영하며 인민들의 선두에 서서 그

등을 국가 건설 사업에 옳게 조직 동원케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찬란한 민주 발전의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 기본 조건의 하나를 조성하였다。

× × ×

이상과 같이 당 창립 이후 오늘까지 도당 단체가 간부 양성 사업에서 얻은 성과는 막대한 것이 있다。그러나 도당 단체는 간부 양성 사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부분적 결함들을 최근까지 퇴치 못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일부 시 군당 단체에서는 아직까지 간부 양성 사업의 중대성에 대하여 철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업에 응당 돌려야 할 당적 주의를 약하게 돌림으로써 당 중앙이 요구하는 고상한 수준에서 간부 양성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다。그러므로 간부 양성 사업은 마치 상설적인 교육 기관인 당 학교나 어떠한 양성소를 통한 훈련 교육만을 간부 양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세포핵심—열성자들을 중심으로 로동자 빈농층으로부터 우수 분자들을 선발하여 실제 사업에서 일상적으로 훈련 교양하여 간부로 등용하지 못하는 그것이다。때문에 일부 시 군 당 단체들에서는 당과 정권 사회 단체들 내의 결원 간부를 장기간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가 간부에 대한 준비도、후련과 교양도 없이 공작 능력을 충분히 타산하지 못하고 두원칙하게 등용하고서는 수일 넘지 않아 교체하는 등 간부들의 고착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사실들은 당 중앙의 정확한 간부 정책의 기본 로선을 심중히 연구 집행하지 못한 까닭이다。

다음에 우리 당의 중견 간부를 양성하는 당 학교에 대하여 일부 당 단체들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분적 간부들은 학생을 추천함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심중히 고려하며 또한 앞으로 그를 중요 간부로 영구성(永久性) 있게 등용할 가능성에 대한 전제 조건을 타산하지 않고 오직 목전 사업에만 구애되어 二차적인 간부들을 추천하는 옳지 못한 현상들이 최근까지도 부분적으로 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직 간부들의 양성 훈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당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간부 속에는 당원의 의무로 제기되는 자체의 정치 문화 수준을 제고할 데 대한 당 규약상 원칙을 망각하고 아직 상설 교육 기관인 당 학교나 기타 양성소를 통해서만 교양된다는 그릇된 인식과 또한 사업이 분주하다는 구실로써 자체 교양을 태공하는 현상이다。마지막으로 일부 군당 단체 책임적 간부들은 녀성 간부 양성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철저히 파악치 못하고 녀성은 남자에 비하여 사업에 높은 능률을 기하지 못하며 자주 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실로 이 사업을 등한히 하는 사실들이 있다。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 군 당 단체들에서는 녀성 일꾼들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강원도 당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첫째로 간부 양성의 기본 방향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착취의 모든 고통을 겪어온 기본 생산 로동자、동일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그 사업에 종사한 로동자를 선택 양성하며 지도적 사업에 등용할 것」이라는 제二차 전당 대회 결정을 심중히 연구하여 반드시 우수한 생산 로동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공장 광산 등 기업 직장을 중심으로 농촌 세포 빈농 중에서 실제 생산에 모범적이며 당 로선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급적 립장이 견실하고 창발적이며 앞으로 정치 일꾼으로



능히 발전할 수 있는 적극 분자들을 옳게 료해하여 주저없이 선발 등용하며 그들을 부단히 훈련 교양할 것이며 또한 이 방향에서 간부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간부 양성 사업을 계획성있고 계통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중견 간부를 양성하는 당 학교들과 각종 강습 훈련 조직에 있어서 반드시 심중한 정치적 고려 밑에 교양줄 인재들을 실지 사업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연구하며 현시의 리해력과 의식 정도를 참작하고 양성 후 공작 배치 등을 타산하여 옳게 선발 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분이 좋다 하여 아무 기초적 준비도 없는 당원들을 당 학교 학생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퇴치하고 당 학교에 추천하기 전에 실지 지도 사업을 통해서와 단기 강습 및 각종 회의를 통해서 예비적 준비 교양을 줌으로써 계획적이고 계통적인 간부 양성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일부 시 군당 단체에서는 아직 후비 간부 양성 사업에 대한 중대성을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세포 핵심—열성자들을 더욱 강화하며 이들 중심으로 우수한 로동자 빈농 성분을 가진 일꾼들을 선발하여 정확한 후비 간부진을 강화하는 것은 간부 양성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재직 간부들의 교육 공작의 강화는 간부 양성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그러므로 매개 간부들은 당 학교를 통해서만 교양되는 줄 알고 자체 학습에 태만하여 사회 발전에 뒤떨어지는 현상들과 무자비하게 루쟁할 것이다。도당부는 이와 같은 현상들과 루쟁하며 재직 간부들을 참다운 인재들로 배양하기 위하여 실지 사업에서 훈련 교양하며 각종 단기 교양망을 조직하여 선진 당의 루쟁 경험을 학습하며 리론 수준을 제고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을 똑똑히 파악하고 우리 당의 정책이 인민들 속에 철저히 침투되게끔 지도할 줄 아는 간부로、맑쓰—레닌주의 선진 과학으로 무장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능히 독립적으로 방향을 정할 줄 아는 간부로 배양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공화국 북반부의 방대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달성하는 데 그 핵심으로 되는 기술적 인재를 광범히 양성하는 문제이다。그러기 위하여서는 각종 기술 학교들을 더욱 강화하며 특히 중요 생산 직장내 야간 기술 학교와 기능자 양성소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과 유리됨이 없이 조직하여 고착된 로동자들을 기술 일꾼으로 양성 등용하는 동시에 녀성 로동자들을 기술 일꾼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강력히 지도하고 있다。

오늘 조국의 정치 정세는 당원들에게 이미 얻은 성과에 도취하여 자만 자족하고 만사 태평과 안일심을 가지게 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그렇기 때문에 도당부는 매개 간부들을 그 어느 때보다 전에 대한 당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우리 당의 루쟁 지침으로 되는 맑쓰—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에 너욱 노력하며 우리 당을 강화함에 유일한 무기인 비판과 자기 비판의 정신에서 지나간 사업에서의 부분적 결함들을 용감히 퇴치하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전루적 상태에서 승리는 루쟁과 꾸준한 로력에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승리의 자신심을 가지게 하며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굴치 않는 희생적 정신으로 책임있게 문제를 취급할 줄 아는 불요불굴의 루사로 양성하고 있다。

놀지 제거지 확대 二배 중 성질 방직은 원칙

방직은 보장 제정 지정소는 성진 제강소로 제작함

一九五○년二월二十五일 인쇄
一九五○년二월二十八일 발행

「근로자」 제四호 (정가 三十원)

책임주필 기석복

인쇄인 조훈

평양특별시문수리三○○번지

발행소 로동신문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잡지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一|五번

ㄱ—18135